1화 노천극장의 빗소리와 동아리 공고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2000년 가을, 노천극장의 콘크리트 바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텅 빈 객석을 등지고 선 무대, 그 위로 핀 조명 하나만이 외로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빛 안에서, 낡은 기타 케이스의 뚜껑이 닫혔다. 덜컹, 하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케이스를 내려놓은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피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우산도 없이 젖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젖은 허공 너머 정확히 나를 향해 시선을 두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다가왔다.

"유진아."

그 세 글자가 귓가에 닿는 순간, 시야가 서서히 어두워졌다. 손에 쥔 이스트팩 가방끈만이 손아귀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질 뿐이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의식의 저편으로, 빗소리가 조금씩 멀어져 갔다.

'처음, 그러니까 1998년 봄.'

좁은 창틈으로 노란 아침 햇살이 밀려 들어왔다. 여전히 쌀쌀한 3월의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들뜬 이른 봄 내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며칠째 손때가 묻도록 들여다본 Y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증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학교 로고가 아침볕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나는 몸을 일으켜 합격증을 향해 손을 뻗었다. 두꺼운 상장 용지의 결이 손끝에 만져졌다. 이 종이 한 장을 받기까지 버텨온 야자와 단과의 밤들이 잠깐 스쳤지만, 이제는 서랍 깊숙이 접어 넣어도 좋을 만큼 홀가분한 기억이었다.

옷장 문을 열고 3년 내내 입고 다녔던 교복 재킷을 옷걸이째 꺼냈다. 팔에 닿는 낡은 천의 감촉이 새삼스러웠다. 나는 그것을 옷장 가장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 자리에 대신 걸어둔 것은 어제 엄마와 함께 골라온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였다. 아직 다림질 자국이 선명한 옷깃을 매만지며, 풋풋한 새 옷 냄새를 맡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스무 살의 얼굴이 있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사실 나는 지난 초겨울, 수시전형으로 S대 심리학과 합격 통지를 받아둔 상태였다. 담임 선생님도 엄마도 왜 굳이 정시까지 보냐며 말렸지만, 나는 기어이 수능이 끝난 뒤 정시 원서를 새로 썼고 결국 Y대에 최종 합격했다.

남들에게는 심리학보다 경영학 쪽 적성이 낫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전공도 순위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저 같은 캠퍼스를 걷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이미 손에 쥔 S대 합격증을 접어두고 등록 마감일에 Y대 쪽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새로 산 두꺼운 대학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에 합격증을 반듯하게 끼워 넣고, 가방 맨 안쪽 칸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한 차례 불어왔다. 나는 커튼을 걷으며,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한 것을 문득 떠올렸다. 개강을 하루 앞둔 마지막 저녁이었다.

거실 식탁 위로 낡은 형광등 불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작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언니, 대학생 되는 거 진짜 실감 나?" 유나가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콕 찍으며 눈을 반짝였다. "나도 얼른 커서 언니처럼 신촌 같은 데로 버스 타고 다니고 싶다."

"넌 아직 중학교 교복도 안 입어봤잖아." 나는 피식 웃으며 유나의 밥그릇에 계란말이 한 점을 더 얹어주었다. "그것부터 입어보고 말해."

"몰라, 나 벌써부터 반 배정 걱정돼. 친한 애들이랑 다 흩어지면 어떡하지." 유나가 입을 삐죽였다.

"어차피 한 달만 지나면 또 새 친구 생겨. 걱정 붙들어 매." 엄마가 국그릇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보다 우리 큰 딸, 대학 가서 뭐부터 하고 싶어?"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오리엔테이션 가보고 정하려고." 나는 숟가락으로 냉이 된장국을 뒤적이며 대꾸했다.

"친구 언니는 대학 가자마자 미팅부터 나갔다던데, 언니도 그럴 거야?" 유나가 짓궂게 물었다.

"야, 아무 말이나 좀 하지 마." 나는 유나의 정수리를 가볍게 콩 쥐어박았다.

"호호, 둘이 그만 좀 투닥거려." 엄마가 웃으며 계란말이 접시를 식탁 가운데로 밀었다. "아빠는 주일 밤인데도 회사일로 바쁘시다니까 우리끼리 실컷 먹자."

"엄마, 나 교복 다시 한번 입어볼래. 내일 그거 입고 학교 갈 생각 하니까 벌써부터 떨려." 유나가 신나서 말했다.

엄마는 그런 유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내 쪽으로 옮겼다. "우리 유진이는 벌써 다 커서 대학생이네. 시간 진짜 빠르다."

"엄마, 나 아직 스무 살밖에 안 됐거든." 나는 웃으며 국을 한 술 떴다.

"그래도 엄마 눈엔 아직 초등학생 때 그 얼굴 그대로야." 엄마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계란말이를 하나 집어 유나 입에 넣어주었다. "둘 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뭘 하든 엄마는 우리 딸들 응원해."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낮게 번졌다. 창밖은 아직 쌀쌀했지만, 거실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다음날 아침, Y대학교의 육중한 정문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캠퍼스 안쪽 보도블록 위로 수많은 학생들의 발걸음이 쉴 새 없이 교차했다. 나는 신입생 입학식 안내문을 손에 쥔 채 학생회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건물 앞 거대한 합판 게시판에는 수십 장의 동아리 모집 공고지가 어지럽게 겹쳐 붙어 있었다. 탈춤반, 사진동아리, 응원단... 낯선 이름들을 하나씩 눈으로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한 공고지 앞에서 걸음이 멈췄다. 빛바랜 갱지 위에 굵은 매직으로 적힌 '중앙노래패 울림'이라는 글자였다.

교회에서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선우 오빠가 학교에서 노래패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가영이가 지나가듯 말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을 뿐, 동아리 이름까지 새겨듣지는 않았었다.

공고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뒤쪽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야, 울림 이번 새내기 환영회 사회 최선우 선배가 본대."

"진짜? 그 선배 기타 완전 잘 치잖아. 작년 정기공연에서 봤는데 미쳤더라."

"근데 되게 까칠하다던데. 여자들이 들이대도 다 튕겨낸다고."

발소리가 멀어지고 목소리도 함께 흩어졌다. 나는 게시판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최선우'라는 이름 석 자가 낯선 이들의 입에서, 나와는 무관한 맥락으로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교회에서는 늘 '선우 오빠'였다. 가영이의 오빠, 평안교회 청년부의 선우 오빠. 일곱 살 무렵부터 봐 온 얼굴이었고, 나는 언제나 그 앞에서 '우리 유진이'로만 불렸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다. 이곳에서 그는 그냥 '최선우 선배'였다. 노래패에서 기타를 치고, 신입생 환영회 사회를 보고, 누군가에게는 '까칠한 선배'로만 존재하는 사람.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어던져 본 적 없는 오빠와 동생이라는 관계가, 여기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나는 다시 공고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의 전화번호와 동아리방 위치가 적힌 아랫단이 눈에 들어왔다.

게시판 앞에 서서 가만히 그 글자들을 눈으로 짚어 내려갔다. 낯선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었던 이름과, 지금 눈앞의 이 종이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는 늘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 가영이의 친구, 평안교회 동생 유진이, 선우 오빠에게는 언제까지나 '우리 유진이'. 그 이름표를 스스로 벗어던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니, 벗어던질 방법 자체를 몰랐다.

그런데 이 학생회관 지하 어딘가에 있다는 동아리방에서는, 나는 그저 신입 부원 정유진일 뿐이었다. 일곱 살 때부터 알아 온 동생의 친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으로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 사실 하나가, 여태껏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문 하나를 슬쩍 열어 보이는 것 같았다.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나는 한 손으로 다이어리를 꺼내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고지 아랫부분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 끝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테이프가 붙어 있던 자리가 뻣뻣하게 저항했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어 그 부분만을 반듯하게 뜯어냈다. 종이가 찢어지는 마른 소리가 짧게 울렸다가 사그라들었다.

뜯어낸 조각을 두 번 접어, 합격증이 끼워진 수첩 첫 페이지 안쪽에 나란히 밀어 넣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간직하게 된 두 장의 종이가 같은 페이지 안에 겹쳐졌다.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는 손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오디션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지원 자격이 새내기에게 어떻게 열려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그런 건 앞으로 하나씩 알아가면 될 일이었다.

지금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다. 이 동아리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우리 유진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

십삼 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오래 눌러둔 숨을 처음으로 길게 내쉬는 기분이었다.

게시판 앞을 떠나는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곧았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차창 밖으로 캠퍼스 정문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 펼쳤다. 합격증 아래 포개진 '울림' 공고지 조각이 아직 손끝의 온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볼펜을 꺼내 공고지 여백에 작게 글자를 눌러 적었다.

경우의 수.

일곱 살 때부터 봐 온 사람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처음 알게 된 사람 같았다. 낯선 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 석 자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합격증 한 장이 스무 살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라면, 오늘 뜯어낸 이 종이조각은 나만 아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이었다.

이번 주 일요일, 가영이에게 슬쩍 물어볼 생각이었다. 울림이라는 동아리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봄 풍경 위에, 아직 낯선 그 두 글자가 오래도록 겹쳐 보였다.

[1화 끝]

2화 유진의 다이어리와 낯선 심사위원

밤새 뒤척인 탓인지, 관자놀이 한쪽이 둔하게 욱신거렸다. 창밖이 아직 어둑한 걸 보니,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왜 잠을 설쳤을까?

3월의 주일 아침 공기는 아직 싸늘했다. 현관을 나서자 단지 안 화단에서 아직 이른 봄꽃 냄새가 옅게 풍겨왔다.

목동 신시가지 특유의 나란히 늘어선 아파트 동들 사이로, 나는 늘 다니던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평안교회는 단지 상가 건물을 지나 놀이터 옆 공터에 자리 잡고 있다.

붉은 벽돌 건물의 유리문을 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목재 벤치에서 배어 나오는 나무 냄새와 들릴 듯 말 듯한 기도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가영이와 다희, 미라는 이미 뒷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가영은 늘 그렇듯 팔짱을 낀 채 주변을 훑어보는 눈빛이었고, 다희는 옆자리 애한테 뭔가를 속닥거리며 킥킥댔다. 미라는 눈 밑이 거뭇한 채로 하품을 참고 있었다. 재수 학원 새벽반 탓이라는 걸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청년부 무리 한가운데,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선우 오빠는 주변 사람들과 여유롭게 인사를 나누며 특유의 나른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흩어지는 틈을 타 그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어, 다희랑 미라는 오랜만이네! 우리 유진이는 잘 지냈어?"

"네, 오빠. 잘 지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짧게 웃으며 청년부 임원들의 부름에 뒤돌아 걸어갔다. 가영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다.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죽겠어."

예배가 끝난 정오 무렵, 우리는 단지 상가 1층 롯데리아로 몰려갔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짭짤한 냄새가 자리를 채웠다. 천장 스피커에서는 S.E.S의 I'm your girl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플라스틱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친구들이 각자 주머니에서 삐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어제 미팅한 오빠 왜 삐삐 안 치냐. 공중전화 가서 음성 확인해봐야 하나." 다희가 콜라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투덜댔다.

"야, 벌써부터 그렇게 집착하면 없어 보여." 가영이가 감자튀김을 케첩에 푹 찍으며 핀잔을 줬다. "미라 너는 요즘 좀 어때, 공부 다시 할만해?"

"말도 마. 하루 열두 시간씩 앉아 있으려니까 죽을 맛이야." 미라가 콜라를 쭉 들이켜며 한숨을 쉬었다. "너네는 좋겠다, 벌써 대학생이라고."

가영이와 다희가 그 화제로 낄낄거리는 사이, 나는 감자튀김을 하나 집으며 슬쩍 물었다. "가영아, 너희 오빠 동아리 활동 하잖아. 거기 어떤 데야?"

"거기? 학교 중앙 노래패인데, 울림이라던가." 가영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역사도 엄청 오래됐고, 가을마다 노천극장에서 정기공연도 크게 해. 오빠는 메인 기타리스트라고 하더라고. 이번에 새내기 환영 공연 연출을 오빠가 한다고 하던데."

"노래패에 가입 조건이 있으려나? " 나는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최대한 무심하게 되물었다.

"당연하지. 매년 봄에 신입 오디션 봐서 뽑을걸. 근데 너 갑자기 동아리 얘기는 왜 자꾸 해." 가영이 눈을 흘기며 웃었다. "설마 너도 지원하게?"

"에이, 나 노래도 못하는데 무슨." 나는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그치, 넌 노래는 진짜 아니지." 다희가 옆에서 거들며 웃었다.

"그보다 너 이번에 브릿지 새로 넣은 거, E대 앞에서 한 거야?" 나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다희가 신나서 머리를 넘기며 화제에 뛰어들었다. 가영의 시선이 잠시 나에게 머물다가, 이내 다희 쪽으로 옮겨갔다.

나는 남은 감자튀김을 씹으며 안도의 숨을 조용히 삼켰다.

월요일 오전 첫 경영학원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상경관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가방 속 다이어리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다.

어제 롯데리아에서 가영이 흘린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선우 오빠가 울림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것, 매년 봄마다 신입 오디션을 본다는 것.

백양로를 가로질러 학생회관으로 향하는 길, 봄바람이 이스트팩 끈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다. 캠퍼스는 아직도 낯설었지만, 걸음만큼은 이미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동방 문 앞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다. '98학번 신입 부원 모집 — 오디션 3월 18일'이라는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지원서 양식은 게시판 옆 작은 상자 안에 여러 장 놓여 있었다. 나는 한 장을 집어 들고 근처 빈 강의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지망 동아리, 이름, 학과, 학번, 희망 파트를 적는 칸이 있었다. 희망 파트란에는 잠시 펜을 멈췄다가, '신디사이저'라고 또박또박 눌러 적었다.

다 쓴 지원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내려가며, 혹시라도 어딘가에 실수가 있지는 않을까 살폈다. 글씨체 하나까지도 신경 쓰였다.

동아리방 문 앞으로 돌아와 접수함에 지원서를 밀어 넣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기타 소리에 잠깐 멈칫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지원서가 함 안으로 떨어지는 마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직 나 하나뿐이었다.

오디션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이 안 되었다. 그 동안,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오디션 당일. 학생회관 지하 복도, 동방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나는 지원서에 눌러 적었던 '신디사이저'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떠올렸다. 또박또박 눌러 쓴 그 필체가 낯설게 느껴졌다.

건반 앞에 처음 앉았던 게 일곱 살 무렵이었다. 가영이 엄마가 운영하던 피아노 학원에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손이, 언젠가부터 주일마다 학생부 예배 반주 자리를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늘 당연한 자리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앉는 자리,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역할. 선우 오빠의 기타 선율에 맞춰 코드를 짚는 것도, 실수 없이 화음을 채워 넣는 것도 그저 몸에 밴 습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 이 복도에서는 달랐다. 새내기 정유진이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자격이었다. 아무 배경도, 아무 연줄도 없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앞서 대기하던 지원자 몇 명이 낮은 목소리로 곡목을 되뇌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긴장을 삭이고 있었다.

지원자 명단에는 다른 파트까지 합쳐 여든 명 남짓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중 신디사이저 파트만 놓고 보면 나를 포함해 여섯 명뿐이었다.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손끝까지 저릿하게 전해졌다.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지원자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코드 진행을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허공에 건반을 짚는 시늉을 했다.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나도 모르게 손끝을 무릎 위에서 움직여보았다.

선우 오빠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등허리를 곧게 세워주었다. 도움도, 배려도 없이 오직 손끝의 소리 하나로만 평가받는 자리라면, 그건 그것대로 나쁘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 앞 순서 지원자의 기타 소리가 끊기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 형광등 아래 좁은 동방이 한눈에 들어왔다. 낡은 소파와 계란판이 붙은 벽, 그 앞에 기댄 앰프와 악보 더미 너머로, 긴 테이블 뒤에 다섯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른쪽 끝 자리, 옆 심사위원과 나지막이 몇 마디를 주고받던 사람이 문득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선우 오빠였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놀람이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채 한 호흡도 이어지지 않고 곧바로 지워졌다. 다시 자리를 고쳐 앉는 그의 얼굴에는 어느새 평소의 다정함 대신,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단정한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경영학과 새내기 정유진입니다." 나는 그와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또박또박 이름을 밝혔다.

"네, 신디사이저 지원하셨네요? 앉으세요." 가운데 앉은 심사위원이 신디사이저 쪽으로 짧게 손짓했다.

건반 앞에 앉으며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여기서 나는 가영이의 친구도 교회 동생도 아니다. 노래패 신디사이저 파트에 지원한 새내기, 그뿐이다.

왼쪽 끝자리에 앉은 다른 심사위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다. "정유진 씨, 연주 경력이 따로 있나요?"

"교회에서 반주를 좀 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느 교회인지, 몇 년이나 했는지는 묻지 않기를 바랐다.

다행히 그 이상의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첫 음을 짚는 순간, 가운데 앉은 심사위원이 짧게 감탄사를 흘리는 게 들렸다.

연주가 끝날 때까지 선우 오빠는 단 한 번도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심사위원석 다섯 사람 중 유독 그의 시선만이 건반 위 내 손끝을 집요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걸, 나는 곁눈질로 계속 느끼고 있었다.

연주를 마치고 손을 무릎으로 내리는 순간에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다른 심사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건네는 동안에도, 그는 펜 끝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였다.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서로 입 밖에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인 척 완벽

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어쩐지 예배당에서의 그 어떤 대화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문득 그가 고개를 살짝 들어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낯선 심사위원의 얼굴 아래로 아주 잠깐 익숙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이번주 금요일에 게시판에 공지할게요." 가운데 앉은 심사위원의 말에 나는 짧게 목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몇 걸음 사이, 등 뒤로 시선 하나가 따라붙는 게 느껴졌다.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나는 참지 못하고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렸다.

선우 오빠가 나를 보고 있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은 멈춰 있었고, 방금 전의 단정한 무표정은 어느새 옅게 허물어져 있었다.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채 헤아리기도 전에, 그는 재빨리 시선을 서류로 되돌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의 찬 공기가 뺨에 닿는 순간에야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계단을 오르며 방금 전 그 짧은 균열의 순간을 몇 번이고 되짚었다. 놀람이었는지, 다른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오늘부로 나는 더 이상 '우리 유진이'로만 남을 생각이 없었다.

[2화 끝]

3화 캠퍼스 퀸과 독수리다방 성냥갑

"유진아, 오늘 점심 시간 되면 우리랑 같이 밥 먹을래?" 복학생 선배 하나가 웃으며 다가왔다. 3월 말이 되면서, 강의실을 나설 때마다 이렇게 낯선 얼굴들이 앞을 막아서는 일이 잦아졌다.

도서관 열람실 자리에 낯선 메모지와 캔커피가 놓여 있는 날도 있었다. '수업 잘 듣고 있길래 두고 갑니다' 같은 이름 없는 짧은 문장이 적힌 메모였다. 누가 두고 간 건지는 늘 짐작도 안 되었다.

회계원리 조교 선배는 과제 질문을 핑계로 삐삐 번호를 물었고, 같은 강의를 듣는 동기 남학생은 굳이 노트 필기를 대신 정리해 건네주기도 했다. 저녁마다 술 한잔하자는 선배들의 호출도 끊이지 않았다.

찰랑이는 생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교회 청년부에서 다져진 적당한 붙임성. 그 조합이 생각지도 못한 별명을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나를 두고 '경영학과 캠퍼스 퀸'이라 불렀고, 그 말은 며칠 만에 학과 전체에 퍼졌다.

정작 나는 그 호칭이 낯설고 얼떨떨했다. 밥을 사겠다, 술을 사겠다 줄줄이 이어지는 호의들 속에서도 정작 내 머릿속을 채우는 건 다른 계산이었다.

야자 시간 책상 앞에 붙어앉아 있던 고등학생 시절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 했을 관심이었다. 그 낯선 관심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나는 아직 요령이 없었다.

교회에서 선우 오빠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다. 그 다정함은 절대 오빠와 동생이라는 선을 넘어오지 않았다. 아무리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받아도, 그 잔잔한 호수 같은 태도에는 눈에 띄는 파동 하나 일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지는 다른 시선들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용해본다면 어떨까! 견고한 그 선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치졸한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생각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동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독 가벼웠다.

동방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낮에도 형광등을 켜둔 어둑한 공기와 익숙한 기타 소리가 동시에 밀려왔다.

소파에 늘어져 있던 부원 몇 명이 고개를 들었다. "어, 새내기 왔다!" 누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신디사이저 파트 경영학과 새내기 정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나는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 지난번 오디션 때 그 신디! 잘 왔어." 오디션 때 본 듯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손뼉을 치며 자리를 내주었다. 다른 새내기 두엇도 어색하게 목례를 건네왔다.

소파 한쪽에서 악보를 뒤적이던 여자 선배가 웃으며 말을 보탰다. "건반 진짜 좋더라. 다들 그 얘기 했었어."

어색함이 조금씩 풀려 나는 빈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은 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선우 오빠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통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

교회에서라면 벌써 몸을 일으켜 "우리 유진이 왔어?"라며 다정하게 아는 척을 했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그는 달랐다.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오직 손끝의 현과 귓속으로 파고드는 음정에만 온 신경을 쏟는 사람.

그저 짧게, 시선 한 번을 슥 들어 나를 확인하고는 다시 기타로 돌아갔다. 그게 다였다.

낯설고도 이상하게 좋았다. 이곳에서 나는 처음부터 '우리 유진이'가 아니라 새내기 정유진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동방 문이 벌컥 열리며 종환 선배가 들어섰다. 낡은 슬리퍼를 끌며 소파 쪽을 훑던 그의 시선이 나에게 멈췄다.

"어? 유진이 여기 있었네?" 그가 눈을 크게 뜨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야, 나 밥 사준다고 몇 번을 호출쳤는데 씹더니, 동방에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완전 좋은데?"

"아, 죄송해요 선배. 수업 듣느라 확인을 못 했어요." 나는 웃으며 둘러댔다.

"됐어, 됐어. 이렇게 봤으면 됐지." 종환 선배가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야, 근데 너 우리 과 후배인 데다 동아리 후배까지 됐다니, 이거 나한테 완전 겹경사인데?"

그가 주변 부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떠벌리기 시작했다. "얘들아, 얘가 내가 말했던 그 경영학과 새내기야. 완전 우리 과 캠퍼스 퀸이라니까."

새내기들 몇이 웃으며 나를 쳐다봤고, 나는 민망함에 어깨를 조금 움츠렸다.

"야, 왜 그렇게 봐. 그냥 자랑스러워서 그런 거지." 종환 선배가 억울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하다. 오디션 때 딱 보니까 알겠더라, 얘가 딱 될 거 같았어." 그가 팔짱을 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여기저기 얘 얘기 좀 하고 다녔거든. 우리 과 캠퍼스 퀸이 우리 동아리까지 들어왔다고."

"아이, 선배도 참." 나는 민망함에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벽 쪽에서는 여전히 기타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종환 선배의 왁자한 목소리에도 선우오빠는 고개 한 번 들지 않은 채 코드를 짚어나갔다. 그 무심한 옆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눈에 밟혔다.

"근데 유진아, 너 다음 주에 우리 과 3학년들 모꼬지 있는 거 알아?" 종환 선배가 슬쩍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청평 콘도 잡았거든. 너 온다고 하면 애들이 완전 난리 날 텐데."

"저는 아직 새내기라....." 나는 애매하게 말끝을 흐렸다.

"에이, 새내기면 뭐 어때. 내가 데려가면 되지." 종환 선배가 은근슬쩍 어깨 쪽으로 상체를 기울여왔다. 코끝에 훅 끼치는 담배 냄새에 나도 모르게 미간이 좁혀졌다.

"차도 렌트해서 다 같이 편하게 갈 거고, 숙소도 좋은 데로 잡았어. 너만 온다고 하면 진짜....."

그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새내기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슬쩍 자리를 피했다.

기타 줄이 뚝 끊기는 듯한 소리와 함께 스툴이 바닥을 긁는 마찰음이 짧게 울렸다.

"종환 선배, 우리 새내기 좀 그만 괴롭혀요." 나른하지만 서늘한 음성이었다. 선우 오빠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와 있었다.

그가 내 앞을 가로막듯 자연스럽게 서며 종환 선배와의 거리를 벌려놓았다. 옷깃이 스치는 순간, 나는 숨을 헉 들이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이, 선우야 왜 그래. 그냥 얘기하는 건데." 종환 선배가 머쓱하게 웃으며 물러났다.

"우리 새내기, 형이 그렇게 몰아붙이면 부담스러워하죠." 선우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알았어, 알았어." 종환 선배가 두 손을 들며 한 발 물러섰다. "아, 너는 또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밥 한번 먹자는 거지."

선우 오빠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별다른 말 없이 다시 몸을 돌려 자리로 돌아갔다. 통기타를 다시 품에 안았지만, 현 위에 얹은 손끝이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다.

평소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짧은 정지였다. 하지만 늘 막힘없이 코드를 이어가던 그가 손을 멈춘다는 건, 그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 잠깐의 정지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머쓱해진 종환 선배가 다시 슬그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유진아, 정 모꼬지가 부담스러우면, 이번 주말에 독수리다방에서 미팅 어때? 경영대 에이스들만 모이는 자리야. 부담 없이 밥만 먹는 거니까."

나는 대답 대신 벽 쪽을 흘긋 바라보았다. 선우 오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지만, 방금 전 그가 종환 선배를 막아서던 그 짧은 순간의 무게가 아직도 어깨에 남아 있었다.

'우리 유진이'가 아니라 '우리 새내기.' 그 말은 나름 다정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는 나를 지켜주면서도, 결코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다.

동아리 부원이 된 지 겨우 며칠, 나는 이미 그 다정함의 한계를 확인한 셈이었다. 방금 전 잠깐의 정지조차, 나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그저 동생 같은 후배를 지키려는 오지랖에 가까울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가 종환 선배를 막아설 때, 분명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이 인기를 이용해서라도, 저 무심한 옆얼굴에 한 번쯤 다른 표정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치졸한 오기였다.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좋아요, 선배. 갈게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오, 진짜? 콜?" 종환 선배가 반색하며 되물었다.

"네, 갈게요." 나는 한 번 더 또렷하게 대답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부원 몇이 휘파람을 불며 놀리듯 웃었다. "종환이 형, 완전 신났네." 누군가의 농담에 동방 안에 짧은 웃음이 번졌다.

대답이 끝나자마자 벽 쪽을 다시 살폈다. 악보를 넘기던 선우 오빠의 손끝이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멈칫했다.

종환 선배가 나를 '우리 과 캠퍼스 퀸'이라 부르며 호들갑을 떨 때부터, 그는 이미 알아챘을 것이다. 그저 가영이의 친구이자 귀여운 교회 동생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악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지만, 나는 그 미세한 정지를 똑똑히 보았다.

내 대답에 신이 난 종환 선배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뭔가를 적어 내 손에 쥐여주었다.

손바닥에 닿은 건 작고 거칠거칠한 종이 상자였다. 붉은 상호가 박힌 독수리다방 성냥갑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일곱 시, 독다방 앞에서 보자. 주선자 이름과 삐삐 번호 여기 적어놨어." 종환 선배가 신난 얼굴로 웃으며 다른 부원들에게도 한마디씩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성냥갑을 손안에 꽉 쥐었다. 거친 종이 표면이 손바닥을 긁는 감촉과 함께, 어렴풋한 황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벽 쪽을 다시 한번 곁눈질했다. 선우 오빠는 그 소절 앞에서 손끝을 몇 번이고 다시 멈

춰 세우고 있었다.

그 자꾸만 멈추는 손끝이, 오늘 내가 본 것 중 가장 선명한 균열이었다.

나는 성냥갑을 외투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손끝에 남은 까끌한 감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이 작은 불씨가 어디로 옮겨붙을지, 아직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늘 이 동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선우 오빠의 무표정 너머를 아주 잠깐 들여다본 것 같았다.

[3화 끝]

4화 청량리역 기차표와 성냥갑 불씨

청량리역 광장을 향하는 내 발걸음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른 아침의 선선한 공기가 목덜미를 스치며 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지난주 독수리다방 미팅은 정작 종환 선배가 경영대 모임 일정을 착각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무산되어 버렸다. 뒤늦게 전화로 사과하는 선배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어차피 진짜 목적은 이루었으니 아쉬울 것도 없었다. 오늘 입은 외투 주머니 속에는 종환 선배에게 받았던 낡은 성냥갑이 여전히 들어 있었다. 손가락에 닿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며 서늘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종이 곽이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서슬 퍼런 냉기가 남아 있는 1998년 4월 초였다. 청량리역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모꼬지를 떠나려는 무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각 대학의 과 점퍼와 총천연색 동아리 깃발들이 거대한 혼돈을 이루며 이리저리 휘날렸다. 광장 입구에서부터 디젤 매연 냄새가 시큼하게 코를 찔렀고, 비둘기 떼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는 시계탑 아래로 구겨진 신문지가 쓸쓸하게 나뒹굴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구두 굽과 운동화 밑창이 시멘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수백 개의 리듬으로 어지럽게 겹쳐 울렸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내 시야는 단 한 사람의 실루엣을 정확하게 포착해 냈다. 마치 고성능 레이더가 목표물을 록온한 것 같은 뾰족한 감각이었다.

낡고 빛바랜 청재킷, 한쪽 어깨에 걸친 손때 묻은 통기타 케이스. 최선우, 오직 그만이 흑백 사진 속에서 유일하게 채색된 존재처럼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있는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새내기라는 명목하에 억지로 떠맡은 커다란 스낵 박스와 페트병 음료수 꾸러미가 무겁게 들려 있어 걸음걸이가 볼품없이 우스꽝스러웠다.

"자자! 우리 노래패 울림의 새내기들, 당장 기장 앞으로 헤쳐 모여!"

요란한 엇박자 박수 소리와 함께 기장인 재민 선배가 무리의 한가운데로 불쑥 나섰다. 그 옆에서 현아 선배가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한 빳빳한 승차권 뭉치를 손에 쥔 채, 앞줄부터 이름을 하나씩 대조하며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었다.

"이름 확인하고 가져가세요. 잃어버리면 재발급 안 해줘요."

내 이름 옆에 체크 표시가 그어지고 통일호 승차권 한 장이 손에 쥐어졌다. 짐을 고쳐 안느라 낑낑대는 사이, 시야의 사각지대 끝으로 묘한 시선이 스쳤다.

무심한 척 동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내가 든 짐의 부피를 훑고 지나가는 그 무심하고도 기민한 눈길이었다.

플랫폼으로 밀려드는 인파를 따라 열차에 올랐을 때, 좌석은 이미 뒤섞여 정해진 자리랄 것도 없었다. 나는 결국 선우 오빠와 두 자리 건너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짐칸에 스낵 박스를 올리려 낑낑대는 나를 보다 못한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가볍게 받아 들었다. 그 순간 청자켓 소매가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조심해라. 다친다."

나를 스쳐 지나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툭 던진 그 무심하고도 다정한 울림에, 몸의 모든 통제권이 일순간 툭 끊어지고 말았다.

고작 1초도 되지 않는 지극히 짧은 물리적 접촉이었으나, 그 거대한 열감은 얇은 옷감을 뚫고 들어와 척추까지 곧장 타고 올랐다.

조여들고 이완되기를 반복하는 전율이 어깨에서 쇄골, 흉곽 안쪽까지 연달아 번져나가며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흔들어댔다. 온몸의 잔털이 일제히 곤두서며 피부 위로 오소소한 소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건 선우 오빠야. 교회에서와 똑같은 무심한 호의야. 동요하지 마.'

이성이 내뱉는 냉정한 경고가 머릿속을 날카롭게 울렸다. 하지만 방금 스치고 지나간 그 짧은 마찰의 열기는 순식간에 기억으로 전환되어 어깨 위 그 좁은 면적에 지독하게 눌러붙었다.

까끌거리던 청재킷 소매의 질감, 그 순간 확연히 좁혀졌던 체온의 거리가 피부 위에 화인처럼 깊게 새겨졌다.

짐을 완벽하게 수납한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뒤돌아서 제자리로 가려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열기로 붉게 달아오른 내 안색을 기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오직 나에게만 닿았다 떨어지는 그 스치는 시선 속에는 묘한 걱정이 짙게 서려 있었다.

열차가 덜컹거리며 속도를 올리자 누군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유재하와 전람회의 노래를 낮게 틀었고, 동기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얹었다.

오빠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신 무릎 위에 얹은 손끝으로 낮게 박자를 두드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마저도 나는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대성리역에 내려서니 아직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다. 민박집까지는 신작로를 따라 이십 분 남짓 걸어야 한다는데, 그 사이 회장인 상혁 선배가 뒤늦게 합류했다.

낡은 수첩을 든 채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일정은 저녁 여섯 시부터가 본게임이다"라며 낮은 목소리로 정리하자 새내기들 사이에서 옅은 긴장감이 돌았다.

짐을 배정받고 방을 나누는 사이, 메인보컬 지훈 선배가 마당 한쪽에서 목을 뒤로 젖히며 늘어지게 스트레칭을 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방 배정 그거 대충 하자"며 흐트러진 분위기를 능청스럽게 눌러앉혔다.

근처에서 장을 보고 조금 늦게 도착한 일렉기타 파트 진우 선배는 인사도 뒤로한 채 곧장 앰프 상태부터 확인하며 이퀄라이저 다이얼을 만졌다. "이거 또 눅눅해졌네." 짧게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다.

오후 내내 마당과 방을 오가며 짐을 풀고 자유시간을 갖는 동안에도, 나는 선우 오빠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곁눈질로 좇는 걸 멈추지 못했다.

현아 선배는 방 배정 장부를 든 채 "1호실 인원 다 확인됐어요? 저녁 재료비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라며 분주히 오갔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마당에 커다란 들통 두 개가 걸리고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카레 냄새가 마당 전체에 구수하게 퍼졌다.

지훈 선배가 밥을 푸다 말고 "야, 새내기들 국자 좀 짧게 잡아. 밥 반, 카레 반, 그게 국룰이야"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진우 선배는 앰프 걱정에 밥그릇을 든 채로도 흘낏 앰프 쪽을 확인했다.

다들 플라스틱 접시를 든 채 마당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나는 신입 동기들 틈에 끼어 앉았지만, 시선은 자꾸만 무리 저편에서 묵묵히 밥을 먹는 선우 오빠 쪽으로 흘러갔다.

그 역시 딱 한 번, 짧게 이쪽을 돌아보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거뒀다.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가 마무리될 즈음, 마당 한켠에 장작더미가 쌓였다.

"모닥불 팀, 재민이랑 너희 셋이서 불 좀 피워봐라."

상혁 선배의 한마디에 재민 선배가 앞장서 장작더미 앞으로 향했다. 그러다 외투 주머니를 뒤적이던 손이 갑자기 멈추더니, 뒷머리를 벅벅 긁적였다.

"어, 잠깐만. 나 라이터를 가방에 두고 왔나 보다. 야, 너희 중에 라이터나 성냥 가진 사람 없냐?"

팀원들이 저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나오는 건 없었다. 나는 무심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끝에 걸리는 거칠거칠한 종이 상자의 감촉에 멈칫했다. 독수리다방 성냥갑이었다.

"저, 저 있는데요."

내가 성냥갑을 꺼내 내밀자 재민 선배가 반색하며 덥석 받아 들었다

"어? 너 웬 성냥이야?"

장난스럽게 되묻는 말에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어넘기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재민 선배는 별생각 없이 성냥갑을 받아 들더니, 마당 구석에 굴러다니던 신문지를 여러 장 구겨 장작 밑동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 잔가지 몇 개를 그 위에 얼기설기 얹은 뒤, 성냥 한 개비를 그어 신문지에 조심스레 가져다 댔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그 여린 불씨를 가만두지 않았다. 첫 번째 성냥불이 순식간에 훅 꺼졌다. 재민 선배가 짧게 욕설을 삼키며 두 번째 성냥을 다시 그었지만, 이번에도 불꽃이 채 신문지에 옮겨붙기도 전에 바람에 꺾여 사라졌다.

"야, 누가 바람막이 좀 해봐! 이러다 성냥 다 쓰겠다."

재민 선배의 다급한 외침에 팀원들이 우르르 몸을 웅크리며 장작더미 주위로 벽을 만들었다. 나도 얼결에 그 대열에 끼어 카디건 자락을 넓게 펼치며 바람을 막아섰다. 등 뒤로

사람들의 체온이 겹겹이 둘러싸는 게 느껴졌다.

재민 선배가 세 번째 성냥을 그어 조심스럽게 신문지 밑으로 밀어 넣는 순간, 몸으로 만든 그 작은 벽 안에서 마침내 불씨가 오래 버텨냈다.

작은 불씨가 신문지에서 잔가지로, 잔가지에서 굵은 장작으로 서서히 옮겨붙기 시작했다.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본격적으로 타오르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제히 낮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야, 너 성냥 없었으면 오늘 우리 얼어 죽을 뻔했다"며 웃었다.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슬쩍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 내내, 가슴 한구석에서는 낯선 감각이 조용히 일렁였다.

종환 선배가 나를 도발의 도구로 쥐여준 성냥이, 정작 오빠가 몸담은 이 세계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를 흔들어보겠다는 오기로 챙긴 물건이 오히려 나를 이 무리 안으로, 오빠의 세계 가장 가까운 자리로 끌어당긴 셈이었다. 손바닥에 남은 성냥갑의 거친 감촉을 가만히 문지르며, 나는 그 아이러니를 오래도록 곱씹었다.

아직 겨울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산속의 4월 밤바람은 뺨을 베어낼 듯 차가웠다. 나는 얇은 카디건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여미며 모닥불 빛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를 홀로 서성거렸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웃음소리와 노래, 취기 오른 얼굴들이 모닥불 주변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누군가 기타 반주에 맞춰 목청껏 소리를 질렀고, 그 소란이 커질수록 나는 오히려 한 발짝씩 불빛 저편으로 물러났다.

사람들 틈에 섞이지 못한 채 홀로 떨어져 서 있는 이 거리감이 낯설지 않았다. 늘 이렇게 문밖에서 서성이던 자리였으니까. 내 시선은 그 소란을 등지고 불빛 저편을 향해 고요하게 뻗어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흙바닥을 밟는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돌아보지 않아도 내 온 신경이 반응하는 묵직하고 익숙한 인기척이었다.

[4화 끝]

5화 선우의 겉옷과 노래패 마이크

모닥불의 붉은 빛무리 너머로, 한 손에 통기타를 든 선우 오빠가 내 곁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불빛을 머금은 짙은 눈동자가 알 수 없는 파동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 위에 걸쳐 안고 있던 통기타를 옆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만이 그 침묵의 간격을 메웠다. 나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 그저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걸치고 있던 낡은 청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단추를 잡은 그의 손끝이 아주 짧게 멈칫했다.

마치 이 정도의 다정함이 선을 넘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처럼 보이는, 찰나의 망설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망설임을 삼키듯 짧게 숨을 고르고는 곧장 옷을 마저 벗어 내렸다.

"밤바람 차다. 감기 걸리면 너만 고생이야."

무심한 듯 허공에 툭 던지는, 낮고 나른한 목소리였다. 그 커다란 겉옷이 내 좁은 어깨 위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코끝으로 흙내음과 옅은 섬유유연제 향이 뒤섞여 스며들었다. 오빠의 냄새였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두 손으로 옷깃을 조심스럽게 움켜쥐었다. 지금 당장 이 온도를 빼앗기게 될까 봐 두려운 것처럼.

고맙다는 말을 건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목 끝까지 차오른 그 짧은 인사말은 어쩐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두고 싶은 욕심이,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옷자락이 스치는 아주 미세한 마찰에도 내 몸은 마치 고장 난 기계처럼 반사적으로 어깨를 바짝 움츠리고 말았다. 옷감 너머 전해지는 오빠의 체온이 피부 위에 화인처럼 짙게 새겨졌다.

오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제자리로 돌아가 손에 들린 통기타의 넥을 만지작거렸다.

시끄러운 주변의 소음 속에서 오직 소리 없는 연주에만 집중하는 척 무심한 옆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타오르는 장작불 넘어 오빠의 귓바퀴 역시 묘하게 붉어져 있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을 오가며 나눈 인사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하나 섞여 있었다. 불빛 저편에서 걸어 나온 것은 소주잔을 든 여자 선배였다.

통 넓은 힙합 바지에 크롭티를 입고, 목에 걸린 낡은 기타 피크 목걸이를 달랑거리며 걸어 나왔다. 찰랑이는 긴 생머리를 손끝으로 무심하게 쓸어 넘기는 동작 하나하나가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야, 지수 왔냐? 너 이번 곡 베이스라인 편곡 좀 다시 짜줘야겠다." 재민 선배가 손을 흔들며 반겼다.

"내가 왜? 재민 형은 드럼 박자나 좀 똑바로 잡아요." 그녀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맞받아치자, 옆에 있던 지훈 선배가 "역시 지수답다"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렇게 이미 재민 선배, 지훈 선배 무리와 스스럼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 밤의 공기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다. 나와는 달리, 이전부터 이 세계에 속해 있던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소주잔을 홀짝이다 내 쪽을 흘긋 보고는, 심드렁한 투로 짧게 말을 건넸다.

"네가 그 유명한 경영학과 새내기지? 나 지수야, 베이스 쳐."

대수롭지 않은 통성명이었다. 나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이름을 밝혔고, 그녀는 곧 다른 무리 쪽으로 흘러가듯 사라졌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나는 옆에 앉아 있던 동기에게 슬쩍 물었다.

"저 선배는... 원래 저렇게 다들 잘 알아?"

"어, 지수 선배? 97학번인데 실력으로는 이 동아리에서 거의 탑이래. 영문과인데 베이스만 4년째래. 선우 선배랑도 기타 라인이라 친하고." 동기가 별생각 없이 덧붙인 말에, 나는 이유 모를 위축감이 가슴 한쪽에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곰곰이 되짚어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교회 청년부에서도, 동아리 안에서도 선우 오빠 곁에 다가가고 싶어 하는 여자 선배며 동기는 늘 있었다.

하지만 오빠는 그때마다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로 정확히 한 걸음만큼의 거리를 유지했다. 다정하지만 결코 곁을 내주지 않는, 그 견고한 무심함을 나는 오래도록 지켜봐 왔다.

그런데 방금 지수 선배가 스스럼없이 다가가 농담을 던지고, 오빠 역시 아무런 방어 없이 그 거리를 순순히 허락하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오빠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쉽게 곁을 내어준 적이 있었던가.

심장 한구석이 서늘하게 조여드는 감각과 함께, 나는 그 놀라움의 정체를 아직 제대로

이름 붙이지 못한 채 모닥불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때만 해도 지수 선배를 어떻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짐을 꾸리는 손길들 사이로 간밤의 흥이 채 가시지 않은 하품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야, 네 침낭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누군가의 외침에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재민 선배가 인원을 세며 열차 시간을 재촉했다. 현아 선배는 마지막까지 남은 영수증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나는 개켜 든 겉옷을 가방 맨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아직 옷감 깊숙이 남아 있는 낯선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짐을 나르던 선우 오빠와 눈이 마주쳤다. 둘 다 먼저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엇갈림 속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청량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도 어깨 위에 남았던 그 감각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옆자리 동기들은 "다음 정기 공연 때는 우리도 뭐라도 하나 맡아야 하지 않냐"며 들뜬 목소리로 떠들었고, 차창 밖으로는 아직 채 물오르지 않은 연둣빛 산자락이 느리게 스쳐 지나갔다.

캠퍼스에 이른 봄기운이 내려앉을 무렵, 학생회관 지하 동방 안쪽에 자리한 노래패 '울림'의 연습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싸늘하게 깔려 있었다.

낡은 앰프와 뒤엉킨 케이블 더미, 벽에 기대선 악기 케이스들 사이로 퀴퀴한 지하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다가올 새내기 환영 공연을 위해 나는 묵묵히 케이블 선을 풀며 무대 세팅을 돕고 있었다. 엉킨 선을 하나씩 풀어낼 때마다 낡은 절연 테이프가 바스락거리며 뜯어졌다.

마이크 스탠드를 세우고 보면대의 나사를 조이는 사이, 지하 특유의 서늘함이 손끝을 타고 스며들었다.

선우 오빠는 저만치 앞쪽 의자에 걸터앉아 낡은 악보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 케이블, 파란 테이프 감긴 거로 써. 나머지는 접촉 불량이야."

짧은 실무적인 한마디였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지하의 서늘한 공기를 편안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다.

"이번 곡 브릿지 부분, 조금 늦춰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잠깐 악보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기울였다.

"그럴 수도. 한번 맞춰보고 정하자." 별거 아닌 말 같았지만, 내 의견을 흘려듣지 않고 곱

씹어주는 그 태도에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데워졌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얇은 악보 종이가 싸늘한 지하 공기를 가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공간의 공기를 함께 마시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편안해지던, 지극히 평화로운 찰나였다.

생각해보면 대성리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건 처음이었다.

오빠의 낡은 가방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반쯤 열린 채 세워져 있었다. 가방 안쪽에서 삐져나온 두꺼운 스프링 악보집 한 권이 중심을 잃고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굳이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았다. 언젠가 저 악보들이 이 연습실의 공기 위로 흩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 같은 것이 머릿속 끝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정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만큼, 완벽한 평화였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끼이익, 탁!

굳게 닫혀 있던 연습실의 무거운 철문이 거친 마찰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심장이 반사적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손끝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문가에 기대서듯 나타난 것은 지수 선배였다. 대성리에서와는 또 다른, 한층 더 화려하게 매만진 차림새였다.

어깨에 걸친 육중한 베이스 케이스가 문틀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워커 밑창이 시멘트 바닥을 무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연습실 안을 울렸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잠깐 스쳐 지나갔다. 위협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 철저한 무관심이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싸하게 명치를 찔렀다.

나는 두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다. 차갑고 묵직한 연습실 마이크의 쇠붙이 질감이 소름 끼치게 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다.

지수 선배는 선우 오빠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어깨동무하듯 팔을 올렸다. 매달리는 몸짓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만이 가질 수 있는 스스럼없는 밀착이었다.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선우형, 어제 박찬호 등판 봤어? 7이닝 3실점이면 이번 시즌 최고 아니야?" 그녀가 대뜸

야구 이야기를 꺼내며 특유의 나긋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봤지. 체인지업 각이 예술이더라." 오빠가 옅게 웃으며 짧게 대꾸했다. 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편안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야구 규칙조차 제대로 모르는데, 그녀는 선우 오빠와 통하는 언어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사람 같았다.

지수 선배의 시선이 문득 나를 향해 스쳤다. 아주 짧은, 별다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곁눈질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이 나와 오빠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듯 잠깐 머물다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밤공기 속에서 나에게 겉옷을 덮어주던 그 다정한 손길이 떠올랐다. 내 어깨를 스쳤던 오빠의 옷깃, 그 낯선 무게의 온기가 아직 피부 위에 남아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의 공기는 그것을 잔인하게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손바닥에 반달 모양의 손톱 자국이 깊게 파이도록 주먹을 말아 쥔 채, 나는 마이크 쇠붙이의 서늘한 냉기만을 온 신경으로 느꼈다.

겨우 며칠 전, 그 온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만의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 확신은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5화 끝]

6화 부풀어 오른 서류 가방과 가라앉은 거실

확신할 수 없는 다정함만큼 사람을 오래 붙잡아두는 것도 없다는 걸, 그 순간 알았다. 지수 선배의 팔은 여전히 선우 오빠의 어깨에 걸쳐진 채였다.

두 사람의 박찬호 이야기는 대여섯 마디를 넘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잦아들었다. 지수 선배가 무심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어깨에 걸쳤던 팔을 슬쩍 당기며 몸을 틀었다.

"선우형, 가자. 나 배고파 죽겠어." 지수 선배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며 무거운 베이스 케이스를 고쳐 멨다. 이미 반쯤 몸을 돌린 채였다.

그녀에게 이 연습실도, 나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라는 게 그 무심한 등짝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오빠는 대답 대신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짧은 순간이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서늘한 눈빛으로 내 창백해진 얼굴을 살피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짧게 마른기침을 내뱉으

며 몸을 슬쩍 틀어, 지수 선배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벌렸다.

지수 선배는 그런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심드렁한 얼굴로 문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래, 가자." 오빠가 짧게 대꾸하며 지수 선배를 따라 몸을 돌렸다. 나를 완전히 등지지는 않은, 아주 미세하게 비스듬한 각도였다.

그 각도 하나를 두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무의식적인 배려였을까, 아니면 그저 좁은 문틈을 지나기 위한 우연한 몸짓이었을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나를 괴롭혔다. 확신할 수 없는 다정함만큼 사람을 오래 붙잡아두는 것도 없었다.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연습실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혼자 남은 나는 손에 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반달 모양의 손톱 자국이 파여 있었다.

나는 그 자국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문지르며, 방금 전까지 지수 선배가 서 있던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대성리에서 오빠의 겉옷이 어깨를 덮어주던 그 온기가, 이 좁은 지하 연습실에서는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마이크를 원래 자리에 정리해 놓고 가방을 챙기는데, 코트 주머니 속에서 삐삐가 짧게 진동했다. 액정에 뜬 것은 가영의 번호였다. 뒤에 붙은 숫자는 익숙한 암호였다 — 8282.

학생회관을 나서자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캠퍼스는 이미 절반쯤 불이 켜져 있었다. 강의실 창문마다 하나둘 어둠이 내려앉고, 하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보도블록 위로 흩어졌다. 공중전화 부스 안, 싸늘한 유리벽에 등을 기댄 채 전화카드를 밀어 넣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기도 전에 가영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야, 정유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갑자기 왜."

"미라 학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다희랑 학원 근처에서 밥 먹기로 했거든. 걔 요새 완전 폐인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대."

수화기 너머로 가영 특유의 직선적인 어조가 쏟아졌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지금 이 얼굴로 누구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가영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캐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나는 서둘러 얼버무렸다. "갈게."

"오, 웬일로 순순히. 그럼 일곱 시까지 목동역 8번 출구로 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는 손바닥에 남은 차가운 수화기의 감각을 천천히 지워냈다

미라 재수학원 근처 진미떡볶이집은 저녁 시간대의 소란으로 가득했다. 문을 열자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와 고소한 튀김 냄새, 그리고 식당 안의 시끌벅적한 열기가 한데 섞여 밀려들었다.

창가 테이블에서 손을 흔드는 다희의 화려한 헤어스타일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정유진! 여기, 여기!"

다희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크로키 북을 옆으로 치워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가방 놓을 자리를 두고 다희와 가영이 잠깐 티격태격하는 통에 좁은 테이블이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다.

맞은편에 앉은 미라는 두꺼운 문제집을 가방에 밀어 넣으며 나를 향해 옅게 웃었다. 안 그래도 하얀 얼굴이 형광등 아래서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과, 젓가락을 쥔 손목이 눈에 띄게 가늘어진 것이 마음에 걸렸다.

"유진아, 오랜만이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나는 미라의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먹긴 먹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해." 미라가 힘없이 웃으며 젓가락으로 즉석떡볶이를 뒤적였다.

"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강제로 영양 보충시켜주려는 거잖아." 다희가 접시 위에 해물을 잔뜩 얹어 미라 쪽으로 밀어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수 1개월 차,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 반이래잖아."

가영이 콜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나를 흘긋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유난히 오래 머무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애써 젓가락을 놀리는 손에 집중했다.

"근데 유진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결국 가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다희와 미라의 시선도 동시에 나를 향했다. 나는 잠시 컵의 물기를 손가락으로 훑어내리다가, 짧게 입을 열었다.

"동방에 어떤 선배가 왔는데... 그냥, 좀 그랬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가영은 금세 눈치를 챈 얼굴이었다. "베이스 치는 그 선배지? 지수 언니."

"어떻게 알아?"

"오빠 동아리 얘기는 나도 들어. 걔 원래 그래. 누구한테도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게 더 무서운 스타일이잖아."

가영이 어깨를 으쓱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다가, 갑자기 젓가락으로 허공을 콕콕 찌르며 덧붙였다.

"근데 진짜, 우리 오빠는 여자 보는 눈이 없어. 유진이 너처럼 착한 애를 옆에 두고 대체 뭘 보는 건지."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픽 웃음이 새어 나왔다. 가영의 디스가 늘 오빠를 향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은근한 편들기가 느껴졌다.

"야, 그런 애 신경 쓰지 마." 다희가 김말이를 입에 넣으며 단호하게 잘랐다. "우리끼리 오늘 그냥 스트레스 풀자. 나 다음 주 크로키 대회 있는데 그거나 봐줘."

"나도." 미라가 낮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나는 매일이 그런 기분이야. 학원 가면 다들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어쩌겠어, 그냥 하는 거지."

미라의 담담한 말투에 오히려 내 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게 느껴졌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소란스러운 테이블 위에서만큼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편안했다.

"근데 유진아." 가영이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 요즘 동아리에서 신디 친다며?"

"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순간 멈칫하며 되물었다.

"오빠가 지나가듯 얘기하더라. 새내기 중에 건반 잘 치는 애 하나 들어왔다고." 가영이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였다. "근데 그게 너였을 줄이야."

다희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끼어들었다. "야, 선우 오빠가 인정하는 거며 너 완전 숨은 실력자였네?"

"그냥... 어릴 때 좀 쳤던 거야." 나는 단무지를 베어물며 말끝을 흐렸다. 오빠의 입에서 내 이름 대신 "새내기"라는 단어로만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이, 반가움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럼 우리 찬양팀에서도 나랑 같이 신디 치자. 신디는 두 대가 있으면 소리가 풍부해지거든. 나 혼자 하느라 힘들었는데 잘됐다. 너 중학교 때 교회에서 반주하던 실력 그대로면 충분하지."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동아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그 이름과 마주칠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 망설임의 정체를 굳이 들키고

싶지 않아, 나는 애써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 그래. 해볼게."

"진짜? 잘됐다!" 가영이 반색하며 야끼만두 하나를 내 접시에 얹어주었다. "그럼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하자."

"근데 미라야, 너 요새 CCM 못 부르지?" 가영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학원 다니느라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 미라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 이번 주에 합주실에서 한 번 맞춰볼까? 너 좋아하는 소리엘 곡으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미라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진짜? 나 그거 진짜 부르고 싶었어. 잔잔한 걸로. '축복의 통로'"

"에이, 잔잔한 건 무슨." 다희가 젓가락을 흔들며 반박했다. "신나는 걸로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요즘 뜨는 CCM 있잖아,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힘든데 왜 네 맘대로 정해." 미라가 처음으로 조금 날카롭게 되받아치자, 다희가 어깨를 으쓱이며 순순히 물러섰다. "알았어, 알았어. 미라 선곡으로."

"오빠한테 반주 좀 도와달라고 말해둘게." 가영이 냉큼 나서며 젓가락을 흔들었다. "어차피 걔 낮에 딱히 할 일도 없을거야."

나는 대답 대신 컵을 매만지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작은 계획이 오늘 오후 동방의 씁쓸함을 조금이나마 밀어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저녁 자리가 끝나고 우리는 목동역 앞에서 각자 흩어졌다. 다희는 크로키 북을 옆구리에 낀 채 지하철역 쪽으로, 미라는 학원 숙제를 마저 해야 한다며 독서실 방향으로, 가영은 나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혼자 단지 안길을 걸으며, 나는 오늘 하루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다.

4월 밤공기는 아직 서늘했지만, 어딘가 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동과 동 사이마다 노랗게 켜져 있었고, 그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짧아지기를 반복했다.

지수 선배의 그 무심한 눈빛도, 어깨에 걸쳐졌던 그 팔도, 지금은 손끝에 남은 떡볶이 양념 냄새와 미라의 옅은 웃음 뒤로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며칠만 지나면 교회 합주실에서 다시 오빠 옆에 앉을 수 있어.'

그 생각이 발걸음에 작은 리듬을 만들어주었다. 오늘 하루는, 나쁘지 않게 끝나는 듯했

다.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먼저 느껴졌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TV 소리가 없었다. 식탁 아래에는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 가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평소보다 눈에 띄게 부풀어 있었다. 서랍 속 서류와 책상 위 자잘한 물건들을 한꺼번에 쓸어 담은 듯, 가방 지퍼가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버지의 옆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평소라면 경제 신문을 펼치고 빨간 펜으로 무언가를 그어가며 앉아 계셨을 시간인데, 오늘은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넥타이도 아직 풀지 않은 채였다. 늘 곧게 펴져 있던 어깨가 오늘따라 조금 굽어 보였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짧고 낮은 대답뿐이었다. "그래, 왔니?"

부엌에서 조용히 나온 어머니가 내 팔을 슬쩍 끌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따라 부엌 식탁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물 한 컵을 따라 내 앞에 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빠, 여수 지사로 발령 나셨어."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여수요? 갑자기 왜요?"

"본사 조직이 줄면서... 관리직 몇 명이 지방으로 옮겨졌대. 아빠도 그중 한 명이고." 어머니가 옅게 한숨을 내쉬며 가방 쪽을 눈짓했다. "저건 본사 책상 정리해서 가져오신 거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여수에서 근무하셔야 한대."

"그럼... 자주 못 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 끼워서 올라오실 수 있을 거래." 어머니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갈라졌다가 다시 담담해졌다. "회사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정리될 줄은 몰랐지."

나는 가방을 다시 눈에 담았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 두툼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년을 쌓아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정리해 담아 온, 아버지의 지난 시간 전부였다.

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오늘 저녁 내내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이 아득히 먼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창밖에서는 단지 안길을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가 짧게 울리다 사라졌고,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가방에서 경영학원론 원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평소라면 곧바로 펼쳤을 텐데, 오늘은 표지 위에 손을 얹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멍한 기분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결국 책을 펼치지 못한 채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았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나아야 했다.

[6화 끝]

7화 장미향 향수와 수진의 첫 등장

목동 파리공원 앞, 아침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만개한 벚꽃이 가로수마다 흐드러진 사이로 봄볕이 옅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가영, 다희와 나란히 걸으며 교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미라는 학원 셔틀버스에서 내려 뒤늦게 우리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지? 신디 데뷔." 다희가 걸으며 짓궂게 웃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며칠 전 즉석떡볶이집에서 가영이 즉흥적으로 던졌던 그 제안이, 오늘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었다.

"얘가 어릴 때부터 나보다 잘 쳤는데, 고등학교 때 맨날 빠지니까 내가 늘 피아노 반주 했잖아. 이제 매주 나오니까 드디어 같이 하는 거지." 가영이 뿌듯한 얼굴로 다시 한번 짚어주었다.

"그냥 옆에서 코드만 거드는 거야." 나는 겸손하게 정정했지만, 오랜만에 정식으로 교회 건반 앞에 앉는다는 사실에 가슴부터 열기가 번지는 걸 느꼈다.

며칠 전 식탁 아래에서 마주쳤던 아버지의 두툼한 서류 가방이 문득 눈앞을 스쳤다. 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그 잔상을 애써 밀어냈다. 오늘만큼은, 감정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선우 오빠도 오늘 온대?" 다희가 짓궂은 눈빛으로 나를 흘긋 쳐다보며 물었다.

"몰라, 나한테 왜 물어봐." 나는 애써 무심한 척 대꾸했지만, 이스트팩 끈을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평안교회 3층 합주실은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과 낡은 카펫 냄새로 가득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자리한 드럼 세트였다. 강요한 전도사가 스틱을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으며 씩 웃었다.

"어, 우리 유진 자매 왔구나." 그가 스틱으로 하이햇을 가볍게 두드리며 반겼다. "드디어 정식으로 합류하는 거야? 가영 자매에게 이야기 들었어. 오늘은 내가 리듬 담당이니까 다들 나만 믿고 따라와."

구석 자리에는 소연 언니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기 몸집만 한 베이스를 무릎에 세워 안은 채, 조곤조곤한 손길로 줄을 하나씩 튕기며 음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신디사이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이미 익숙하게 놓여 있는 가영의 건반 옆으로, 새로 세팅된 두 번째 건반이 나란히 자리했다. 전원을 켜자 익숙한 기계음이 짧게 울리며 건반 위로 붉은 불빛이 들어왔다.

지금껏 내가 아는 반주란, 혼자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아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흘려보내는 일이었다.

내가 치면 사람들이 그 위에 목소리를 얹었을 뿐, 누군가의 박자를 기다리거나 다른 소리에 내 건반을 맞출 일은 없이 리드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드럼과 베이스, 기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이끄는 대신 그들과 나란히 서야 하는 자리였다

"자, 오늘 곡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로 하자." 강요한 전도사가 낡은 악보 뭉치를 나눠주며 말했다. "미라 자매가 아무래도 요새 힘든 시기니까, 위로가 되는 곡으로 골라봤어."

"저는 신나는 것도 괜찮은데." 다희가 옆에서 슬쩍 끼어들었다.

"안 돼, 오늘은 미라 위주야." 가영이 단호하게 자르며 다희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미라가 낮게 웃으며 악보를 넘겼다. 다들 웃음을 터뜨리는 사이, 나는 건반 위에 손을 살짝 얹으며 코드를 짚어보았다. 낯설지 않은 곡이었다. 고등부 시절 가끔 교회에 왔을 때 몇 번 들어본 멜로디가 몸에 익은 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음 하나하나는 손끝에 이미 익숙했다. 문제는 그 음을 누구의 박자에 맞춰 내보내야 하는지, 나는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문이 다시 열린 것은 그로부터 십여 분 뒤였다. 낡은 통기타 케이스를 어깨에 멘 선우 오빠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와 함께 나타났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가 짧게 목례하며 들어섰다.

"야, 최선우. 오늘 유진이 데뷔 날인 거 알지? 너 잘 좀 맞춰줘라." 가영이 장난스레 눈치를 주며 소리쳤다.

오빠가 짧게 웃으며 내 옆의 빈 의자에 앉았다. 가까운 거리에서 낡은 기타 줄의 쇠 냄새와 은은한 비누 향이 함께 밀려왔다.

"우리 유진이 왔네. 어디부터 맞춰볼까?" 오빠가 낮게 물으며 악보를 펼쳤다.

"전주부터요."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하며 건반에 손을 올렸다.

첫 시도는 엉망이었다. 음은 정확했다. 코드도, 멜로디도 손끝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강요한 전도사의 드럼 카운트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어긋났다.

나는 그 카운트를 신호로 받아들이는 대신, 몸에 밴 습관대로 내 박자에 맞춰 먼저 건반을 눌러버렸다. 오빠의 기타가 그런 나를 황급히 따라잡으려다 코드를 놓쳤다.

옆에서 가영이 익숙하게 박자를 다시 잡아주며 나를 이끌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 둘 셋."

혼자 칠 때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긴장이었다. 내 손끝이 아니라, 다섯 사람의 악기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미세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감각.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맞춰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 났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한결 나아졌다. 드럼 비트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위에 내 손을 얹는 순서를 의식적으로 바꾸자 어긋남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두 대의 신디사이저와 기타, 베이스의 화음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왔다. 짧은 정적 후 다들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짧은 환호 속에서, 나는 문득 낯선 사실을 깨달았다. 동아리 연습실에서는 아직 이 순간이 오지 않았다.

그를 흔들어보겠다는 오기로 그 세계에 틈입했지만, 정작 그 공간에서는 아직 오빠의 기타와 내 건반이 한 번도 같은 박자 안에서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원래부터 내가 있던 자리, 굳이 애써 파고들 필요조차 없었던 이곳에서 먼저 그 순간이 찾아왔다. 모닥불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그 성냥불처럼, 엉뚱한 곳에서 먼저 타오른 셈이었다.

나는 웃으면서도, 오빠와 눈이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옅게 웃으

며 다시 악보로 시선을 돌렸다.

계단을 오르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온 것은 두 번째 곡을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문이 열리며 화려한 실루엣이 좁은 합주실 문틈으로 먼저 번졌다.

"어머, 다들 벌써 시작했네?" 수진 언니가 콧소리 섞인 하이톤으로 인사를 건네며 들어섰다. 완벽하게 세팅된 웨이브 머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찰랑거렸다.

"수진 언니, 오늘 좀 늦었네요." 가영이 무심하게 대꾸했다.

"미용실 들렀다 오느라." 수진 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마이크 스탠드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빠 쪽을 향했다. "선우 오빠아, 오늘도 나보다 일찍 왔네. 역시 부지런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인사 한 번 스치듯 건네고는, 수진 언니는 곧장 선우 오빠 옆 빈자리로 직행했다. 마치 원래 정해진 자기 자리인 것처럼 망설임 하나 없는 걸음이었다.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겐 낯설고 당혹스럽게 느껴졌다.

끝음절을 길게 늘이는 특유의 말투에, 오빠는 그저 짧게 목례하며 별다른 대꾸 없이 기타 줄을 매만졌다.

연습은 다시 시작되었다. 강요한 전도사의 드럼 비트가 안정적으로 곡을 이끌었고, 수진 언니는 그 리듬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다. 확실히 화려한 목소리였다. R&B 특유의 기교가 섞인 발성과 몸에 익은 박자감이 좁은 합주실을 가득 채웠다.

가영은 익숙하게 자기 파트를 이어가며 여유롭게 건반을 눌렀지만, 나는 아직 낯선 합주의 흐름을 따라가려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노래를 부르는 사이사이, 수진 언니의 시선은 자꾸만 오빠 쪽으로 흘러갔다.

"오빠, 여기 코드 좀 다시 짚어줄래요? 저번에 우리 둘이 맞췄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수진 언니가 마이크를 살짝 내리며 오빠 옆으로 다가왔다.

"어디가?" 오빠가 물으며 악보를 짚었다.

"여기, 후렴 들어가기 전 변조 부분이요." 그녀가 몸을 기울이며 오빠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코드를 짚어주는 척, 손가락 끝으로 오빠의 손을 부드럽게 눌렀다.

나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흘긋 살폈다. 강요한 전도사는 스틱을 매만지느라 여념이 없었고, 소연 언니도 베이스 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들 이 상황이 별다를 것 없다는 듯 무심했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닌 건가. 나만 유별나게 굴고 있는 건가 싶어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나는 건반을 짚던 손끝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애써 시선을 악보에 고정했지만, 옆에서 나누는 나긋한 대화가 귓가에 계속 걸렸다.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볼까!" 강요한 전도사가 스틱으로 카운트를 세며 신호를 보냈다.

전주가 다시 시작되었다. 드럼 비트가 일정하게 합주실을 채우는 가운데, 나는 건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옆에서 계속되는 수진 언니의 웃음소리와 은근한 스킨십이 신경을 자꾸만 흐트러뜨렸다. 장미향이 짙게 코끝을 맴돌았다.

가영이 문득 옆에서 내 표정을 살피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며 건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선우 오빠, 여기 브릿지 부분 진짜 좋다. 오빠가 편곡한 거예요?" 수진 언니가 마이크를 내리고 다시 오빠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전도사님이 편곡하신 거야." 오빠가 짧게 정정했다.

"에이, 그래도 오빠 손 거치면 다 달라지잖아." 그녀가 눈웃음을 치며 오빠의 어깨를 가볍게 톡 쳤다.

바로 그 순간, 변조 부분에서 마이너 코드를 눌러야 할 자리에서 세븐 코드 건반을 짚었고, 가영의 건반과 선우 오빠의 기타는 악보에 맞게 정확히 이어지는 사이 순간 날카로운 불협화음이 짧게 울려 퍼졌다.

"어어." 다희가 웃음을 터뜨렸다. "유진이 오늘 긴장했어?"

"죄송해요." 나는 얼른 손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맨날 틀렸어. 근데 너 아까 세 번째 시도에서는 완전 딱 맞았잖아. 그거면 충분해." 가영이 옆에서 다독이듯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 다정한 무심함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조금 덜어주었다.

"잠깐, 다들 5분만 쉬자." 강요한 전도사가 스틱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연 자매, 나 좀 도와줄래? 아래층에서 앰프 좀 가져와야 해서."

소연 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나섰다. 가영과 다희, 미라도 목이 마르다며 정수기로 향했다. 수진 언니는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며 여전히 오빠 쪽에서 무언가 조잘거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악보의 코드 진행을 다시 짚어보았다. 숨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그림자가 내 앞으로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오빠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내가 놓쳤던 전조 부분의 악보를 짚어주었다.

"여기, 이 부분." 그가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브릿지에서 세븐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이너를 한 번 넣어서 분위기를 바꾸는 구간이거든. 그거 건너뛰고 바로 세븐으로 가면 전환이 너무 뚝 끊겨."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를 냈다간 떨림이 새어 나갈 것 같았다. 오빠의 손가락이 건반 위 코드 진행을 보여주고 다시 거두어졌다. 그 짧은 접촉이 스치고 간 자리에만, 낯설게 데워진 온기가 남아 좀처럼 식지 않았다.

멀리서 수진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뭐 해?" 그녀가 다시 이쪽으로 다가오려는 기척이 느껴졌다.

방금 전 은근한 스킨십이 무안하게 무산됐는데도, 수진 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 한 톨 묻어나지 않았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놀라웠다. 저 정도의 거절쯤은 상처도 되지 않는다는 듯한 여유가, 나로서는 도무지 흉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오빠는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 담긴 무언가를 분명히 느꼈다.

문가에서 종이컵을 들고 돌아오던 가영이 그 장면을 곁눈질로 포착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으며, 나를 향해 짧게 한쪽 눈썹을 슬쩍 들어 올렸다. 마치 '역시 내 짐작이 맞았네'라고 말하는 듯한, 옅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손끝에 남은 그 온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나는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7화 끝]

8화 금요기도회와 흔들리지 않던 손

본당의 육중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평소 청년부 예배를 드리던 교육관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 아래로 스테인드글라스가 늦은 오후의 햇살을 붉고 푸르게 쪼개고 있었고, 족히 오백 석은

넘어 보이는 장년층용 좌석이 열을 맞춰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강단 뒤로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무겁게 걸려 있었다.

"본당은 오늘 처음이지? 너무 긴장하지 마." 소연 언니가 무대 위 스피커 선을 정리하며 나를 향해 짧게 웃어 보였다. "확실히 울림이 다르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디사이저를 받침대 위로 올렸다. 평소 합주실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스탠드형이었다. 다리 나사를 채우려 애쓰다 손끝이 살짝 미끄러져 스탠드 모서리에 손등을 긁혔다. 짧게 인상을 찌푸리며 손등을 문질렀다.

"괜찮아?" 가영이 마이크 케이블을 둘둘 감다 말고 다가와 살폈다.

"어, 별거 아니야." 나는 손을 툭툭 털며 다시 스탠드를 붙잡았다.

강요한 전도사가 강단 한쪽의 드럼 세트 앞에 앉아 페달과 스틱을 손에 맞게 조정하며 말했다.

"오늘은 청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오실 거야. IMF로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들 마음이 무거운 한 주를 보내셨을 테니,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해."

그 말에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텅 빈 좌석들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뒤면 저 자리 하나하나에 지친 영혼들로 채워질 것이었다.

세팅을 마무리하던 중, 강요한 전도사가 강단 옆에 놓아둔 낡은 성경책을 잠깐 펼쳐 드는 게 눈에 들어왔다. 갈피마다 손바닥만 한 기도제목카드가 빼곡히 끼워져 있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며 본 카드 하나에는 낯익은 이름 몇 개와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님 건강 위해", "취업 걱정 덜기를". 그가카드 하나를 다시 갈피 사이로 밀어 넣으며 성경책을 덮었다.

문득 저 안에 내 이름도 적혀 있을지 궁금해졌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다.

케이블을 다 정리하고 신디사이저 두 대를 나란히 세팅했을 즈음, 계단을 오르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선우 오빠가 통기타 케이스를 메고 들어서며 짧게 목례했다.

"자, 다들 왔으니까 리허설부터 하자." 강요한 전도사가 손뼉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부를 곡은 총 다섯 곡이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시작으로, 지난번 연습했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네', 마지막으로 '살아 계신 주'까지 이어지는 순서였다.

강요한 전도사가 낮게 카운트를 세자, 선우 오빠의 기타 전주가 먼저 시작됐다. 나는 그

소절 위로 조심스럽게 코드를 얹었다.

신기하게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몇 주 전만 해도 드럼 카운트를 놓치고, 박자를 앞질러 치던 그 서투름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었다.

후렴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도, 브릿지의 박자 변화에서도 나는 이제 어디로 힘을 얼마나 실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오, 오늘 완전 매끄러운데?" 가영이 건반에서 손을 떼며 씩 웃었다.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나는 소연 언니 옆에 앉아 함께 악보를 정리했다. 언니는 여러 장의 악보 모서리를 하나하나 손끝으로 맞춰가며 각을 잡았다.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다시 빼서 고쳐 넣는 손길이 거의 결벽에 가까웠다.

"언니는 늘 이렇게 꼼꼼해요?" 나는 슬쩍 물었다.

"틀리면 티가 나니까." 언니가 악보 뭉치를 가지런히 톡톡 두드려 정리하며 담담하게 웃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뭔가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이상 캐묻지 않았다.

"이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강요한 전도사가 스틱을 내려놓으며 흡족한 얼굴을 했다. "자, 리허설은 여기까지. 조금 있다가 예배 시작하니까 다들 준비하고 있어."

다들 흩어져 물을 마시거나 악보를 다시 훑어보는 사이, 강요한 전도사가 나를 향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유진 자매, 오늘 처음이라 긴장되지?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다른 악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호흡만 잘 맞추면 그걸로 충분해."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잘 치는 것보다, 진심으로 치는 게 더 은혜로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풀어주었다. 진심으로 치라는 말은, 오늘 내 안에 담긴 것들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다.

며칠 전 식탁 아래 놓여 있던 아버지의 서류 가방이 문득 떠올랐다. 그 무게를 애써 밀어내는 대신, 오늘은 그냥 이 손끝에 함께 실어보기로 했다.

금요기도회 시간이 되고, 강단 위의 조명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로 좁게 켜졌다. 그 조명 아래로 회중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혼자 온 중년 남성들, 백발이 성성한 권사님들.

나는 신디사이저 앞에 앉아 전주를 준비하며 무심코 회중석을 훑어보았다. 그런데 셋째 줄쯤, 낯익은 얼굴 두 명이 눈에 들어왔다. 다희와 미라였다. 평소 청년부 예배에는 잘

나오지 않던 미라가, 오늘은 유독 진지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다희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재수 생활에 지친 미라가 오늘만큼은 위로받고 싶어 이 자리를 찾았다는 걸,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강요한 전도사의 스틱이 카운트를 세는 순간, 나는 문득 그 옆 구석 자리에 앉은 또 다른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평소 교회에서 마주치면 인자하게 웃어주시던 최 집사님이었다.

늘 단정한 양복 차림이던 분이 오늘은 유난히 헐렁한 셔츠 차림으로, 등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저분도 각자의 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 생각이 스치자 건반을 짚는 손끝에 이상한 무게가 실렸다.

전주가 시작되고, 선우 오빠의 기타 소리가 넓은 본당을 부드럽게 채웠다. 내 건반이 그 위에 얹히자, 회중 속에서 낮게 따라 부르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섞여 들었다. 다희와 미라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잠깐 눈이 마주쳤고, 미라가 옅게 웃어 보였다. 몇 소절은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나는 조심스레 숨을 고르며 다음 소절을 준비했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수진 언니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화려한 애드리브로 후렴구를 한 옥타브 끌어올리자, 회중 사이에서 몇몇이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 몸짓을 따라 여기저기서 조용히 손을 드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도 하나둘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넓은 본당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퍼져나갔다.

무대 위에서 저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나로서는 도무지 흉내 낼 수 없는 재능이었다.

그런데 고음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 나는 우연히 마이크를 쥔 수진 언니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뒤에 숨겨진, 아주 짧은 순간의 긴장이었다.

늘 계산된 여유처럼 보였던 그 화려함 뒤에도 진짜 떨림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게 다가왔다. 저 사람도 나처럼 이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자, 단순했던 나의 적대감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건반을 짚으면서도 자꾸만 그녀 쪽으로 시선이 갔다. 나도 코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자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는 저렇게 빛나지 못할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

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다가왔다.

수진 언니가 다시 한번 화려한 바이브레이션으로 고음을 길게 끌자, 회중의 찬양 소리가 한층 더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 압도적인 무게감에 짓눌리듯, 나는 다음 소절의 코드를 놓칠 뻔했다. 손끝이 허공에서 잠깐 방향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 선우 오빠의 기타가 짧게 신호처럼 프레이즈 하나를 먼저 쳤다. 다음에 와야 할 코드의 뿌리음을, 넌지시 먼저 짚어 보이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 손끝이 다시 정확한 자리를 찾아 내려앉았다. 오빠는 다가오지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짧은 신호 하나만을 남긴 채 다시 자신의 파트로 돌아갔다.

나는 그 신호만으로 다시 박자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함께 연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뒤늦게 스쳤다.

찬양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갑작스레 회사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지금 이 시대를 건너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설교를 이어가던 중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유쾌하고 여유로운 톤 대신, 하루아침에 실직하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어느 가장의 이야기를 전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문득 강단 위의 그가 단순히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아픔을 진심으로 껴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소연 언니의 옆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언니는 강단 위의 담임 목사님을 오래도록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애틋하고 처연한 무언가가 스치는 것 같았다.

본당 여기저기서 낮은 흐느낌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신디사이저 앞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려 회중을 바라보았다. 최 집사님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러 닦고 있었다.

그 모습 뒤로, 나는 문득 여수로 내려가신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겹쳐 보았다.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허공만 응시하던 그날 저녁이 떠올랐다.

이 찬양이, 이 연주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목이 메어오는 걸 애써 삼키며, 나는 다음 곡의 전주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집회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본당을 빠져나갔다. 나는 신디사이저의 전원을 끄고 건반 커버를 씌우며 케이블을 하나씩 정리했다. 손끝에 아직 긴장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오늘 완전 잘했어." 가영이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치며 씩 웃었다.

"오늘 수고했어." 소연 언니도 베이스를 케이스에 넣다 말고 지나가듯 옅게 웃어 보였다. "다음에도 같이 해."

그 담담한 한마디가, 어쩐지 이 공간이 나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선우 오빠는 기타를 케이스에 넣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짧게 시선을 던졌다.

"우리 유진이, 어땠어! 같이 연주한다는 거, 새로운 세상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케이블을 감던 손이 저절로 멈췄다. 손으로 짚어주지도,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은 채, 그저 눈을 맞추고 건넨 한마디였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나를 챙기려고 건넨 말이라기보다, 오늘 같은 무대에 서서 같은 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처음 발 디딘 세계를 함께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물음이었다.

"네, 진짜 신기했어요."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꾸했지만,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감출 수 없었다. "저 혼자였으면 절대 몰랐을 감각이에요."

"그치. 그게 합주야." 오빠는 짧게 웃으며 기타 케이스의 지퍼를 마저 잠갔다.

그 짧은 대화가, 며칠 전 합주실에서 손끝으로 건네받았던 온기보다 훨씬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았다.

본당을 나서자, 서늘한 봄 밤공기가 상쾌하게 폐부로 밀려들었다. 나는 가방끈을 고쳐 매며 걸음을 옮겼다. 오늘 하루의 무게가,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다.

[8화 끝]

9화 소설 『모순』과 붉은 펜 자국

중앙도서관 토요일 열람실의 공기는 바깥의 초여름 열기와 무관하게 서늘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어느새 반팔 차림의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고, 창밖 플라타너스 잎도 짙은 녹음을 드리우고 있었다.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맞는 기말고사를 코앞에 둔 열람실은 평소보다 두 배는 빽빽하게 자리가 찼다.

핏발 선 눈으로 TOEFL을 파고드는 선배들의 굽은 등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취업 시즌을 앞둔 이들 특유의 조급함이 공간 전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선풍기가 무기력하게 돌며 퀴퀴한 먼지 냄새만 실어 날랐다.

나는 경영학원론 원서 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숨을 골랐다. 어젯밤 오빠에게 처음 들었던 그 한마디를 속으로 다시 곱씹었다. " 그치. 그게 합주야." 담백했던 그 말이, 하루가 지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옅은 온기로 남아 있었다.

책상 표면의 싸늘한 냉기가 팔을 타고 올라왔다. 그 냉기 하나에 의지해, 나는 화려한 애드리브로 회중을 압도하던 수진 언니의 무대와, 그 고음 속에서 살짝 떨리던 손끝을 애써 밀어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다잡아준 오빠의 짧은 신호까지도.

옆자리에서는 4학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취업 정보지를 몇 번이고 접었다 펴며 한숨을 눌러 삼키고 있었다. 신문에서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고용 한파'라는 단어가 이 좁은 열람실 안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학년으로는 그 절벽 앞에 서 있지 않았지만,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는 예감이 목덜미를 서늘하게 스쳤다. 지금 쌓아두는 학점과 프로필 한 줄 한 줄이, 훗날 저 절벽 끝에서 나를 붙잡아줄 유일한 밧줄일지도 몰랐다.

책상 위에는 전공서와 나란히, 가방에서 꺼내둔 양귀자 작가의 소설『모순』이 놓여 있었다. 잠깐의 휴식마다 몇 장씩 넘겨보는 것이 요즘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스물다섯 살 안진진이 지루할 만큼 안정적인 김장우와, 위태롭지만 뜨거운 나영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야기였다.

처음 이 책을 펼쳤을 땐 그저 흥미로운 연애 소설인 줄로만 알았는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갈등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다. 안정과 열병 사이에서 매번 후자를 택하고 마는 주인공을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책장 모서리를 꾹 눌러가며 읽고 있었다.

"야, 정유진."

전공서 사이로 낯익은 야구점퍼 자락이 불쑥 끼어들었다. 재민 선배였다. 옆구리에 행정학 원서를 잔뜩 낀 채, 익숙하게 옆자리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안녕하세요!" 나는 작게 속삭이듯 인사했다.

"내가 말이야, 요새 도서관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시험이 웬수지." 그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능청스럽게 웃었다. 그러다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근데 너 이거 알아? 다음 주 멕시코전, 우리 동아리에서 다 같이 신촌 호프집 잡았다."

"아, 그래요? 기말고사 시험 기간인데" 나는 볼펜 끝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기장 명령이니까 다들 와야 돼. 특히 너." 재민 선배가 씩 웃으며 검지로 나를 가리켰다. "6월 14일 밤이야. 다들 밤새 텔레비전 앞에 진 치고 있을 텐데, 이왕이면 다 같이 모여 응원하며 보는 게 재밌잖아."

"선우 형도 온대. 형이 원래 이런 자리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엔 순순히 온다고 하더라. 신기하지." 그가 턱을 괴며 짐짓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너 오면 형도 좋아할 것 같은데."

선우 오빠의 이름이 나오자 볼펜을 쥔 손끝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책장을 넘겼다.

"선배는 별걸 다 갖다 붙이네요." 나는 짐짓 심드렁하게 받아쳤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저 시험공부 해야 돼서요." 내가 짧게 대꾸하자, 재민 선배는 "그래, 열심히 해. 근데 다음 주는 예외야. 알지?"라는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원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사하러 가야겠다. 이따 또 보자."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수선한 여운만 남았다. 나는 다시 형광펜을 쥐고 애써 시선을 원서로 돌렸지만, 활자는 자꾸만 흐릿하게 흩어졌다.

잠시 후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스쳤다.

"유진이, 오랜만이네."

지수 선배였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원서를 옆구리에 낀 채, 여느 때처럼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언제 봐도 도서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걸음걸이였다.

"선배도 도서관이세요?" 나는 짧게 목례하며 물었다.

"선배는 무슨, 이젠 언니라고 불러."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손사래를 쳤다.

"네, 언니." 나는 얼떨결에 호칭을 고쳐 불렀다.

"과제 때문에 잠깐. 근데 너, 다음 주 멕시코전 얘기 들었어?" 지수 언니가 물었다. "재민 선배가 하도 떠들고 다녀서 모를 리가 없지."

"네, 들었어요."

"이왕 응원 나올 거면 대충 하지 말고, 센스 있게 하나 챙겨." 그녀가 자판기 커피를 뽑으며 나를 슬쩍 내려다보았다. "너도 알잖아, 응원도 응원인데 예뻐야지."

나는 무슨 뜻인지 잠깐 헤아리다 뒤늦게 물었다. "뭘요?"

"붉은 악마 머리띠 말이야. 어차피 다들 하나씩 쓰고 나올 텐데, 아무거나 쓰면 그냥 시장통 꼬맹이밖에 안 보이잖아." 지수 언니가 커피 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며 웃었다. "나는 E대 앞에서 봐둔 거 있어. 색깔부터 다르더라."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손에 쥔 동전만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다.

붉은 악마 머리띠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었다. 나에게는 없는 저 여유로운 감각을 지수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갖고 있었다. 나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내며 열람실로 돌아왔다.

다시 자리에 앉아 원서를 펼쳤지만, 집중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원서를 덮고 『모순』을 꺼내 들었다.

소설 속 문장들은 비루한 현실과 맹목적인 열병 사이에서 길을 잃은 내 처지를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주인공은 결국 안정 대신 위태로움을 택했고, 그 선택이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파국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그녀를 데려다 놓았다.

그 모호한 결말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나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페이지를 넘겼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나를 방치할 수는 없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책상 위로 낯익은 그림자가 잠깐 드리워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그 그림자가 물러나는 뒤였다.

소설책 옆으로 물방울이 맺힌 포카리스웨트 한 캔이 소리 없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우 오빠의 뒷모습이 열람실 문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아무 말도, 눈짓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무심히 놓고 간 것뿐이라는 듯한 걸음이었다.

나는 포카리스웨트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차가운 표면의 물기가 손바닥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별것 아닌 몸짓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데워지는 것 같았다.

'저건 나를 향한 다정함이 아니야.'

몇 번이고 되뇌었던 말을 다시 삼키며, 나는 포카리스웨트를 책상 한쪽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모순』의 펼쳐진 페이지로 시선을 돌렸다.

결국 도서관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초여름 밤의 눅눅한 공기가 뺨에 닿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지수 언니의 마지막 한마디만 맴돌았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접어들 무렵에는 이미 사방이 어두웠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낮은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 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만 내밀며 짧게 대꾸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밥은 먹었어?"

"학교에서 대충 먹었어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안방 문은 활짝 열린 채였고, 그 안은 캄캄하게 비어 있었다. 여수로 내려가신 뒤로, 이 시간이면 늘 그랬듯 아버지의 자리는 조용히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 말없는 빈자리에 대해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다시 개수대로 몸을 돌렸다. 물소리만이 낮게 이어졌다. 그 익숙해진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다.

신발을 마저 벗다 말고 거실 테이블 위에 시선이 멈췄다. 아버지가 즐겨 보시던 경제신문이 며칠 치 그대로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다. 나는 홀린 듯 다가가 맨 위의 신문을 집어 들었다.

지면 한쪽에 아버지가 눌러 그은 것으로 보이는 붉은 펜 자국이 선명했다.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협력업체 하나가 부도 처리되었다는 짤막한 기사였다. 여수로 내려가시기 전,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보시고 표시해둔 흔적인 듯했다.

'거래 대금 회수 불투명', '연쇄 부도 우려.' 메마른 활자들이 지면 위에서 날을 세우고 있었다.

붉은 잉크는 마치 찢어진 상처에서 배어 나온 핏자국처럼 종이를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 선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덧그려보았다.

이 도산 소식이 아버지의 자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나로서는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이 짧은 기사를 몇 번이고 눌러 읽었을 그 밤이, 고스란히 붉은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아버지는 이 거실에 계시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리해둔 보험 고객 명단이 반듯하게 쌓여 있었다. 이 집을 지탱하는 무게가, 이제는 두 분이 각자 다른 도시에서 나눠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고 방으로 들어왔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오늘 하루 스쳐 간 것들이 순서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민 선배의 능청스러운 공지, 지수 언니의 스치듯 던진 한마디, 그리고 말없이 놓고 간 포카리스웨트 하나.

'센스 있게 하나 챙겨. 예뻐야지.'

지수 언니의 말이 유독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서랍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망설이다, 결국 가장 깊숙한 칸을 열었다.

며칠 전 유나와 목동 로데오에 갔다가, 유나가 조르는 바람에 얼결에 하나씩 사 든 붉은 악마 머리띠가 서랍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때는 그냥 동생 성화에 못 이겨 산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 보니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 같기도 했다.

거칠게 마감된 합성섬유의 뻣뻣한 질감이 손끝에 낯설게 닿았다. 붉은 뿔 모양의 장식을 손가락으로 느릿하게 쓸어내렸다.

지수 언니처럼 세련되게 꾸밀 자신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저 지켜보는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동아리 선배들이 잡아둔 그 신촌 호프집 자리에, 나도 당당히 끼어 앉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비겁하게 물러서 있지만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머리띠를 서랍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나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 다시 필기한 대학 노트를 펼쳤다. 이번 주말까지는 시험에만 매달리고, 그 다음은 온전히 그 경기 안에서 부딪혀 보기로 했다.

붉은 펜 자국도, 지수 언니의 여유로운 웃음도, 오빠의 무심한 다정함도 — 지금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걸어 볼지는, 오직 내 몫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이 조용한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몫도 하나 늘어난 셈이었다.

[9화 끝]

10화 멕시코전 중계와 나를 감싼 어깨

머리에 두른 뻣뻣한 합성섬유가 이마를 짓눌러도, 나는 신촌역을 향해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기필코 선우 오빠가 쳐둔 견고한 성벽을 내 발로 직접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던 서늘한 결의는 온데간데없었다.

도서관의 차가운 백색등 아래서 다졌던 마음은 지금 내 머리에 씌워진 조악한 붉은 악마 머리띠처럼 어색하고도 선명하게 이마에 들러붙어 땀방울을 만들어냈다.

지하철 2호선의 무너질 듯한 소음과 신촌역 출구를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집에서 독기를 품고 머리띠를 쥐던 그 각오는 이미 조금씩 해체되고 있었다.

전략이나 심리전 같은 것들은 이미 흘러간 지하철 소음과 함께 증발했고, 남은 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단순하고 지독한 열망뿐이었다.

1998년 6월 13일 밤, 눅눅한 초여름 밤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신촌의 대형 호프집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브라운관 세 대가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빛이 상기된 얼굴들 위로 어지럽게 일렁였고, 담배 연기와 홉 냄새가 뒤엉킨 공기가 숨을 쉴 때마다 밀려들었다.

나와 동아리 선배들은 구석진 나무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생맥주잔을 기울이며 자정을 넘겨 시작될 경기를 기다렸다.

좁아진 취업 문턱 탓에 도서관에 틀어박혀 지내던 선배들의 얼굴에도 오늘만큼은 기묘한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나 역시 아버지의 무거운 한숨을 잠시 덮어두기로 했다.

자리가 얼추 채워질 무렵,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 언니였다. 머리에는 유난히 반짝이는 붉은 악마 머리띠가 얹혀 있었다.

"오빠, 나 이거 얼마 주고 산 줄 알아?" 지수 언니가 재민 선배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머리띠를 톡톡 두드렸다. "이대 앞 단골 악세사리집에서 삼천 원에 건진 거야. 원래 오천 원짜리인데, 마감 시간이라고 반값에 넘기더라고."

"오, 흥정 좀 하는데?" 재민 선배가 감탄하듯 눈썹을 치켜올렸다.

"당연하지. 이대 앞 쇼핑은 마감 직전에 가야 제맛이야." 지수 언니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맥주잔을 받아 들었다.

나는 슬그머니 내 머리 위에 얹힌 밋밋한 붉은 뿔을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목동 로데오 노점에서 산, 아무 특징 없는 합성섬유였다. 지수 언니의 반짝이는 것과 나란히 놓고 보니,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다.

"야, 아무거나 쓰면 어때. 응원만 열심히 하면 되지." 재민 선배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치며 뻥튀기를 한 움큼 집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그나저나 이번 학기 끝나면 진짜 현실이다. 오늘만큼은 그냥 다 잊자."

그 말에 옆에 앉은 선배 몇이 낮게 동조하며 잔을 부딪쳤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호프집 안은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며 바닥부터 진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괴성을 질렀다. 나는 어깨를 퍽퍽 치며 환호하는 무리 속에 휩쓸려, 어느새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쳐대고 있었다.

전반 28분, 하석주 선수의 발끝에서 기적 같은 선제골이 터졌다.

"와아아아!" 고막을 찢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모르는 사람들과도 얼싸안는 광란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우 오빠는 미쳐 날뛰는 무리에서 반보 물러선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지수 언니가 그 옆에서 함께 펄쩍 뛰며 환호하다, 흥분한 몸짓 그대로 어깨를 툭 부딪쳤다. 오빠는 별다른 동요 없이 몸을 살짝 비켜주며 다시 브라운관으로 시선을 돌렸다.

"쟤넨 같은 기타 라인이라 호흡이 잘 맞아. 합주할 때도 죽이 척척 맞더라고." 재민 선배가 그 모습을 보며 무심코 흘리듯 말했다.

사람들의 격렬한 몸짓 사이로 보이는 오빠의 입가에는 특유의 나른한 미소가 옅게 걸려 있었다. 그 소란한 열기 한가운데서도, 오직 그만이 고요하고 선명하게 내 시야에 박혀 들어왔다.

귓가를 때리는 함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박동이 흉곽 안쪽을 두드리고 있었다.

"야, 선우 쟤 오늘 좀 이상하다." 재민 선배가 불쑥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골 들어가도 텔레비전은 안 보고."

별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였지만, 나만 그 말을 붙잡고 있었다. 두 번째 골이 아쉽게 무산되는 순간에도, 세 번째 확인했을 때도, 오빠와 눈이 마주쳤다 아무렇지 않게 다시 브라운관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됐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잦았고, 확신이라기엔 너무 짧았다.

"야! 오늘 술값은 내가 다 쏜다! 우리 진짜 16강 가는 거야!" 재민 선배가 의자 위로 훌쩍 올라가 맥주잔을 치켜들며 포효했다. 팍팍한 현실에 억눌려 있던 선배들의 불안이, 첫 골이라는 해방구를 만나 브레이크 없이 폭발하는 중이었다.

그때, 선우 오빠가 재민 선배의 과장된 몸짓을 보며 픽 웃으면서도 묘하게 내 주변을 살피는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쿵쾅거리는 맥박을 숨긴 채 짐짓 고개를 돌려 그 시선을 외면했다.

그러나 환희는 잔인하리만치 짧게 끝났다. 브라운관 아래로 하석주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거친 백태클을 날리는 장면이 재생됐다. 핏빛 레드카드가 허공을 갈랐고, 거대했던 함성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곧이어 거친 욕설과 탄식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

후반전, 멕시코의 연속 골이 터지자 술집 안은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모했다. 빈 맥주잔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흥분한 취객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아이씨, 비켜!" 뒷자리에서 혀가 꼬인 남자의 고함이 터졌다. 만취한 남자가 의자를 걷어차며 비틀거리더니, 내가 앉은 쪽으로 훅 고꾸라졌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누군가 내 오른쪽 팔목을 낚아챘다. 시야가 핑그르르 돌며 단단한 가슴팍에 안면이 깊숙이 파묻혔다. 선우 오빠였다.

그는 한쪽 팔로 내 어깨와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넓은 등으로 무너져 내리는 취객의 하중을 고스란히 막아냈다. 쿵, 하는 마찰음과 함께 그의 몸이 미세하게 휘청였지만, 나를 감싼 팔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귓속에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숨이 턱 막히는 찰나, 찌든 알코올 냄새를 뚫고 오빠 특유의 깨끗한 비누 향이 밀려 들어왔다. 그 압도적인 체취에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시야가 차단된 어둠 속에서 오로지 그의 뜨거운 체온과 근육의 팽팽한 긴장감만이 손끝에 선명하게 닿아왔다.

"……어이, 사람 칠 뻔했으면 조심해야지." 낮고 서늘한 경고가 머리 위에서 울렸다. 취객이 치워지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품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선배는 손을 거두면서도 내 안색과 팔목을 꼼꼼히 살폈다. 가빠진 숨을 고르며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가슴이 평소보다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전광판 스코어가 3대 1로 바뀌는 순간, 술집 안이 통째로 얼어붙었다.

재민 선배가 테이블에 이마를 처박으며 낮게 신음했다. "아, 진짜... 오늘 이거 보려고 아

침부터 설렜는데." 허탈한 웃음이 뒤를 이었다.

지수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나 먼저 갈게. 근처에서 자취하는 친구가 재워주기로 했거든. 미리 얘기해뒀어." 손목시계를 흘긋 보며 덧붙였다. "이 시간에 지하철 끊기면 답 없잖아."

"어, 그래. 조심히 가." 재민 선배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좁은 출입구는 밀치며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 선우 오빠는 여전히 말없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넓은 등 뒤에 바짝 붙어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신촌의 새벽 거리는 눅눅한 안개로 젖어 있었다.

거리에 모여 선 선배들 사이로, 상혁 선배가 손목시계를 보며 미간을 좁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새벽 3시다. 지하철은 벌써 끊겼고, 이 시간에 택시 잡으려면 배로 나가."

"그럼 어떡해요, 저 목동인데."

"PC방에서 밤새 스타크래프트 어때?"

"그냥 동방 가서 자자." 상혁 선배가 정리하듯 말을 맺었다. "택시비로 맥주하고 라면이나 사 가는 게 낫지. 편의점 들렀다 가자."

무리가 다시 뭉쳐 편의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녔다. 봉지를 나눠 든 무리가 안개 낀 새벽 거리를 걸어 학교로 향했다. 나는 무리의 끝자락에서 걸음이 조금 처졌다.

그때, 뒤에서 다가온 발소리가 내 옆에 나란히 붙었다. 선우 오빠였다.

"유진아, 아까 안 다쳤어? 괜찮아?"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그가 뻗은 손이 내 떨리는 손목을 빈틈없이 움켜쥐었다. 뜨거운 손바닥의 온도가 혈관을 타고 훅 밀려들었다. 새벽 거리의 차가운 안개가 뺨을 적셨지만, 그 온도는 추위를 밀어내고 내 손목 전체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 찰나, 평소의 냉랭한 눈동자 안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언가가 빠르게 일렁였다가 사라졌다. 그 눈빛을 마주한 0.1초 동안, 내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가 배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 저기 편의점이다!" 앞서가던 목소리에 짧은 정적이 깨졌다. 오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을 거두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학생회관 지하 동방에 도착했을 때는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현아 선배가 전기포트

에 물을 올렸고, 몇몇은 바닥에 신문을 깔고 잠을 청했다. 컵라면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금세 퍼졌다.

재민 선배는 다른 선배들이 하나둘 눕기 시작한 뒤에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빈 컵라면 용기들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고, 철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서야 자신도 벽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기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지 않은 손길이었다.

나는 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워 안았다. 붉은 펜 자국, 지수 언니의 반짝이는 머리띠, 재민 선배의 무심한 중얼거림, 그리고 새벽 거리에서 잡혔던 손목의 온도가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란이 잦아들고, 여기저기서 낮은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창밖에서 희붐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나는 뻐근하게 감기는 눈꺼풀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스르르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10화 끝]

11화 계단참의 발소리와 우리 유진이

손목에 남은 그 온도가, 이대로 영영 식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새벽까지 이어진 경기의 여파로 나는 그다음 날 학교 근처도 얼씬하지 못했고, 다시 정신을 차린 건 이틀이 지난 뒤였다.

붉은 악마 머리띠는 서랍 안에 다시 조용히 들어갔다.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겨두고, 이제는 기말고사라는 눈앞의 현실로 돌아설 시간이었다. 이틀을 앓듯 흘려보낸 대가로, 나는 다른 애들보다 반 박자쯤 늦게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기말고사 기간 중앙도서관 열람실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창밖 플라타너스 잎이 짙은 초여름 녹음을 드리우고 있었지만, 실내는 그 계절감과 무관하게 서늘하고 정체된 공기로 가득했다.

다들 자리다툼을 벌이던 첫 주와 달리, 이제는 각자의 자리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듯 조용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빈자리는 없었다.

통로를 따라 걸으며 책상들을 훑었지만, 가방이나 필통, 물병 같은 것만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가 태반이었다.

필통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자리를 찾아 필통을 슬그머니 옆으로 밀어놓고 앉았다. 오늘만큼은 주인에게 쫓겨나지 않기를 빌며 이스트팩을 열었다.

필기 노트 몇 권을 쌓아두고 형광펜을 긋던 손을 잠시 멈췄다. 경영학원론이나 회계원리는 외우면 그뿐이었다. 정의를 암기하고 공식을 대입해 문제를 풀면 명확한 답이 나왔다.

세상은 IMF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책상 위에서만큼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문제는 옆에 놓아둔 얇은 문고본이었다.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번 학기 교양으로 들은 심리학개론의 지정도서였다.

선우오빠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어 신청했던 건데, 막상 기말시험을 준비하려 하니 통 손에 잡히지 않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시험공부라 생각해서 그런지 몇 줄을 읽어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존재가 가볍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활자를 눈으로 좇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헛돌았다.

밑줄을 그은 문장을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였다. 이해했다고 생각한 순간 다음 문장에서 다시 미궁에 빠졌다.

전공 시험이야 며칠만 파고들면 어떻게든 승산이 보였다. 하지만 이 책은 파고들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는 책이었다.

시험 범위에 포함된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 데만 삼십 분 넘게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시험기간의 초조함을 더 부추겼다.

나는 페이지 모서리를 접어둔 채로 책을 덮고 잠깐 이마를 짚었다. 옆자리 학우도 필기 노트에 밑줄을 그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계절을 버티고 있었다.

"유진이, 시험공부 잘 돼가?" 지나가던 종환 선배가 열람실 사이 통로에서 걸음을 멈추고 속삭이며 물었다. 낡은 슬리퍼 소리가 조용한 열람실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렸다.

"그럭저럭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답했다.

"열공해라. 나 이번에 진짜 큰일 났어. 학점 안 나오면 어머니가 등록금 도로 뱉어내라고 하실 판이야." 그가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시험기간의 도서관은 다들 그렇게, 스치듯 안부만 남기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고 있었다.

책을 다시 펼치고 몇 줄을 더 읽어 내려가던 참이었다. 영원회귀에 대한 대목에서, 나는 문득 이 개념을 나름대로 풀어보려 애썼다.

한 번뿐인 선택과 무한히 반복되는 선택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뜬금없이 그 질문이 어젯밤 손목을 붙잡혔던 그 순간에 자꾸만 겹쳐졌다. 딱 한 번뿐이었던 그 접촉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젓는데, 자리 주인이 돌아왔다.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났고, 그 바람에 옆 책상 모서리에 팔꿈치를 세게 부딪혔다. 짧은 신음이 절로 새어 나왔다.

옆자리 학우가 놀란 눈으로 흘긋 쳐다봤다가 다시 필기 노트로 시선을 돌렸다. 부딪힌 부위를 보니 팔꿈치 안쪽이 벌겋게 쓸려 있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뒤늦게 올라왔다.

동방에 구급상자가 있다는 게 떠올랐다.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열람실을 나섰다. 팔을 굽혔다 펴보니 은근한 통증이 뻐근하게 이어졌다.

학생회관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침 안으로 들어가던 선우 오빠와 마주쳤다. 손에는 낡은 전공서 몇 권이 들려 있었다.

"어, 오빠. 시험 끝났어요?" 나는 팔을 슬쩍 뒤로 감추며 물었다.

"방금 한 과목." 그가 짧게 답하다 내가 불편해하는 쪽으로 시선이 갔다. "너 팔 왜 그래?"

"아, 아까 좀 부딪혀서요. 동방 가서 구급상자에 약이나 밴드라도 있나 보려고요."

"있을거야, 같이 가." 그가 별다른 설명 없이 몸을 돌려 앞장섰다.

학생회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의 시선이 문득 내가 든 책 표지로 향했다.

"그건 뭐야?" 그가 물었다.

"심리학개론 지정도서예요. 근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한숨을 섞어 답했다. "존재가 가볍다는 게 대체 뭔 소린지."

"어디까지 읽었는데?"

"한 번은 다 읽고, 두번째 읽고 있는데 영원회귀 나오는 부분까지요."

"아, 그거." 그가 짧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니체의 영원회귀에 따르면, 삶이 무한히 반복될 때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영원한 책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돼. 반대로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모든 선택은 순간에 사라지므로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지지. 소설은 이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삶의 무거움과, 단 한 번뿐인 삶의 가벼움 사이에서 인간이 느끼는 모순과 선택을 다루고 있어.

"그럼 뭐가 맞는 건데요?"

"그건 나도 몰라. 그래서 아직도 읽히는 책인가 보지." 그가 시원스레 웃으며 돌아보았다.

철학 수업 하나 들어본 적 없는 나에게도, 그의 설명은 이상하리만치 쉽게 들어왔다. 방금까지 삼십 분을 붙들고도 못 풀어낸 개념이, 그의 짧은 몇 마디로 형체를 갖추는 게 낯설었다. 인문학을 전공한다는 게 이런 걸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그가 문득 걸음을 늦춰 내 보폭에 맞췄다. 평소 동방에서 다른 부원들과 있을 때의 그 무심한 거리감과는 다른 걸음이었다.

"팔 많이 아파? 피는 안 나?" 그가 물으며 슬쩍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우리 유진이, 은근히 씩씩하네." 그가 낮게 웃으며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걸음을 멈출 뻔했다. 교회에서만 듣던 그 호칭이, 여기 학생회관 복도 한복판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동아리에서의 그는 나를 늘 '정유진'이나 '새내기'로만 불렀다. 교회에서의 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 계단참에서 잠깐 새어 나온 셈이었다.

일곱 살 때부터 봐온 동생 친구이자 교회 동생이라는 십삼 년의 관성이 만든 습관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속이 울컥했다. 다정한 울타리 안에 갇힌 듯한 안도감과, 여전히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역시 자신이 뱉은 말을 뒤늦게 깨달은 듯, 잠깐 걸음을 멈칫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동방 다 왔다."

목소리 끝이 다시 평소의 무심한 톤으로 돌아가 있었다. 발걸음도 아까보다 조금 빨라져 있었다.

나는 그 짧은 균열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방금 전까지 나란히 맞춰지던 보폭이 그 한마디 이후 슬쩍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사실까지도.

동방 문을 열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선풍기만 혼자 고개를 돌리며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벽에 붙은 지난 공연 사진 속에서만 부산스러운 활기가 남아 있을 뿐, 시험기간의 동방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그가 구석 캐비닛에서 낡은 구급상자를 꺼내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다. "이리 와봐."

나는 그의 옆에 앉아 팔을 내밀었다. 그가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상처 주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좁은 동방 안에 옅게 퍼졌다.

"밴드 어디 있어?." 나는 상자에서 밴드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거 혼자 못 붙여. 이리 줘." 그가 밴드를 받아 들며 내 팔을 살짝 굽혀 각도를 잡았다.

섬세한 손끝이 뜻밖에 조심스러운 힘으로 상처 주변을 눌러 밴드를 고정했다. 그 잠깐의 접촉이 끝나자, 팔꿈치 안쪽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남았다. 방금 전 계단에서 들었던 그 호칭의 여운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덕분이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작게 대답했다. 오빠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구급상자를 다시 캐비닛에 넣었다.

그때 동방 문이 열리며 현아 언니가 종이 뭉치를 든 채 들어섰다. "안녕! 시험 잘 보고 있어?" 그녀가 벽에 붙은 게시판으로 다가가 압정을 꽂으며 공지문을 붙였다.

"가을 정기공연 일정 나왔어요. 이번엔 새내기들도 세션 하나씩 맡을 거야."

현아 언니가 나를 향해 짧게 눈짓을 보냈다. "유진이 너도 잘하면 이번에 기회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열심히 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나는 저도 모르게 힘주어 대답했다.

"말은 시험 끝나고 증명해." 현아 언니가 특유의 딱딱한 어조로 짧게 받아치면서도, 입가에는 옅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다음 할 일이 있다는 듯 다이어리를 펼치며 발걸음을 옮겼다.

현아 언니가 나간 후에도,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선우 오빠는 들고 온 전공서들을 가방에 넣으며 다음 시험공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방금 전 계단참에서의 그 짧은 흐트러짐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저 동아리 선배로서 후배의 상처를 무던히 챙겨주었을 뿐이라는 듯,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무심한 얼굴이었다.

나는 밴드가 붙은 팔꿈치를 슬쩍 문질렀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오후였다. 하지만 방금 전 계단참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만은, 팔꿈치에 남은 온기보다 더 오래 남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소파에 내려두었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다시 펼쳤다. 영원회귀에 관한 문장을 가만히 눈으로 좇았다.

단 한 번 스쳐 지나간 그 호칭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한 번뿐이라서 무거운 것이라던 그의 과거 설명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갔다.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할 채비를 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고, 오늘 안에 봐야 할 분량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험이 끝나면 이 어지러운

설렘도 옅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동방 문을 나서기 직전, 나는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선우 오빠는 이미 전공서 위로 고개를 파묻은 채 다음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무심한 옆모습 어딘가에, 방금 전 계단에서 새어 나왔던 다른 얼굴이 여전히 숨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얼굴을 마음속에 조용히 눌러 담고, 다시 도서관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11화 끝]

12화 은테 안경과 꽉 쥔 다이어리

낮에 잠깐 들렀던 그 조용한 동방이 문득 다시 떠올랐다. 그 잔상을 떨치지 못한 채, 나는 그날 저녁 늦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동방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소파 위에 나란히 앉은 낯익은 두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지수 언니와 선우 오빠였다. 낡은 형광등 불빛을 받는 두 사람의 모습이 문가에 선 내 위치에서 이상하리치만치 선명했다.

시험 기간이라 다들 조용히 자기 자리에 몰두해 있는 와중에도, 두 사람 주변만큼은 전혀 다른 온도의 공기가 흐르는 듯했다.

나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괜히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구석 자리로 걸어갔다. 낮에 앉았던 소파 근처, 낡은 책상 위에 서머리를 펼쳤다. 팔꿈치에 붙인 밴드만이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기억해 주는 듯했다

"환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수 언니가 신문을 접으며 가방을 뒤적였다. "참, 이거 봤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낯익은 붉은 테두리의 잡지였다. <타임>지. 이름이야 모를 리 없었지만, 원서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 읽어 내려가는 지수 언니의 여유는 내게 낯선 세계의 것이었다.

"이번 호에 방어기제 다룬 아티클이 있던데, 형 전공이잖아요." 지수 언니가 페이지를 펼쳐 선우 오빠 쪽으로 내밀며 웃었다. "이거 읽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선우 오빠는 잠깐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당겨 앉았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작은 안경집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나는 그 낯선 손짓을 가만히 눈에 담았다. 교회에서는커녕 동아리에서 악보를 볼 때조차 한 번도 꺼내 쓴 적 없는 물건이었다.

"영어 잔글씨는 이게 없으면 잘 안 보여서." 그가 은테 안경을 펴 콧등에 걸치며 짧게 웃었다. "시력은 멀쩡한데, 깨알 같은 원서 활자를 보면 눈이 금방 피곤해지더라고. 이럴 때나 쓰려고 챙겨 다녀."

렌즈 너머로 비치는 눈매가 평소보다 한층 깊고 진지해 보였다. 안경을 쓴 선우 오빠는 낯설었지만 묘하게 잘 어울렸다. 기타 줄을 튕기던 손가락이, 이제는 잡지 페이지를 넘기며 낯선 언어의 문장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몇 초간 이어진 침묵 속에서, 그는 지면 위 활자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그 집중한 옆모습이 평소 기타를 잡을 때와는 또 다른 얼굴처럼 느껴졌다.

"이 부분, '투사'라는 개념인데." 그가 손가락으로 지면을 짚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자기 안의 불편한 감정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가 짜증이 났으면서 상대가 예민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아, 그거 완전 내 얘기 같은데." 지수 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몸을 그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였다.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억압'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억압은 아예 그 감정 자체를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고, 투사는 그 감정을 인식은 하는데 남한테 떠넘기는 거지." 선우 오빠가 영어 원문 몇 구절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발음도 막힘이 없었다.

"오, 신기하다. 그럼 나는 방금 그거 둘 다 하고 있었네요." 지수 언니가 소리 내어 웃으며 잡지를 살짝 그의 쪽으로 밀었다. "다음 장 좀 봐봐요. 여기 사례 연구 부분."

선우 오빠가 다시 지면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며 문단을 훑어 내려갔다. "이건 좀 더 복잡한데, 유년기 애착 유형이랑 연결 지어서 설명하고 있네." 그가 짧게 다음 문장을 짚으며 덧붙였다. "이 학자 이론은 나도 수업에서 배운 적 있어."

"역시 전공자는 다르네." 지수 언니가 감탄하듯 짧게 웃었다.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 사람 마음을 이렇게 분석해서 글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분석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진 않아. 그저 통계적으로 들어맞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선우 오빠가 옅은 미소를 띠며 대꾸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내가 선뜻 끼어들 수 없는 전문용어로 점점 빼곡해졌다. 억압, 투사, 애착 유형, 방어기제 같은 낯선 학술어들이 오갈 때마다, 나는 그 경계 밖에서 조금씩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도서관에서 전공서를 파고드는 것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지점이 저 대화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원서 잡지를 아무렇지 않게 읽어내는 지수 언니의 여유와, 그 물음에 막힘없이 답하는 선우 오빠의 목소리가 나에게는 낯선 언어처럼 들렸다.

문득 낮에 계단참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다. "우리 유진이"라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대화 앞에서는 아주 먼 일처럼 느껴졌다. 실력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와,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세상에는 따로 있는 것 같았다.

선우 오빠는 대화에 몰입하면서도 문득 고개를 들어 나를 짧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그는 살짝 눈을 피하며 다시 지면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은테 안경 너머로 옅게 스친 그 어색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로서는 가늠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써머리로 시선을 돌려 애써 펜을 움직였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바람에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유독 거칠게 새어 나왔다.

조용한 동방 안에서 그 소리가 유독 서툴고 크게 울렸다. 선우 오빠가 지수 언니와의 대화를 멈추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그가 짧게 물었다.

"네, 종이가 잘 안 넘어가서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오빠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지수 언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잠깐 스쳐 지나간 그 짧은 관심이 오히려 마음을 더 크게 어지럽혔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수 언니가 웃으며 다시 잡지를 짚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애먼 종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방금 전 순간을 곱씹었다. 낮에 이 자리에서 팔꿈치에 밴드를 붙여주던 그 손길과, 방금 짧게 스치듯 던진 "괜찮아?"라는 한마디 사이의 온도 차이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그때는 나만을 향한 다정함이었는데, 지금은 대화 중간에 잠깐 끼어든 안부 인사 같았다. 같은 손, 같은 목소리인데도 그 무게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때 동방 문이 열리며 현아 언니가 서류철을 든 채 들어섰다. 게시판 쪽으로 향하려던 그녀의 시선이 문득 소파 쪽에 머물렀다.

지수 언니와 선우 오빠가 여전히 잡지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더니, 짧게 피식 웃고는 대관 시간표를 확인한 뒤 내 쪽으로 다가와 옆자리에 걸터앉았다.

"저 둘은 저런 얘기만 나오면 원래 저렇게 끝도 없어." 현아 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

했다. "신경 쓰지 마

"원래요?" 나는 되묻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둘 다 저런 얘기 좋아해. 선배는 전공이고, 지수는 시사에 관심 많고." 현아 언니가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익숙해지면 저 소리도 그냥 배경음악처럼 들려."

"자주 그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종종. 둘 다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붙으면 저래." 현아 언니가 서류철을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저건 그냥 저 둘 취향이 맞는 거지. "

나는 그 말에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취향이 맞는다는 그 말이, 오히려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았다.

그 말은 설명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이 광경이 이미 동방 안에서 낯설지 않은 익숙한 풍경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처음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현아 언니는 곧 다음 볼일이 있다는 듯 서류철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연 예산안 마저 정리해야 돼서. 이따 봐."

벽시계 바늘이 어느새 여덟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수 언니와 선우 오빠의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결국 써머리에서 손을 떼고 가방 속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다.

오늘 하루의 감정을 몇 줄이라도 적어보고 싶었다. 팔꿈치에 밴드를 붙여주던 그 다정한 손길과, 낯선 대화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순간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낯선 영어 단어들과 알 수 없는 지적 거리감이, 문장이 되어 나오지 않고 펜 끝에서만 맴돌았다. 몇 번이고 첫 문장을 쓰려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나는 왜 저 대화에 낄 수가 없을까.'

그 한 줄조차 다 적지 못한 채, 나는 다이어리를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다이어리를 세게 움켜쥐자,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온몸으로 견디며 익혀왔지만, 저 완벽한 대화의 장벽을 넘어설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무력함이 유독 서럽게 다가왔다.

그 순간, 선우 오빠가 지수 언니의 말에 짧게 대꾸하다 말고 문득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내 손에, 정확히는 하얗게 질린 손끝에 잠깐 머물렀다.

은테 안경 너머로 마주친 그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낯선 빛이 서려 있었다. 나는 황급

히 다이어리를 무릎 위로 내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 지수 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전, 아주 짧은 순간 나를 향해 머물렀던 그 시선만이 내 안에 오래도록 남았다.

지수 언니는 그 짧은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타임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럼 이 사례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대화를 이어갔고, 선우 오빠도 곧 시선을 거두어 잡지로 되돌아갔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상단에 오늘 날짜만 덩그러니 적힌 채 그 아래로 허옇게 비어 있는 한 페이지가,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페이지 위를 가만히 쓸어넘기며 다이어리를 덮었다. 은테 안경 너머로 마주쳤던 그 짧은 시선의 잔상을, 그날 밤 내내 곱씹을 게 분명했다.

실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마주한 기분이었다.

[12화 끝]

13화 도서관 캔커피와 얼어붙은 정적

붙잡고 있어봤자 나만 다치는 마음이라면, 차라리 놓아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나는 한동안 동방과 거리를 뒀다.

그 대신 그날 동방에서 끝내 채우지 못했던 다이어리의 첫 줄은, 여름 내내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다른 문장들로 빼곡히 채워져 갔다.

개강을 앞둔 8월 말, 오랜만에 들른 동방 구석 자리에서 나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쳐 든 채 앉아 있었다.

마침 선우 오빠가 그 앞을 지나가던 참이었다. 내가 자세를 고쳐 앉으려 뒤척이던 순간, 팔꿈치에 스친 다이어리가 책상 모서리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오빠는 떨어지는 다이어리를 보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이 표지를 스치기만 했을 뿐, 다이어리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며 반쯤 펼쳐졌다.

그가 다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우려던 순간, 펼쳐진 페이지가 그의 눈앞에 고스란히 드

러났다.

그의 시선이 그 드러난 페이지 위에 닿으려는 찰나, 나는 다급히 손을 뻗어 다이어리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다.

"보지 마세요!"

생각보다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놀란 듯 커지는 그의 눈동자를 확인한 순간, 나는 민망함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동방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문고리를 쥐었던 손아귀에 식은땀이 차갑게 배어 있었다.

쿵쾅거리는 발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요란하게 채우며 귓가에 이명처럼 울려 퍼졌다.

손바닥을 타고 역류하듯 밀려든 차가운 얼얼함이 아직도 팔목 안쪽을 타고 기어오르는 듯했다. 내가 스스로 어긋나게 틀어버린 궤도의 끝자락에서, 손가락 끝은 갈 곳을 잃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이어리를 무작정 낚아채며 쥐어짜듯 힘을 주었던 그 찰나의 충격이 손목 뼈마디를 타고 어깨까지 그대로 번져 왔다.

그 반동으로 휘청거린 몸은 복도 벽에 등이 닿고서야 겨우 멈춰 섰다. 벽의 차가운 시멘트 감촉이 얇은 셔츠를 뚫고 등뼈를 파고들었다. 폐 깊숙이 갇혀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거친 숨이 쏟아져 내렸다.

늦은 오후, 복도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옅은 가로등 불빛은 무심하게도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 정적 속에서 허공을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마저 평화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속은 한겨울의 빙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조금 전 다이어리를 향해 뻗어오던 오빠의 커다란 손과, 순간적으로 내 안색을 살피던 그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오빠는 그저 떨어진 다이어리를 주워주려 했을 뿐이었다. 아무런 악의도 없는, 늘 그래왔듯 다정한 선우 오빠의 순수한 친절.

하지만 상단에 오늘 날짜만 덩그러니 적힌 채 허옇게 비어 있던 그 한 페이지를 오빠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수 언니와 원서 잡지를 펼쳐놓고 대화하던 오빠의 세계 앞에서 한 마디도 꺼내지 못했던 내 초라한 열등감을 마당 한복판에 발가벗겨진 채 내던지는 것과 같았다.

오빠의 그 다정한 눈빛에 내 밑바닥이 담기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다정함은 때로 폭력보다 더 잔인하게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 나를 향한 오빠의 오랜 친절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으로 무겁게 짓눌러왔다. 오빠를 밀쳐낸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마지막 자존심을 낚아채 도망친 것뿐이었다.

이 숨 막히는 공간, 선우 오빠의 잔상이 남아 있는 건물 전체로부터 완벽하게 사라지고 싶었다.

무작정 계단을 뛰어내려 오는 동안 거친 호흡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학생회관 앞 야외 벤치에 도달해 있었다.

낡은 나무 벤치 끝에 위태롭게 주저앉자, 참았던 무릎이 제멋대로 덜덜 떨려왔다. 낮 동안의 열기가 한풀 꺾인 늦여름의 밤공기가 허파 깊숙이 들어와서야, 억눌렸던 서러움이 비로소 잘게 흩어져 내렸다.

밤바람이 달아오른 뺨을 스치며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다. 바람에 묻어오는 풀 비린내와 알싸한 흙냄새가 어지러운 머릿속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었다.

나는 양팔을 교차해 스스로 어깨를 안아 감쌌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손에 잡히는 얇은 카디건의 촉감이 유독 까끌거렸다. 오빠의 체온 대신 내 손바닥으로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꼴이 유독 비참하게 느껴져, 나는 끌어안았던 손에 힘을 탁 풀어버렸다.

스스로 만들어낸 미로 속에서, 나는 철저히 길을 잃은 미아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다정한 손길을 애타게 기대했으면서도, 막상 선배가 나만의 경계선을 넘어 다가오려 하니 본능적으로 가시를 세우고 도망치고 마는 꼴이었다.

누군가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기를 바라면서도 그 손을 잡을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비겁한 미아.

벤치 아래로 일찍 떨어진 잎사귀 하나를 멍하니 응시하며, 나는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내 이름을 부르며 자책했다.

"정유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럽게 머리 위로 쏟아지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어깨가 움찔거렸다. 고개를 들자 지수 언니가 팔짱을 낀 채 나를 삐딱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웨이브 머리와 서늘한 눈매가 오늘따라 유독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지수 언니는 언제나 내가 숨기고 싶은 가장 초라한 모습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재주가 있

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아, 언니.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웃기네. 동방 분위기 다 망쳐놓고 혼자 여기 나와서 청승이야?"

그녀의 하이힐 굽 소리가 보도블록을 딱딱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짓누르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고막을 불규칙하게 때렸다.

"선우 형이 요즘 너 좀 챙겨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지?"

지수 언니의 말은 예리한 비수처럼 날아와 내 폐부에 박혔다. 말을 내뱉는 그녀의 붉은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아래위로 나를 훑어내리는 차가운 눈꼬리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곡을 찌르는 익숙한 여유가 느껴졌다.

그녀의 이죽거림은 내 안의 가장 취약한 바닥을 파헤치는 완벽한 촉매제였다.

선우 오빠와 나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 그리고 감히 내가 넘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녀가 노골적으로 끄집어낼 때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쇠맛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그 찌릿한 고통조차 굳어가는 무력감을 가려주진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내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더 이상 이 시선을 견디며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이 목덜미를 화끈거리게 했지만 억지로 무시했다. 도망치는 내 뒷모습이 얼마나 우스울지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인적이 드문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과학 자료실 구석 자리로 향했다.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특유의 정적이 온몸을 감쌌다.

낡은 서가 사이에 몸을 숨기듯 앉았다.

습기를 머금은 오래된 종이 특유의 묵직한 냄새가 폐부를 가득 채우며 그제야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일정해졌다. 책상 위로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다.

천장에서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낡은 에어컨의 백색소음이 귓전을 맴돌았다. 규칙적인 그 진동이 요동치던 맥박을 조금씩 늦춰주었다.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자 창틀 너머로 부서져 내리는 붉은 노을이 눈에 들어왔다. 비스

듬히 떨어지는 빛줄기가 마치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얇은 막처럼 보였다.

떨리는 손가락에 닿는 차가운 철제 책상의 촉감이 나를 붕 뜬 몽상에서 현실로 단단히 끌어내렸다.

나는 극도로 불안해질 때마다 으레 그러하듯 오른손 엄지로 왼손 검지 마디를 꾹꾹 누르는 행동을 신경질적으로 반복했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누르다 보면 둔탁한 통증이 다른 모든 잡념을 삼켜버리곤 했다.

손가락 관절이 뻐근해질 무렵이었다. 책상 한구석에 새겨진 오래된 낙서 하나가 시선에 걸려들었다.

누군가 무심코 끄적여놓았을 의미 없는 선들마저 지금의 엉킨 속내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멍하니 흩어진 감각의 파편들을 주워 담으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지 못했다.

창밖의 노을이 점차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어갈 즈음이었다.

"여기 있었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낮고 묵직한 음성. 환청이 아니었다. 놀라 고개를 들기도 전에 선우 오빠가 내 옆자리 의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앉았다.

낡은 의자 다리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다음 학기 생리심리학 과목을 들으려고. 닐 칼슨의 *Physiology of Behavior*인데, 방학 끝나기 전에 미리 좀 빌려두려고."

그가 옆구리에 낀 두꺼운 원서 한 권을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내려오다 자판기에서 이거 하나 뽑았는데, 마침 너 보여서."

그의 손에 들린 캔커피가 눈에 들어왔다. 넓은 어깨가 시야를 가득 채우자 훅 끼쳐오는 은은한 샌달우드 비누 향과 귓가를 스치는 오빠의 옅은 숨소리가 일제히 감각의 경보를 울렸다.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추며 심장이 명치끝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뜨겁고 예리한 전류 같은 것이 쇄골을 타고 내려가 손끝까지 뻗어나갔다.

선우 오빠가 나도 모르게 내 안색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짙은 걱정이 묻어나는 그의 까만 눈동자를 흔들리는 시선으로 마주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다정함에 또다시

무너질 수 없어, 서둘러 시선을 내리깔며 고개를 돌렸다.

도서관의 에어컨 냉기가 여전히 맴도는 그의 얇은 셔츠 차림과 나 사이에 서늘하고 어색한 공기층이 얇게 끼어 있었다.

그가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캔커피를 내 차갑게 식은 손에 가만히 쥐여주었다.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그 무심함마저, 나에게는 미칠 듯이 다정하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미지근한 금속의 온도가 손목 안쪽 가는 혈관까지 번지며 오히려 내 속을 잔인하게 헤집어놓았다.

심장이 방금 막 한 박을 건너뛰었다. 근육이 수축하는 것도, 이마 밑으로 미세한 땀기가 돋는 것도 느껴졌다. 이 온기가 진짜라는 것을 온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선명해질수록 내 안 어딘가에서 뼈대 없는 기대가 자라나고, 그 기대가 언젠가 무참히 꺾일 것이라는 공포가 뒤를 따라왔다.

"선배, 이러지 마세요."

항상 '오빠'라고 부르던 내 입에서 튀어나온 서스름없는 호칭이 공기 중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목소리는 얇게 떨리고 있었지만 스스로 듣기에도 잔뜩 날이 서 있었다. 나는 오빠가 쥐여준 캔커피를 책상 한구석으로 밀어내며 그에게서 한 뼘 더 물러섰다.

"저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잘해주시는 거,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해요. 제발 이런 의미 없는 친절, 이제 그만둬주세요."

참아왔던 응어리를 뾰족한 대사로 토해낸 순간, 나는 걷잡을 수 없는 낯선 긴장감에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귓가에서 심장 박동이 이명처럼 울리며 순식간에 호흡이 가빠져 왔다. 꽉 쥐었던 주먹을 타고 미세한 떨림이 어깨와 척추까지 번져나가는 잔진동을 느끼며 숨을 삼켰다.

오빠는 내 단호한 말에, 그리고 낯선 '선배'라는 호칭에 멈칫하며 커피를 밀어낸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짙은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리며 입술이 달싹였다. 무언가 다급하게 변명하려는 듯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의 손이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내 쪽으로 향했다.

마치 그동안 깊이 숨겨두었던 진심의 한 조각을 마침내 꺼내어 놓으려는 듯한 찰나의 순간이었다.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진 그의 체온에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손끝 하나 닿지 않았는데도 그의 체온이 먼저 내 팔 위를 훑어가고 있었다. 눈꺼풀 뒤로 그 감촉의 윤곽이 선명하게 번지는 것 같아 황급히 눈을 내리깔았다.

서가 저편에서 낮은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아챘다. 이 늦은 시간, 인적 드문 자료실 구석까지 걸음을 옮겨올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

"선우 형, 유진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늘하고 억눌린 목소리가 서가 사이의 위태로운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다. 책장 너머 어둠 속에서 지수 언니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우리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꽉 쥔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보였다.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려던 말들이 일제히 목구멍 안으로 도로 처박혔다. 방금 전까지 그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얼굴을 화끈거리게 달구었다.

최악의 타이밍에 터져버린, 돌이킬 수 없는 오해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도서관 통창 밖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센 늦여름 빗방울이 유리창을 깨부술 듯 때리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토해냈다. 내 시선은 지수 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지나,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캔커피의 선뜩한 은빛 뚜껑에 위태롭게 머물렀다.

찌그러지지 않은 채 말끔하게 남아 있는 그 뚜껑이, 내일 다시 동아리 연습실 보면대 위에 올려질 공연 큐시트처럼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미완의 무언가를 닮아 있었다.

오해도, 감정도, 이 밤도 전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3화 끝]

14화 선우의 미소와 완성된 화음

빗소리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서야, 동방 철문 틈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다. 그날 도서관에서의 일 이후, 지수 언니는 며칠째 동방에 발걸음을 끊었다.

선우 오빠도 그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고, 나 역시 애써 그 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무언가 해명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갔다.

그렇게 어색한 며칠이 지나고, 동방 철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깥 공기가 부쩍 선선해진 것이 어느새 완연해진 초가을을 알려주었다.

다들 익숙한 손놀림으로 각자의 장비를 세팅하는 사이, 나도 신디사이저 전원을 켜고 서

스테인 페달을 발밑에 자리 잡았다.

10월 정기공연의 하이라이트 곡으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확정된 뒤로, 이 곡의 화성 진행을 익히는 데만 벌써 몇 주가 흘렀다.

세컨 신디로서 나는 선영 언니가 짜준 퍼스트 파트와 겹치지 않도록, 코드의 텐션 노트를 살려 보이싱을 조금씩 다르게 쌓는 연습을 반복해왔다.

건반 뚜껑을 열고 볼륨 페달을 밟아보며 톤을 확인하는 손길이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밴 동작이 되어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케이블 하나 꽂는 데도 쩔쩔매던 내가, 이제는 눈 감고도 세팅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서스테인 페달의 감도와 마스터 볼륨까지 손으로 확인하는 그 짧은 루틴조차, 이제는 하나의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오늘은 삼중창 파트부터 맞춰볼게요." 지훈 선배가 코드보를 넘기며 말했다. 리드보컬을 맡은 그의 옆으로, 평소 노래와는 거리가 먼 상혁 선배와 현아 언니가 낯선 얼굴로 발성을 가다듬고 있었다.

상혁 선배는 목을 몇 번 가다듬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이 나이에 화음 넣으려니까 긴장되네." 회장 특유의 침착함은 온데간데없이, 그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현아 언니도 마찬가지로 굳은 얼굴이었다. "저도 노래는 자신 없는데, 지훈 오빠가 하도 부탁해서." 그녀가 코드보를 몇 번이고 눈으로 훑으며 화성 진행을 되뇌고 있었다.

지훈 선배가 그런 둘을 보며 짧게 웃었다. "3도 화음이랑 5도 화음만 정확히 잡으면 돼요. 제가 멜로디 라인 확실히 잡아줄 테니까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올라타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상혁 선배가 코드보를 다시 들여다보며 볼멘소리를 냈다. 법전만 파고들던 그가 화성학 용어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낯설었다.

"천천히 해봐요. 다 처음엔 헤매요." 선영 언니가 신디 앞에서 건반을 몇 개 눌러보며 무심하게 거들었다. 그 말이 유독 나를 향한 것처럼 들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곡 시작 전, 지훈 선배가 문득 나를 바라보며 짧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주 끄덕이며 준비가 됐음을 알렸다. 몇 주간 이 곡 하나만 붙들고 씨름해온 시간이 그 짧은 눈짓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자, 인트로부터 갑니다." 선우 오빠가 기타로 아르페지오를 짚으며 카운트를 셌다.

곡이 시작되고 벌스가 무난히 흘러갔다. 유재하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 위로 지훈 선배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얹혔다. 문제는 프리코러스를 지나 삼중창이 들어가는 코러스 대목이었다.

3도 위, 5도 위로 갈라지는 화음 구조 안에서, 상혁 선배의 화음이 반 박자 늦게 들어오며 전체 하모니가 어긋났다.

"미안, 다시." 상혁 선배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들어 연주를 멈췄다. 순간 동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다시 시작한 두 번째 시도에서는 현아 언니가 3도 화음 대신 실수로 유니즌으로 따라 부르며 음이 어긋났다. 진우 선배가 짧게 한숨을 내쉬며 기타 넥을 고쳐 잡았다.

"처음부터 다시 가죠." 지수 언니가 무표정하게 베이스 라인을 다시 짚으며 재촉했다. 그녀 특유의 냉랭한 목소리가 팽팽해진 공기를 더욱 조이는 것 같았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화음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상혁 선배와 현아 언니 모두 코드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음정을 짚어나갔다.

지훈 선배가 옆에서 두 사람의 음정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다독였다. "상혁형은 지금 딱 좋아요. 현아는 반음만 더 낮춰서."

몇 차례 반복 끝에 삼중창 화음은 겨우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곡 후반 브릿지 구간, 유재하 특유의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연이어 등장하는 대목에서 내 신디 라인이 선우 오빠의 기타 보이싱과 미세하게 어긋나고 있었다.

"여기, 반 박자만 더 당겨서." 선우 오빠가 연주를 멈추고 담담하게 짚어주었다. "이 코드에서 다음 코드로 넘어갈 때, 5도가 3도로 이동하는 보이스 리딩이 들리게 쳐야 돼. 지금은 그게 묻히고 있어."

"전위형으로 쳐볼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루트 포지션 대신 1전위로 가면 베이스 라인이랑 부딪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거 좋다." 선우 오빠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마디에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넘어갈 때도 부드럽게 이어질 거야. 지수야, 베이스 라인은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루트만 잡고 있어서 상관없어요." 지수 언니가 무심하게 대꾸하며 베이스 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그 두 마디만 따로 떼어 몇 번이고 반복했다. 왼손으로 베이스음을 짚고 오른손으로 텐션을 살린 보이싱을 얹는 그 동작을, 손이 자연스럽게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몇 번을 거듭해도 손가락이 자꾸만 뻣뻣하게 굳었다. 코드 하나를 잘못 짚을 때마다 진우 선배가 옆에서 짧게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느껴졌다. 지수 언니도 팔짱을 낀 채 베이

스 헤드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전보다 나아졌어." 선영 언니가 옆에서 지켜보다 짧게 평가했다. "근데 아직 어택이 좀 세. 그 부분은 서스테인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어야 돼. 건반을 누르는 순간의 벨로시티를 낮춰봐."

나는 그녀의 조언대로 건반을 누르는 힘을 조금 빼며 다시 시도했다. 건반을 누르는 감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 두 마디가 매끄럽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자,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지훈 선배가 다시 카운트를 셌다.

곡이 다시 시작되고, 이번엔 삼중창 화음도 한결 안정적으로 들어맞았다. 상혁 선배와 현아 언니의 목소리가 지훈 선배의 리드 멜로디 위로 조금씩 자연스럽게 얹히는 것이 느껴졌다.

브릿지 구간에 다다랐을 때, 선우 오빠가 예고 없이 코드 진행을 살짝 바꿔 짚었다. 원래 악보에 없던 서스펜디드 코드로 슬쩍 틀어버린 것이었다. 완전4도 음이 임시로 3도 자리를 밀어내며 만들어내는 긴장감 있는 울림이었다.

순간 당황할 법도 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그 변화를 따라 화음을 채워 넣었다. 텐션 노트 하나를 재빨리 조정해 그의 즉흥적인 변주에 오차 없이 맞춰 넣은 것이다.

서스펜디드 코드가 다시 원래의 3도 화음으로 해결되는 그 짧은 순간까지, 나는 그의 손끝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선우 오빠가 연주를 이어가며 짧게 미소 지었다. 시선은 여전히 기타 프렛보드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분명히 나를 향한 것이었다.

"방금 완벽했어." 선영 언니도 눈썹을 살짝 올리며 인정했다. "서스펜디드에서 해결되는 그 타이밍, 완전 정확했어."

얼어붙어 있던 동방 안의 공기가 그 한 소절로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진우 선배마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기타 볼륨 노브를 살짝 조정했다.

몇 번 더 다듬은 끝에, 우리는 처음으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해냈다. 아웃트로에서 텐션이 점차 해소되며 마지막 코드가 온음으로 잦아들 때까지, 아무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리타르단도로 서서히 느려지는 마지막 마디에서, 지훈 선배의 목소리와 상혁 선배·현아 언니의 화음이 하나의 음으로 정확히 수렴했다. 그 순간만큼은 완전한 유니즌으로 곡이 마무리되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상혁 선배가 안도한 얼굴로 멋쩍게 웃으며 목을 풀었다. 화음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란 눈치였다.

현아 언니도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웃었다. "저 진짜 노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되긴 되네요."

"둘 다 처음치고 훌륭했어요." 지훈 선배가 흡족한 얼굴로 두 사람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다.

지수 언니도 베이스를 내려놓으며 옅게 웃었다. "신디 파트도 오늘 확실히 자리 잡았네요." 평소답지 않게 짧은 인정의 말이었다.

진우 선배도 기타를 벽에 기대어 세우며 짧게 덧붙였다. "브릿지 그 구간, 이제 완전히 손에 붙었네."

나는 긴장이 풀리며 그제야 표정을 다잡는 데 한 박자가 걸린다는 걸 느꼈다. 몇 주간 붙들고 있던 그 브릿지 구간을 마침내 완주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건반 위에 얹은 손끝에서 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동방 문이 벌컥 열렸다.

"야, 나 없이 벌써 다 맞췄냐? 서운하게." 재민 선배였다. 손에는 새로 산 드럼 스틱 한 쌍이 들려 있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스틱이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기장님, 지각이십니다." 현아 언니가 팔짱을 끼며 짐짓 나무라듯 말했다.

"미안, 미안. 조교 선생님께 붙잡혀 있었어." 재민 선배가 넉살 좋게 웃으며 드럼 세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근데 다들 표정이 왜 이렇게 비장해. 무슨 전투라도 치른 얼굴인데."

그 능청스러운 한마디에 팽팽했던 공기가 단숨에 풀리며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지수 언니마저 옅게 웃으며 베이스를 고쳐 멨다.

"드럼까지 다 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본 게 몇 주 만이에요. 맨날 클릭만 듣고 상상으로 채워 넣었다니까요."

진우 선배가 그제야 표정을 풀며 대꾸했다. "박자 감각 다 죽는 줄 알았네."

"그러게 누가 지각하래." 지훈 선배가 웃으며 재민 선배의 어깨를 툭 쳤다.

재민 선배가 스틱 포장을 뜯으며 씩 웃었다. "그래서 특별히 새 스틱까지 사 왔잖아. 이 정도면 지각비 대신 되지?"

"자,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재민 선배가 드럼 스틱을 가볍게 부딪치며 카운트를 셀 준비를 했다. "드럼 없이 몇 주를 어떻게 버텼대?"

그 말에 다들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나는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얹으며, 이제야 비로소 이 곡의 완전한 편성이 시작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용히 뛰었다.

재민 선배의 카운트에 맞춰 킥드럼과 스네어가 처음으로 곡 안에 들어왔다. 그 단단한 비트 위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파트가 얹히자, 이 곡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곡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몇 주간의 시행착오가 마침내 하나의 소리로 맞물리는 그 순간을, 나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14화 끝]

15화 노천극장의 핀 조명과 소주잔

노천극장 무대 뒤는 사운드 체크를 마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스태프가 마지막으로 모니터 스피커를 점검하는 동안,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대기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진우 선배는 자신의 모니터 밸런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몇 번이고 스태프에게 다가가 볼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제 쪽 신호가 너무 작게 들려요. 이러면 박자 놓쳐요."

"이 정도면 될까요?" 스태프가 다시 조정해주자, 진우 선배는 헤드폰을 귀에 대고 몇 번이나 코드를 튕겨보며 신중하게 확인했다.

재민 선배는 드럼 스틱을 손안에서 초조하게 빙글빙글 돌리며 세트리스트 순서를 몇 번이고 눈으로 훑고 있었다. "인트로 카운트, 오늘은 좀 천천히 갈게. 다들 준비되면 눈짓 줘."

지훈 선배는 마이크 앞에서 낮게 발성을 다듬으며 목 상태를 점검했다. 상혁 선배와 현아 언니도 그 옆에서 삼중창 화음을 나지막이 맞춰보며 서로의 음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저 떨려서 토할 것 같아요." 현아 언니가 창백한 얼굴로 상혁 선배에게 속삭였다. 평소 노래와 거리가 멀었던 두 사람에게는 이 무대가 유독 크게 다가오는 듯했다.

"우리끼리 몇 주를 연습했는데, 그거 믿고 가자." 상혁 선배가 애써 담담한 척 대꾸했지만, 그 역시 코드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신디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오늘 곡 순서를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손가락 마디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몇 주간 그토록 붙들고 있던 브릿지 구간이 실전에서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자꾸만 밀려왔다.

관객석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커튼 너머로 얼핏 보이는 그 인파의 크기에, 나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리허설 때 한 것처럼만 하면 돼." 선우 오빠가 옆으로 다가와 낮게 한마디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격려의 수식이 없었지만, 그 담백함이 오히려 마음을 다잡게 했다. 얼어붙어 있던 손끝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선배는 안 떨려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떨리지. 근데 그거 티 내봐야 도움 안 돼." 그가 짧게 웃으며 기타 스트랩을 고쳐 멨다. "그냥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무대 올라갑니다." 스태프의 신호와 함께 다들 자리를 정돈했다.

핀 조명이 하나씩 켜지며 노천극장 객석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선우 오빠의 손가락이 통기타 줄 위에서 인트로 아르페지오를 짚기 시작했다.

벌스가 흘러가고, 코러스로 넘어가는 순간 다이내믹스가 정확히 살아났다. 지훈 선배의 리드보컬 위로 상혁 선배와 현아 언니의 삼중창 화음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았다. 몇 주 전 동방에서 몇 번이고 무너졌던 그 화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쌓이고 있었다.

지수 언니의 베이스 라인이 곡의 저음을 든든하게 받쳐주었고, 진우 선배의 일렉기타가 그 위로 날카로운 음색을 얹었다. 재민 선배의 드럼 비트는 시종일관 안정적으로 곡 전체를 이끌었다.

브릿지 구간에 다다르자, 선우 오빠가 짧게 시선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서스펜디드 코드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을 눈으로 주고받는 신호였다. 나는 그 눈짓에 맞춰 정확히 텐션 노트를 짚어 넣었다.

우리 둘의 손끝이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맞물려 움직이고 있었다. 관객석에서는 그 조화를 느낀 듯 옅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몇 주간의 시행착오가 이 짧은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아웃트로의 리타르단도로 서서히 느려지는 마지막 마디까지, 모든 파트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의 음으로 수렴했다. 마지막 코드가 잦아들자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핀 조명이 서서히 꺼지는 동안, 나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무대 위 어둠 속에서, 옆에 선 선우 오빠의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앙코르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 세트리스트는 이 곡을 끝으로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지훈 선배가 마이크를 향해 짧게 인사말을 건네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다들 서로를 얼싸안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상혁 선배는 상기된 얼굴로 현아 언니와 하이파이브를 나눴고, 재민 선배는 드럼 스틱을 허공에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수고했어." 선우 오빠가 가장 먼저 다가와 짧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무심코 손을 뻗어 내 머리 쪽으로 가져갔다.

그 손이 정수리에 닿기 직전, 그는 문득 멈칫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익숙한 동작을 하려다 낯선 벽에 부딪힌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짧은 정적 속에서, 그는 어색하게 손의 방향을 틀어 대신 내 어깨를 툭 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잘했어." 그가 짧게 덧붙이며 시선을 살짝 피했다.

나는 그 잠깐의 멈칫거림을 눈치채지 못한 척했지만, 영문 모를 두근거림이 가슴 안쪽을 세게 두드렸다. 방금 그 손이 향하려던 곳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왜 멈췄는지 알 수 없어서 더 신경이 쓰였다.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간 그 손의 온기가 옷깃 위에서 오래도록 식지 않았고, 정수리로 향하려다 방향을 튼 그 허공의 궤적마저 눈앞에 선명하게 남았다.

그 어색한 손짓을 놓치지 않은 지훈 선배가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어, 방금 뭐 하려다 만 거예요? 손이 갈 곳을 잃었는데."

"두 사람 원래 저 정도 사이였어?" 진우 선배도 흥미로운 눈빛으로 되물었다. "나이 차이 생각하면 저 정도로 스스럼없을 줄은 몰랐는데."

선우 오빠는 아무 대꾸 없이 헛기침을 하며 기타 케이스를 정리하는 척했다. 귀 끝이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이 형광등 불빛 아래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뒷풀이 자리는 신촌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익숙한 민속주점 '동학'이었다. 나지막한 1층 목조 건물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자욱한 짚풀과 막걸리 냄새가 맞이했다.

낮게 내리덮인 황토 천장 아래, 주황색 한지 갓 등만이 낮은 목재 테이블 위를 붉고 어둡게 비추고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노찾사의 낮고 서글픈 포크 선율이 은은하게 흘렀고, 다들 공연의 여운과

함께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를 기울이며 잔을 부딪쳤다.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 현아 언니가 상혁 선배와 투박한 흙잔을 부딪치며 웃었다. 재민 선배는 나무 젓가락으로 둔탁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오랜만에 무대 치고 진짜 잘했지 않았어? 군대 가기 전을 마지막으로 정말 오랫만이야." 상혁 선배가 평소답지 않게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동동주를 채웠다. 선영 언니도 옆에서 웃으며 맞장구쳤다. "삼중창 그 화음, 진짜 소름 돋았어."

나는 찌그러진 양은 잔을 몇 번이나 연달아 비우며 취기가 서서히 오르는 것을 느꼈다. 무대 위에서의 희열과, 아까 무대 뒤에서의 그 어색한 손짓이 뒤섞여 마음이 자꾸만 들뜨고 있었다.

테이블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파전과 도토리묵, 그리고 동학의 상징인 포기째 담긴 시원하고 새콤한 김치 접시가 올라왔다. 가위로 김치를 싹둑싹둑 쓸어 담는 소리 사이로, 다들 오늘 공연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실수담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웃음소리 사이에서도, 한지 조명 그늘에 얼굴 반쯤을 가린 채 앉아 있는 선우 오빠 쪽으로 자꾸만 시선이 향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지수 언니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얼굴로 선우 오빠 옆자리, 통나무 기둥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 나지막이 말을 건네자 그가 짧게 웃으며 대꾸하는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눈에 밟혔다.

"유진아, 천천히 마셔." 선영 언니가 옆에서 내 술잔을 살짝 밀어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괜찮다는 뜻으로 짧게 웃어 보였지만, 이미 달착지근한 막걸리 기운이 걷잡을 수 없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다.

"선우 형, 근데 진짜 두 사람 무슨 사이예요?" 지훈 선배가 다시 그 화제를 꺼내며 슬쩍 웃었다.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순간 황토벽에 둘러싸인 좁은 좌식 테이블 위로 서늘한 정적이 흘렀다. 주황색 한지 등불 아래, 다들 흥미진진한 얼굴로 나와 선우 오빠를 번갈아 훑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저 오빠 일곱 살 때부터 알아요. 선우 오빠 동생이랑 피아노 학원 친구였고,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다들 놀란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헐, 그렇게 오래됐다고?" 현아 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럼 완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거잖아."

"어쩐지, 뭔가 편해 보이더라니." 진우 선배도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한 표정을 지었다.

재민 선배가 양은 잔을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근데 우리한테는 왜 여태 말 안 했어? 완전 몰랐잖아."

"교회에서는 다들 아는 얘기인데, 동아리에서는 딱히 물어본 사람이 없어서 말할 기회가 없었네요."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우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양은 잔만 가만히 매만지고 있었다. 주황색 조명 아래 그늘진 그의 침묵이, 오히려 방금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근데 이제 그냥 어릴 때 알던 사이로만 남고 싶지는 않아서요."

나는 취기 오른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이어 말했다.

어두컴컴한 테이블 위로 팽팽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재민 선배가 눈치껏 마른침을 삼키며 상황을 지켜보았고, 지훈 선배도 더 이상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선우 오빠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시선이 막걸리가 일렁이는 잔 언저리에서 미세하게 멈춰 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오빠는 저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술기운으로 데워졌던 몸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식으며, 심장 박동만이 귓속에서 유독 크게 울렸다.

선우 오빠가 당황한 기색으로 가방을 뒤적여 은테 안경을 꺼내 쓰며 시선을 슬쩍 피했다. 무언가 대답을 준비하려는 듯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그게, 유진아....." 그가 낮게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지수 언니가 불쑥 끼어들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손에 든 술잔을 흔들며 웃었다. "여기서 이러기 있기 없기, 자 건배부터."

그녀가 억지로 분위기를 밝게 돌리며 잔을 높이 들었다. 다들 얼떨결에 잔을 부딪쳤고, 선우 오빠도 안경 너머로 시선을 거두며 조용히 잔을 들었다.

"자, 오늘 공연 성공을 위하여!" 지수 언니가 큰 소리로 건배사를 외쳤다. 다들 얼결에 따라 외치며 잔을 부딪쳤고, 방금 전까지의 긴장된 공기는 순식간에 흩어졌다.

선우 오빠는 다시 안경을 벗어 가방에 집어넣으며 짧게 헛기침을 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지만, 방금 그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나는 오래도록 곱씹게 될 것 같았다.

동학의 좁은 창밖으로 신촌의 어두운 밤거리가 소란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주황색 한

지 등 아래서 오늘 하루 쏟아진 감정들이 채 정리되지 않은 채, 나는 그렇게 취기 속에서 그 밤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질문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취기에 나온 말이었다는 듯,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순간을 조용히 지나쳐 주었다.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일깨워주었다.

[15화 끝]

16화 이대 앞 쇼핑백과 낯선 내 모습

그 뒤로 며칠, 오빠도 나도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야, 정유진!" 가영이 두꺼운 전공서를 옆구리에 낀 채 반갑게 달려왔다. 정기공연이 끝나고 두 주가 지난 토요일 오후, 이대 앞 버스정류장에는 오랜만에 세 사람이 모였다.

"너 얼굴 왜 이렇게 폈어? 시험 기간 아니었어?" 가영이 물었다.

"방금 끝났어. 근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두꺼운 책 들고 다녀? 오늘 같은 날은 좀 내려놓지." 나는 그녀가 든 책을 가리키며 웃었다.

"이거? 향가 원전이야. 이번 학회 세미나에서 「제망매가」 하나 붙들고 밤새 씨름했잖아." 가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음엔 판소리 사설 방언 표기 분석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머리 아파."

"너는 진짜 그 길로 갈 거야?" 다희가 물었다.

"어. 나중에 국문과 교수 되는 게 목표야." 가영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너는 이미 노교수 포스야." 다희가 장난스럽게 놀리며 웃었다. "나는 요즘 실기실에서 며칠씩 밤새고 있어. 모더니즘 과제 때문에."

"모더니즘?" 나는 되물었다.

"어, 요즘 그쪽에 완전 꽂혔어. 형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다희가 크로키북을 펼치며 눈을 반짝였다. "요즘은 사람들 순간 동작 크로키에도 꽂

혔어. 지나가는 사람들 자세만 봐도 손이 근질거려."

우리는 정류장 벤치에 잠깐 걸터앉아 각자의 근황을 마저 풀어놓았다. 세 사람이 각기 다른 학교, 다른 전공으로 흩어진 지 벌써 반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모이면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 우리 어릴 때 다 같은 교회, 같은 학원 다니던 사이인데 지금은 다 다른 학교라니." 가영이 문득 감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그러게. 그래도 이렇게 만나면 하나도 안 변했잖아." 다희가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는 이대 앞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너네 동아리는 어때?" 가영이 물었다.

"국문과 학회는 진짜 전통 그 자체야. 훈민정음부터 조선 후기 소설까지, 매주 원전 강독해." 가영이 말했다. "너희 동아리는?"

"울림은 요즘 정기공연 끝나고 다들 늘어져 있어." 나는 말하다 무심코 덧붙였다. "선우 오빠가 이번에 새로운 곡 하자고 해서....."

"또 우리 오빠 얘기냐." 가영이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었다. 다희는 그 말에 눈을 반짝이며 더 캐물었다. "무슨 얘기? 더 해봐, 더."

"됐어, 얘기 안 해." 나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이대 앞 골목으로 접어들자 다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자, 오늘은 내가 제대로 코디해줄게. 일단 미용실부터."

그녀가 이끈 곳은 골목 안쪽의 작은 미용실이었다. 간판에는 촌스러운 필기체로 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파마 롯드를 만 손님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가 요즘 컬러 브릿지 제일 잘하는 데야. 부분 염색 하나만 넣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 다희가 자신 있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미용사가 내 앞머리 한 가닥을 잡고 붉은빛이 도는 브릿지 염색을 시작했다. "요즘 다들 이거 하나씩은 넣어. 통으로 염색하기엔 부담스럽잖아." 다희가 옆에서 설명했다. "탈색하고 색 입히는 데 한 시간이면 되니까 부담도 적고."

거울 속으로 붉은 브릿지가 한 가닥씩 물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옆자리에서는 다른 손님이 그 시절 유행하던 층층이 자른 레이어드 커트를 다듬고 있었다.

미용실을 나오자 다희는 곧바로 옆 골목의 옷가게로 나를 끌고 갔다. 좁은 매장 안에는

크롭 상의와 배기 팬츠가 옷걸이마다 빼곡히 걸려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박정현의 P.S. I Love You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요즘은 허리선 드러나는 크롭이 대세야. 밑단은 이렇게 넓게 퍼지는 배기로." 다희가 옷걸이를 뒤적이며 설명했다. "통굽 신발 신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이거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어?" 나는 크롭 상의를 보며 머뭇거렸다.

"당연하지. 요즘 이대 앞 다니는 애들 다 이래." 다희가 자신 있게 말하며 옷 몇 벌을 골라 내 손에 안겨주었다. "이 배기 팬츠는 밑단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서 폭을 조절할 수 있어. 요즘 애들 사이에서 완전 인기야."

가게 한쪽 진열대에는 원색의 스포티한 점퍼와, 목이 늘어진 니트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다희는 그중 몇 벌을 더 골라 내 팔에 얹었다.

옆 매장으로 옮겨 신발가게에 들어서자, 진열대에는 통굽 샌들과 스니커즈, 그리고 묵직한 워커 부츠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다희는 진열대를 훑으며 통굽 샌들 하나를 집어 들었다.

"닥터마틴 스타일 부츠도 유행인데, 오늘은 이 통굽으로 가자. 걸음걸이가 확 달라 보여." 그녀가 신발을 내 발치에 놓으며 신어보라고 재촉했다.

"골목 하나 사이로 이렇게 가게가 다 몰려 있네." 나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미용실,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노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저마다 최신 유행을 담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여기가 이대 앞이니까." 가영이 웃으며 대꾸했다. "전국 유행이 다 여기서 시작된다잖아."

노점 앞을 지나며 다희는 원색의 헤어핀과 얇은 목걸이 몇 개를 더 집어 들었다. "이런 건 포인트로 하나씩만 있어도 스타일이 확 살아. 자, 이제 다시 갈아입고 완성해보자." 그녀가 쇼핑백을 흔들며 앞장서 걸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도 낯선 모습을 마주했다. 크롭 상의에 배기 팬츠, 통굽 샌들, 그리고 붉은 브릿지가 섞인 머리카락까지.

"이 정도면 완전 딴사람인데." 가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거울 속 나를 이리저리 살펴보다, 이내 단단하게 미소 지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오히려 조금 더 당당해진 느낌이었다.

"거봐, 내 말 들으니까 좋지." 다희가 뿌듯한 얼굴로 팔짱을 꼈다.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채 셋이서 신촌 쪽으로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낯익은 무리가

다가왔다. 우리 과 선배들이었다. 평소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만 마주치던 얼굴들이었다.

"어, 유진이? 정유진?." 도윤 선배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들었다가, 이내 눈을 크게 뜨며 멈춰 섰다. "어어, 너 오늘 뭔가 완전 다르다?" 그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재차 확인하듯 눈을 깜빡였다.

"오늘 무슨 날이야? 스타일이 왜 이래." 다른 선배도 놀란 얼굴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역시 경영학과 캠퍼스 퀸은 다르네." 처음 선배가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점심이나 하자. 시간 괜찮지?"

"네, 좋아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배들이 손을 흔들며 멀어지자, 가영과 다희가 동시에 나를 붙잡았다. "너, 경영학과 캠퍼스 퀸이야? 방금 그 선배 너 완전 좋아하잖아!" 가영이 소리쳤다.

"눈빛부터 달랐어. 완전 반했던데." 다희도 신이 나서 거들었다.

"아니야, 그냥 인사한 거야."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두 사람은 부러움 반 놀림 반으로 한참을 놀려댔다.

신촌 민들레영토 1호점에 도착하자, 문 앞에서 하이디를 연상시키는 유니폼을 입은 도우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손님, 사랑합니다!"

문화비 삼천 원을 내고 안으로 들어서자, 유럽풍 인테리어와 아늑한 조명이 우리를 맞았다.

기본 음료는 무한 리필이었고, 민토 특유의 차와 컵라면까지 시켜놓을 수 있었다. 책장에는 만화책과 잡지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한쪽에서는 음악을 신청해 들을 수 있는 코너도 눈에 띄었다.

"여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카페인데 문화비만 내면 다 되잖아." 다희가 신기해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민들레영토잖아. 여기 자체가 하나의 영역인 거지." 가영이 컵라면 뚜껑을 열며 웃었다. "돈 걱정 안 하고 몇 시간이고 죽칠 수 있어서 다들 여기 좋아하나 봐."

"아까 그 선배 얘기나 좀 더 해봐." 다희가 다시 화제를 돌리며 눈을 반짝였다.

"됐어, 그보다 가영이 너는 요즘 마음에 두는 사람 없어?" 나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가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마음에 두기는 무슨, 없어."

"방금 얼굴 빨개진 거 봤어." 다희가 놓치지 않고 짚었다. "학회에 누구 있지, 그렇지?"

"그, 같은 학회 선배가 있긴 한데....." 가영이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다. "판소리 세미나 발표 때마다 자꾸 내 자료만 챙겨봐 주고, 저번엔 원전 복사본까지 따로 챙겨줬어."

"그거 완전 관심 있는 거잖아!" 다희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모르겠어, 그냥 후배라서 챙겨주는 걸 수도 있고." 가영이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몇 학번인데?" 나는 컵라면 국물을 뜨며 물었다.

"93학번. 방언 연구로 유명한 분이야. 학회에서도 다들 인정하는 실력자고." 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발표 준비할 때마다 자료 정리하는 법도 꼼꼼히 알려주고, 어려운 원전 해석도 막히면 바로 도와줘."

"근데 왜 너한테만 그렇게 챙겨줘?" 다희가 눈을 반짝이며 다그쳤다.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지난주에는 세미나 끝나고 집 가는 길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 가영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그냥 방향이 같아서 그런 거겠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선배 집은 잠실이었어."

"야, 그거 완전 데려다준 거잖아!" 나는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쳤다.

"그런가?" 가영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컵라면 뚜껑을 만지작거렸다. "나도 계속 신경 쓰이긴 하는데, 학회 안에서 괜히 소문나면 곤란하니까 애써 티 안 내려고 했어. 근데 너희한테 말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다."

"야, 너도 사람이었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둘 다 나만 놀리지 말고, 다음에 그 선배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줘." 다희가 장난스럽게 조르자 가영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컵라면 국물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셋은 한참을 더 그 얘기로 웃고 떠들었다. 스무 살의 어느 하루답게 환하고 소란스러운 저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자리를 정리하고 민들레영토를 나설 즈음엔 어느새 거리에 어둑한 밤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지하철역 앞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려는데, 몇 걸음 앞서가던 가영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참, 유진아." 대수롭지 않은 투였다. "오빠 요즘 좀 이상해. 며칠 전부터 계속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더라고. 밥 먹다가도 넋 놓고 있고."

"그래?" 나는 애써 심상한 척 되물었다.

"몰라, 무슨 고민 있나 봐. 혹시 너한테는 무슨 말 없었어?" 가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나한테 무슨 말을 해. 그냥 좀 피곤한가 보지." 나는 웃으며 손을 휘휘 저었다.

"그런가." 가영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몸을 돌려 손을 흔들었다. "간다, 주일에 교회에서 봐."

가영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던진 그 한마디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내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16화 끝]

17화 종이컵의 온기와 선우의 낯선 표정

학생회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며칠 전과는 조금 달랐다.

그날 신촌 거리에서 마주쳤던 학과 선배들의 얼굴이 아직 머릿속에 선명했다. 스치듯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던 그 자리에서, 도윤 선배는 헤어지기 직전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었다.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점심이나 하자."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틀 뒤 정말로 학과 게시판에 붙은 내 이름 옆으로 쪽지가 꽂혀 있었다. 목요일 점심 12시, 학생회관 2층.

두꺼운 경제학원론 원서를 품에 안은 채 계단을 오르며, 나는 낯선 감각을 곱씹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온 신경은 오빠의 동선을 헤아리는 데 쏠려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그와 상관없는 곳에 마음이 가 있었다.

원서의 두꺼운 표지 모서리가 팔 안쪽을 눌렀다. 그 익숙한 무게감이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학생회관 2층 부빌샘에는 이미 넷이 모여 있었다. 도윤 선배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왔어? 여기 앉아."

성재 선배는 창가 자리에서 말없이 신문을 접고 있었고, 준형 선배는 의자를 뒤로 밀며 다리를 꼬았다. 서인 언니는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며 나를 불렀다.

"유진이 너, 저번에 노천극장 정기공연 그거 봤는데." 도윤 선배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

다. "1학년이 세컨 신디 자리 꿰찼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직접 보니까 좀 놀랐잖아."

"그냥 옆에서 코드만 거들었어요." 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들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코드만 거든다는 게 아무나 되는 줄 아나." 성재 선배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덧붙였다. "박자 하나 어긋나면 다 티 나는 자리잖아."

"맞아, 나도 그때 좀 놀랐어." 서인 언니가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1학년 애들 보통 그런 무대에 못 서잖아. 새내기 때는 다들 겁먹고 뒤에서 구경만 하는데."

낯선 종류의 시선이었다. 캠퍼스 퀸이라는 말도, 예쁘다는 칭찬도 익숙했지만 이런 식의 인정은 처음이었다. 나는 괜히 원서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고 보니까." 서인 언니가 문득 생각난 듯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1학년 때 딱 너만 했거든. 근데 그때는 완전 겉돌았어. 과 사람들이랑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강의만 듣다 집에 가고.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다."

"언니도 그랬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응. 그래서 너 보면 신기해. 벌써 자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서인 언니가 옅게 웃었다. "동아리에서도 인정받고, 학점도 챙기고. 어떻게 그게 다 되는지 모르겠어."

"저도 사실 처음엔 하나도 안 그랬어요. 그냥 정신없이 끌려다닌 거예요."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손에 든 교재를 고쳐 안았다.

"에이, 겸손은." 서인 언니가 손사래를 쳤다. "끌려다니는 애가 정기공연 무대에 서고 스터디 제안까지 받겠니. 너 자신을 좀 믿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기만 했다. 낯설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었다.

말없이 신문을 넘기던 성재 선배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도윤이 너 아까 하려던 얘기 마저 해."

도윤 선배가 기다렸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 2학년 되면 스터디 하나 만들 건데, 너도 낄래?"

"스터디요?"

"경영전략이랑 회계 기초 위주로. 다들 학점도 챙기고 나중에 취업 스펙도 쌓을 겸." 도윤 선배가 어깨를 으쓱했다. "너 정도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릿속이 잠깐 멍해졌다. 지난 일 년, 나의 모든 계획표에는 오직 한 사람의 좌표만 찍혀

있었다. 동아리 연습 시간, 청년부 예배 시간, 그가 있을 법한 자리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그와 전혀 상관없는 좌표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다.

"생각해볼게요."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으로 애먼 것만 매만졌다.

"천천히 생각해." 준형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야, 근데 나 커피 좀 뽑아올게. 유진이 너도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준형 선배가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두런두런 얘기를 이어갔다. 잠시 후 돌아온 준형 선배가 종이컵에 담긴 율무차 하나를 내 앞에 톡 내려놓았다.

"근데 진짜, 너 처음엔 그냥 예쁘장한 새내기인 줄 알았거든." 준형 선배가 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만만한 애가 아니더라. 1년 내내 지켜봤는데 은근 독하잖아."

"저 안 독해요!" 나는 억울한 척 항변했다. "그냥 할 건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독한 거야." 준형 선배가 낄낄 웃으며 자기 종이컵을 마저 비웠다. "보통 1학년들은 그것도 못 하거든."

주변에서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종이컵의 미지근한 온기를 손끝으로 감싸 쥔 채, 그 웃음소리 사이에서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일 년 내내 혼자 쌓아온 것들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말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종이컵 가장자리에 서린 김이 손끝을 스치며 흩어졌다. 그 온기가 지금 이 순간을 오래도록 붙잡아두려는 듯했다.

이야기는 한참 더 이어지다가, 다음 수업 시간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다들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나는 교재와 캔커피를 챙겨 들고 동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방 문을 열자 낯익은 실루엣이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선우 오빠였다. 낡은 통기타를 무릎에 얹은 채 연주를 하다가, 나를 보고는 짧게 고개를 들었다.

"어, 유진이 왔네."

"오빠, 나 오늘 있잖아." 나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다. "학과 선배들이 나 정기공연 봤다면서, 신디 잘 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2학년 되면 스터디도 같이 하재."

말이 저절로 빠르게 쏟아져 나왔다. 오빠는 기타 줄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잘됐네." 오빠가 짧게 웃었다. "네가 열심히 한 거 다들 알아본 거지 뭐."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늘 그랬듯 대견해하는, 어릴 때부터 나를 봐온 사람 특유의 다정함이었다. 나는 그 익숙한 온기에 잠시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오빠의 시선이 조금 이상했다. 웃고는 있는데, 어딘가 나를 낯설게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의 표정을 살피듯이.

"그 스터디, 누구랑 하는 건데." 오빠가 대수롭지 않은 척 물었다.

"경영학과 선배들. 도윤 선배라고, 성재 선배랑 서인 언니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네." 오빠가 짧게 중얼거렸다.

"우리과 선배들이니까 오빠가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지."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나도 오빠 아는 사람들 다 모르는데."

오빠는 픽 웃다가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장난이고, 진짜 몸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학점에 동아리에 스터디까지 겹치면 너 또 무리할 거잖아." 평소와 다르게 진지해진 말투였다.

"알았어, 조심할게." 나는 그 낯선 걱정이 싫지 않아 짧게 웃어 보였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기타 줄로 시선을 내렸다. 손끝이 줄 위에서 잠깐 멈춰 있었다.

"나 이제 가봐야 돼. 다음 수업."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고쳐 멨다. "커피 나눠 마실래? 남은 거 있는데."

"됐어. 어서 가."

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근데 저녁은 먹었어?"

이상한 질문이었다. 이제 겨우 점심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나는 돌아보며 웃었다. "아직 저녁시간도 아니잖아. 나 진짜 가야 돼, 늦었어."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나는 이미 복도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등 뒤에서 오빠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동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종합관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서 있었다. 다음 수업까지는 아직 십 분 남짓 여유가 있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부스 안으로 들어섰다.

동전을 넣고 가영의 삐삐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끝나자 짧은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빠르게 메시지를 남겼다.

"나야.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녁에 7시 넘어 집에 있을 거니까 시간 되면 전화 줘."

메시지를 남기고 나니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얼른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독 가벼웠다.

그날 저녁, 집 전화벨이 울린 건 저녁 설거지를 막 끝냈을 무렵이었다. 나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삐삐 음성 들었어. 무슨 일이야?" 가영의 목소리였다.

"어, 전화 줘서 고마워." 나는 수화기를 고쳐 잡으며 방 안 의자에 걸터앉았다. "나 스터디 제안받았어. 경영학과 선배들한테. 2학년 되면 같이 하재."

"오, 대박. 축하해!" 가영이 반색했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좋은 일이지."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결국 별거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다. "근데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반응이 좀 이상해서. 처음 듣는 이름들이라 낯설다고 하고, 갑자기 저녁은 먹었냐고 묻고. 뜬금없지 않아?"

수화기 너머로 가영이 잠깐 침묵했다. "그야... 너 신경 쓰이니까 그런 거 아냐?"

"에이, 그냥 동생 걱정이지 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동생은 무슨." 가영이 피식 웃는 기척이 느껴졌다. "됐고, 아무튼 스터디는 진짜 잘됐다. 너 요즘 보면 진짜 딴 사람 같아. 1학기 때만 해도 맨날 동방 얘기, 교회 얘기뿐이었는데."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딴 사람 같다는 말이 반갑기도 하고, 조금은 낯설기도 했다.

"그런가." 나는 괜히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았다 풀었다 하며 웃었다. "나도 요즘 그런 것 같아. 예전엔 하루 종일 한 사람 생각만 했는데, 요즘은 신경 쓸 게 많아져서 오히려 정신이 없어."

"그게 정상인 거야." 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튼 축하해. 끊는다, 나 엄마가 저녁 먹으래!"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영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딴 사람 같다는 말과, 오빠의 낯설다는 말이 묘하게 겹쳐 들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세계가 조금씩 넓어

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방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 어느새 캄캄해진 밤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17화 끝]

18화 도서관 목록카드와 엿들은 야구 이야기

가방 안에는 며칠 전 처음 받은 회계원리 교재가 아직 낯설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꺼운 표지의 서늘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마다 아직 완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서야, 다시 동방에 들를 여유가 생긴 참이었다. 문을 열자 신디사이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선우 오빠가 짧게 고개를 들었다.

"오빠, 나 오늘 스터디 첫 모임 가봐." 나는 가방을 고쳐 메며 말했다. "그냥 한번 파악만 해보는 거야, 아직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 그래." 오빠는 기타 줄을 고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꾸했다. 평소라면 뭐라도 한마디 더 붙였을 텐데, 오늘은 그 흔한 안부조차 없었다.

손끝이 줄 위에서 유독 오래 머물러 있다는 걸 문득 느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몸을 돌렸다.

경영관 빈 강의실에는 이미 도윤 선배와 성재 선배, 준형 선배, 서인 언니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낡은 책상 위로 계산기와 프린트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들었다.

"왔어? 여기 앉아." 도윤 선배가 손짓하며 프린트물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다. "오늘은 그냥 우리가 뭘 준비하는 건지부터 대충 설명해줄게."

"결론부터 말하면." 성재 선배가 안경을 슬쩍 밀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 반이랑, AICPA 준비 반 둘로 나뉘어 있어."

"에이씨피에이요?"

"미국 공인회계사." 서인 언니가 웃으며 덧붙였다. "요즘 학과 선배들 사이에서 은근히 붐

이야. IMF 이후로 다들 외국계 쪽 자격증에 눈독 들이잖아. 국내 CPA는 시험 범위가 넓고 경쟁도 치열한데, AICPA는 과목별로 쪼개서 응시할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낮거든."

"저 같은 1학년도 준비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오히려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해." 도윤 선배가 어깨를 으쓱였다. "회계원리부터 시작해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까지. 이게 기본 뼈대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까지들 하는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 선배의 표정이 잠깐 진지해졌다. "작년에 우리 학번 선배들 취업하는 거 옆에서 봤거든. IMF 터지고 나서 대기업 공채가 반의 반토막이 났어. 그나마 남은 자리도 다 스펙 싸움이고."

"회계나 재무 쪽은 그래도 실무 자격증이 있으면 어디서든 먹히잖아." 성재 선배가 담담하게 덧붙였다.

"국내 대기업이 안 뽑으면 외국계로 가야 하는데, 거기는 AICPA 하나 들고 있으면 서류에서부터 얘기가 달라져."

서인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다들 2학년 때부터 이러고 있는 거야. 예전엔 학점만 챙기면 됐다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프린트물 여백에 조용히 밑줄을 그었다. 오빠를 향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절박함이 이 방 안에 있었다.

준형 선배가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끼어들었다. "야, 근데 1학년 때 이런 거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진짜 편해. 우리도 다 뒤늦게 시작해서 고생하는 거야."

낯선 용어들이 프린트물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회계원리, 재무제표, 차변과 대변. 지금까지 내가 세워온 계획표에는 늘 한 사람의 이름만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자리에 낯설고 구체적인 목표 하나가 끼어들고 있었다.

그 생소함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손으로 프린트물의 모서리를 가만히 문지르며, 나는 그 낯섦을 천천히 눌러 삼켰다.

스터디가 끝나고, 나는 AICPA 관련 참고자료를 더 찾아볼 생각으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특유의 종이 냄새와 싸늘한 공기가 콧속으로 밀려들었다. 서가 배치를 몰라 이리저리 헤매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뭘 그렇게 찾아?"

돌아보니 상혁 선배가 두꺼운 법전을 옆구리에 낀 채 서 있었다. 동아리 회장이자 사법

고시 준비생인 그는 평소 무뚝뚝하고 어려운 존재였다. 안경 너머의 눈빛만은 늘 예리했지만, 말을 붙이기에는 늘 한 발짝 거리가 있었다.

"AICPA 관련 자료 좀 찾으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조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건 경영 서가 쪽이야." 상혁 선배가 목록카드함 쪽으로 걸어가며 손짓했다. "나는 아직 이 카드가 손에 익어서 이걸로 먼저 찾긴 하는데."

그는 서랍을 열어 익숙한 손길로 카드를 넘겼다. 빛바랜 카드 위에 손으로 눌러쓴 도서 분류 번호들이 빼곡했다. 종이 특유의 마른 냄새가 옅게 풍겼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르긴 해." 상혁 선배가 옆 단말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몇 초 만에 서가 위치가 떴다. "전산으로 검색하면 지금 대출 중인지 아닌지도 바로 나오거든. 그래도 카드로 훑는 게 왠지 마음이 놓여서."

"예전엔 이 카드 하나 찾으려고 서랍을 몇 개씩 뒤졌어." 상혁 선배가 카드함 손잡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분류 번호 하나 잘못 짚으면 완전히 엉뚱한 서가로 가버리거든. 근데 전산은 제목 두 글자만 쳐도 다 나오니까, 확실히 세상이 빨라지긴 했어."

카드를 넘기던 그의 손이 문득 멈췄다. "이 카드 얘기하니까 갑자기 러브레터라는 영화 하나 생각나네. 일본 영화인데, 아직 정식 개봉은 안 됐거든. 동아리 선배 하나가 일본 갔다 오면서 비디오 구해온 거, 학회 상영회에서 자막도 없이 본 적 있어."

"그게 도서관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도서관 대출카드 뒷면에다 그림을 잔뜩 그려놓은 걸 나중에 발견하는 얘기였거든. 그 장면 보고 나서부터 나는 이 카드함 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럼 이제 이 카드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아냐. 전산 자료가 다 옮겨지려면 몇 년은 걸린다더라."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나는 이 카드 뒤적이는 시간이 좋아. 고시 공부만 하다 보면 머리가 딱딱해지는데, 이렇게 손으로 뭘 찾다 보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거든."

늘 무뚝뚝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선배였다. 그런 그가 낡은 도서 카드함과 새로 도입된 컴퓨터 단말기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며 설명해 주는 모습은 꽤나 낯설었다.

이번 정기공연 때 내가 세컨 신디를 치던 곡의 보컬로 합을 맞췄던 일 외에는, 무대 뒤편에서 후배들을 가만히 지켜볼 때나 얼핏 비치던 따뜻함이었다.

그 묵직한 다정함이 지금 이 서가 사이에서도 은은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뜻밖의 온기를 눈에 담으며, 상혁이라는 사람이 실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고 여러 겹의 결을 품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찾아 나오는 길, 상혁 선배와 나란히 동방 쪽으로 걸었다. 늦은 오후의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1학년이 벌써 그런 자격증 준비하고, 기특하네." 상혁 선배가 짧게 웃었다. "나는 총학생회 좀 들렀다 갈게. 먼저 가."

갈림길에서 상혁 선배와 헤어지고, 나는 혼자 동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방 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틈새로 낯선 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수 언니였다. 늘 듣던 특유의 콧소리 섞인 애조 띤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진지한 음성이었다. 나는 문손잡이를 쥐려던 손을 나도 모르게 멈춰 섰다.

"오빠, 박찬호 이번 시즌 진짜 대박이더라. 34경기 선발 나가서 15승이면 작년보다 훨씬 안착한 거잖아."

"응, 방어율도 3점대 중반까지 내려갔지. 7월에는 거의 매 경기 승리투수 됐어." 오빠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활기가 묻어났다. "다저스타디움 홈 11연승 했던 거 알아? 허샤이저 기록 바로 턱밑까지 간 거였는데."

"피아자 트레이드되고 팀 분위기 난리 났을 때 아니야? 셰필드에 보닐라까지 들어오고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그 와중에 그 성적이면 진짜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노모까지 잘려 나가는 마당에 팀 중심 딱 잡고 이닝 끌어준 거 보면 보통 독종이 아니야."

"근데 오빠는 언제부터 그렇게 야구를 열심히 봤어? 원래 축구파였잖아." 지수 언니가 물었다.

"94년에 찬호 박이 다저스 입단했을 때부터. 딱 나 새내기 때였지." 오빠의 목소리가 조금 나지막해졌다.

"마운드에 서 있는 거 하나만 봐도 괜히 가슴이 벅찼거든. 작년 겨울에 나라 터지고 나서부터는 다들 새벽마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그거 보는 맛에 살았잖아."

"그니까 말이야. 우리 아빠도 요즘 박찬호 중계 없으면 잠을 못 주무셔." 지수 언니가 쌉싸름하게 웃었다. "다들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꼴이 보고 싶은 거지."

오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안에는 단순한 야구 팬심이 아닌, 이 시대를 함께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만 아는 무거운 공감이 담겨 있는 듯했다.

"오빠도 야구 얘기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다." 지수 언니가 낮게 웃었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본 오빠의 얼굴은, 방어 없이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한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늘 나에게 보여주던 나른하고 다정한 미소도 아니고, 지수 언니의 노골적인 스킨십을 능숙하게 피할 때의 그 여유로운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하게 무언가에 빠

져든 얼굴이었다. 나는 손잡이를 쥔 채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이쪽을 향했다.

"어, 유진이 왔네." 지수 언니가 여유롭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조금의 동요도 없는 매끄러운 태도였다.

오빠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옅은 아쉬움이 눈가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수 언니의 존재는 늘 노골적이었다. 팔짱을 끼고, 콧소리를 내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빠 곁을 파고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최소한 그 노골적인 방식만큼은 이길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내가 한 번도 줄 수 없었던 어떤 것을, 그녀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나누고 있었다. 애교도, 스킨십도 아닌, 그냥 대등하게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나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다.

손끝까지 떨림이 번져 나가는 걸 숨길 수 없었다.

방금 들은 두 사람의 편안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눌어붙어,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조여왔다.

"나는 이만 가볼게요." 지수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다. "다음에 또 얘기해요, 오빠."

문이 닫히고, 동방 안에는 나와 오빠 둘만 남았다. 어색한 정적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둘이 되게 잘 통하나 보다." 나는 참지 못하고 툭 내뱉었다.

오빠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이다가, 이내 삼키며 애매하게 웃어넘겼다. 그 미완성된 웃음이, 방금 전 지수 언니와 나누던 활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로 내 가슴 한쪽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만, 방금 목격한 그 낯선 얼굴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무거운 마음을 안은 채 동방을 나섰다. 학생회관 계단을 내려오는데, 주머니 속 삐삐가 짧게 울렸다. 액정에 뜬 번호는 가영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음성사서함 버튼을 누르자, 틱 하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 정유진! 나 가영이. 너 요즘 교회 왜 이렇게 안 보여? 학교 일로 많이 바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 문학의 밤 하는 건 알고 있지? 이번에 오빠가 맡은 일이 많은가 봐. 와서 함께 하자.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짧게 끊어진 음성메시지였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오랫동안 귓가를 맴돌았다. *'오빠가 이번에 하는 일이 많은가 봐.'* 가영이 무심하게 던진 그 말이, 조금 전 동방 안에서 목격한 선우 오빠의 낯선 표정과 묘하게 겹쳐 들렸다.

찰칵,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는 가슴 한구석에 남은 옅은 미련을 애써 다음 주로 밀어 넣어두었다.

[18화 끝]

19화 성탄 트리 조명과 수진이 붙잡은 팔

찬 바람이 뺨을 매섭게 할퀴고 지나갔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된 첫날, 나는 교회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가영에게 삐삐 음성메시지로 '문학의 밤' 이야기를 들은 지도 어느새 두 주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역할 배정은 진작 끝났고, 다들 맡은 자리에서 한창 손발을 맞춰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 2주 동안 유독 딴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동방에서 목격했던 그 낯선 장면, 지수 언니와 아무렇지 않게 야구 이야기를 주고받던 선우 오빠의 얼굴이 자꾸만 잔상처럼 맴돌았다. 시험 기간 내내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놓고도 정작 눈에 들어오는 건 그 낯선 온기뿐이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청년부실 창문 너머로 성탄 트리의 꼬마전구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유리창에 서린 김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 창문 너머로 안쪽의 온기가 어렴풋이 번져 나왔다. 나는 코트 옷깃을 바짝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다.

교육관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요한 전도사님이 큐시트를 옆에 차고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고, 선우 오빠는 그 옆에 서서 아이들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었다.

"자, 다들 왔으니까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준비한 거 점검해보자." 선우 오빠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교육관을 채웠다.

"문학의 밤 순서는 찬양으로 열고, 그다음 성극, 낭독 순서로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다 같이 캐럴 부르면서 마무리할 거야."

선우 오빠가 큐시트의 순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덧붙였다. "중간에 붕 뜨는 시간 없이 매끄럽게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낭독은 성극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거야?" 가영이가 손을 들며 물었다.

"그렇지. 무대 조명 넘어가는 그 짧은 틈에 바로 이어붙일 거야." 선우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성극 파트는 대사 다 외웠고, 찬양 파트도 얼추 맞춰졌지?" 강요한 전도사님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네, 얼추요." 가영이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애들도 이제 제법 자기 대사 다 외웠어요."

가영이 옆에는 다희가 색색의 도화지와 색테이프를 잔뜩 늘어놓고 앉아 있었다.

"저는 배경 소품 거의 다 됐어요. 이번 주 안으로 다 마무리지을게요." 희가 바닥에서 완성된 소품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별 모양으로 오려낸 은박지 장식과 전지에 매직으로 그린 마구간 배경 그림이 둘둘 말려 있었다. 이거 무대 뒤에 걸어놓으면 딱일 것 같지 않아?"

"우와, 진짜 잘 그렸다." 강요한 전도사님이 그림을 넓게 펼쳐보며 감탄을 내뱉었다.

"다희야, 미대 가더니 확실히 손끝이 다르네." 수진 언니가 칭찬을 더했다.

"이 정도야 뭐, 껌이죠." 다희가 으쓱하며 그림을 다시 둘둘 말아 정리했다.

한편 소연 언니는 큰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지난 2주 동안 유아부 아이들과 정이 듬뿍 든 듯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부르며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때, 교육관 문이 덜컥 열렸다.

"어, 미라야!"

다희가 문 쪽을 바라보며 반갑게 소리쳤다.

"너 수능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

"아, 미안 미안. 나 없는 동안 진짜 많이 진행됐지?"

미라가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고 들어왔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몇 달간 독서실에 틀어박혀 있던 사람답게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수능을 마친 눈빛만

큼은 더없이 홀가분해 보였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다 설명해 줄게."

가영이가 미라의 팔짱을 끼며 자연스럽게 자리로 이끌었다.

"너는 그냥 낭독 파트만 맡아주면 돼. 대본 여기 있어."

나는 신디사이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얹으며 오늘 맞춰볼 찬양 곡을 훑어보는데, 시야 한 켠으로 수진 언니가 자연스럽게 선우 오빠 옆자리에 앉는 게 보였다.

벌써 2주째 반복되는 광경이라 다들 무덤덤하게 넘겼지만, 나는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찬양 파트 연습이 끝나고 잠깐의 쉬는 시간, 나는 미라 옆으로 다가갔다. 미라는 낭독 대본을 손에 쥔 채 어색하게 글자만 훑어보고 있었다.

"긴장돼?" 나는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어, 완전. 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미라가 멋쩍게 웃으며 대본을 내려놓았다. "몇 달을 독서실에서 문제집만 보다가 갑자기 이런 거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져."

"그럼 나랑 한번 맞춰볼래?" 나는 대본을 함께 펼쳤다. "여기, 이 문단부터."

미라가 떠듬떠듬 첫 문장을 읽었다. 목소리가 낮고 자신 없었다.

나는 조용히 다음 문장을 이어 읽어주며 리듬을 잡아주었다.

"그래, 딱 그 톤이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읽어."

몇 번을 거듭하자 미라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붙었다.

"야, 이거 은근 재밌다." 미라가 피식 웃으며 대본을 고쳐 잡았다.

"수능 끝나고 성적 나올때까지 계속 방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뭐라도 하니까 좀 살 것 같아."

"그동안 고생했어." 나는 미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맙다. 근데 너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 없는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나 보네." 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지수 선밴가 뭔가 하는 사람 얘기도 좀 해줘봐."

나는 애매하게 웃어넘기며 대본으로 시선을 돌렸다. 굳이 지금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자, 그럼 성극 파트부터 맞춰볼까." 선우 오빠의 말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극 연습을 위해 가영이가 초등부 아이들을 데려와 대본을 맞춰보고 있었다.

"자, 요셉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했지?" 가영이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며 물었다.

"길이 없어도, 우리는 갈 거예요!"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대사를 외쳤다. 서투르지만 자신 있는 목소리였다.

"잘했어!" 가영이 활짝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2주 전만 해도 대사를 반쯤 잊어버리고 우물쭈물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손발이 맞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잠깐 아이들 옆에 앉아 대사를 맞춰주는 걸 도왔다. 아이 하나가 대사를 잊어버리고 울상을 짓다가, 옆에서 친구가 살짝 귀띔해주자 다시 씩씩하게 이어가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 사이에서, 지난 2주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마음이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소연 언니는 구석에서 유아부 꼬마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색종이를 접어주고 있었다. 조용한 성격답게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길은 그 어떤 어른보다 야무지게 아이를 다독이고 있었다.

"유진 쌤, 나 잘했어요?" 아까 대사를 맞춘 아이가 내 손을 잡아끌며 물었다.

"진짜 잘했어."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이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가슴 한쪽을 짓누르던 무게가 잠시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과의 연습을 마치고 성극 본 연습이 시작됐다. 수진 언니가 마리아 역을 맡아 무대 중앙에 섰고, 선우 오빠는 반주를 맡아 기타를 잡고 있었다.

"오빠, 나 이 대목에서 조명 자리 좀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수진 언니가 대본을 짚으며 자연스럽게 선우 오빠 쪽으로 다가섰다. "여기서 오빠 반주랑 타이밍 맞춰야 하니까, 좀 더 붙어 서야 하지 않을까?"

2주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을 것이다. 다들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눈치였지만, 나는 신디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그 광경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어, 그건 연습 하면서 맞춰보자." 오빠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기타 줄을 골랐다.

수진 언니는 그 대답을 은근한 허락으로 받아들인 듯, 대본을 든 채로 슬쩍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게. 어색하면 그때 말해."

연습이 시작되고, 수진 언니는 대사 한 줄이 끝날 때마다 조명 위치를 조금씩 옮기며 조금씩 오빠 쪽으로 다가갔다. 처음엔 한 걸음, 다음엔 반 걸음.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접근이었지만, 다들 연습에 집중하느라 그걸 짚어내는 사람은 없었다.

소연 언니와 미라가 서로 곁눈질을 주고받는 게 보였다. 미라가 낮게 속삭였다. "저 언니 원래 저래?" 소연 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저래도 되나?" 미라가 다시 소곤거렸다. "너무 티 나는데."

나는 대답 없이 건반을 매만졌다. 손끝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연습이 이어지면서, 수진 언니는 결국 조명 위치를 핑계로 선우 오빠 바로 옆까지 다가섰다. 팔이 스칠 듯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건반에서 손을 뗐다. "언니, 그 자리에서 조명 받으면 마이크 각도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수진 언니가 나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런가? 그럼 오빠가 좀 맞춰줘."

"자리 바꾸자." 오빠가 자연스럽게 큐시트를 펼쳐 수진 언니 쪽으로 내밀며 몸을 슬쩍 옆으로 옮겼다. "여기 순서 보면, 네 위치는 이쪽이 맞아."

그 유연한 몸짓 하나로, 오빠와 수진 언니 사이의 거리가 다시 벌어졌다. 나는 애써 무심한 척 건반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가슴 한쪽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긴장이 그제야 조금 느슨해졌다. 신디 건반 위에 얹어둔 손끝에서도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다.

"자, 다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선우 오빠가 큐시트를 덮으며 연습을 마무리했다. "다음 주엔 의상까지 맞춰볼 거니까, 다들 컨디션 관리 잘 하고."

다들 짐을 챙기며 하나둘 흩어졌다. 나도 신디 덮개를 씌우고 가방을 챙기는데, 문득 교육관 밖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잠깐만." 수진 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성탄 트리 장식이 반짝이는 창가에서 수진 언니가 오빠의 팔을 잡고 있었다. 화려한 액세서리가 트리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트리 전구가 깜빡일 때마다 그 반짝임이 복도 벽에 어지러운 그림자를 던졌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각도에서 내 눈에 들어온 건 오직 하나, 수진 언니가 오빠의 팔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가방끈을 고쳐 쥔 채,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2주 동안 애써 못 본 척해온 것들이, 결국 이 복도 끝 장면 하나로 고스란히 되돌아온 기분이었다. 조금 전 연습에서 자리를 바꿔주던 오빠를 보며 잠깐 놓았던 마음이, 순식간에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걸 바라보며, 나는 애써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하루 쌓아온 안도감이, 그 짧은 장면 하나에 통째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성탄 트리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19화 끝]

20화 텅 빈 예배당과 소연의 눈물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 마음을 누르며 교육관 문을 열었다. 수진 언니가 선우 오빠의 팔을 붙잡고 있던 그 모습이, 오늘까지도 잔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다.

안은 이미 리허설 준비로 분주했다. 구석에서는 소연 언니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악보를 정돈하고 있었다. 종이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는 정갈하다 못해 결벽에 가까운 그 손길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눈에 박혔다.

"담임목사님 기도로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선우 오빠의 안내에 따라 담임목사님이 문학의 밤 리허설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리허설의 막이 올랐다.

찬양 파트를 맞추는 동안, 나는 신디사이저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무심코 소연 언니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시선이 이상했다. 언니의 눈은 악보가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 쪽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

늘 존재감이 없다시피 조용하던 사람이었다. 찬양팀 안에서도 그저 리듬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베이스 소리로만 존재를 드러내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애틋한 눈빛은, 눈에 띄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써온 것치고는 지나치게 선명했다.

나는 처음으로 소연 언니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찬양 연습이 잠시 끊긴 사이, 나는 옆에 앉은 가영이에게 조용히 소곤거렸다. "가영아, 소연 언니 말이야... 원래 저렇게 조용했어?"

가영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소리 없이 낮췄다. "우리가 언니 본 지도 꽤 됐잖아. 언니 중고등부 때도 계속 저랬어. 다만 요한 전도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유독 말수가 줄었다고 언니들이 그러더라고."

"혹시... 다들 눈치채고 있는 거야?"

"어렴풋이는. 근데 아무도 대놓고 말은 안 해. 언니가 워낙 티를 안 내니까." 가영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다들 모르는 척해주는 거지, 뭐. 굳이 들춰내서 좋을 것도 없잖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소연 언니 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악보를 정리하고 있는 그 옆모습이, 조금 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근데 너 갑자기 왜 물어봐?" 가영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오늘따라 좀 다르게 보여서." 나는 애매하게 웃어넘겼다.

가영은 더 캐묻지 않고 다시 악보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아무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혼자 짊어져야 하는 무게인지 어렴풋이 가늠해보았다.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단 한 번도 티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리허설 중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구석에서 여전히 악보를 정리하고 있는 소연 언니에게 다가갔다.

"언니, 저도 도와드릴까요?"

"어, 고마워." 언니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짧게 답하며 악보 뭉치를 반쯤 건네주었다.

악보를 정리하다가, 갈피 사이에 끼워진 낡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류시화 시집에서 오려낸 듯한 페이지였다. 연필로 옅게 밑줄이 그어진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

"아, 그냥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언니가 담담하게 종이를 다시 가져가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언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러곤 아주 옅게, 거의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답했다. "말한 적 없어.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게 다야."

그 이상으로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눌러 담겨 있는지, 그 절제된 말투가 얼마나 많은 밤을 대신하고 있는지.

나는 그 순간 낯설게도, 먼 훗날의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좋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

문득 궁금해졌다. 얼마나 오래 이 마음을 혼자 눌러왔을까. 몇 달일까, 아니면 몇 년일까. 언니의 담담한 표정에서는 그 시간의 길이를 짐작할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다.

"언니는 그럼... 어떻게 견뎌요?" 나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견딘다기보다는." 언니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침묵했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데리고 사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 말이 유난히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데리고 사는 법을 배운다는 말이, 지금의 나에게는 너무 아득하게만 들렸다.

"그거... 힘들지 않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물었다.

언니는 대답 대신 옅게 웃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슬프면서도 단단해 보였다.

리허설이 끝나고, 청년부 형제들 몇이 교회 공터에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다. 강요한 전도사님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사이에 끼어 골대를 향해 뛰었다.

공이 골대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형제들의 거친 숨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엉켰다. 강요한 전도사님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공을 몰고 골대를 향해 뛰어들었다. 슛이 성공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졌다.

가영과 미라도 창가에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전도사님 농구 은근 잘하시네." 미라가 감탄하며 말했다.

"매주 저러셔. 청년부 형제들 사이에서 에이스로 유명해." 가영이가 웃으며 대꾸했다.

"근데 소연 언니는 왜 저기 혼자 앉아 있어?" 미라가 물었다.

나는 다희의 시선을 따라 공터 쪽으로 눈을 돌렸다. 벤치에 홀로 앉은 소연 언니의 뒷모습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원래 운동 안 좋아하잖아. 근데 늘 저렇게 구경은 하더라." 가영이가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창가에 서서 소연 언니의 뒷모습을 가만히 눈으로 좇았다.

농구가 끝나갈 무렵, 다희가 반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얘들아, 나 붕어빵 사 왔어!"

김이 펄펄 나는 종이봉투 가득 붕어빵을 담아온 다희가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 추위에 무슨 붕어빵이야. 완전 좋다!"

미라가 봉투에서 하나를 꺼내 덥석 베어 물었다. 요한 전도사님도 땀을 닦으며 다가와 붕어빵 하나를 받아 들었다.

"다희 자매 덕분에 오늘 입이 호사하네."

나는 붕어빵을 받아 들며 슬그머니 소연 언니 쪽을 살폈다. 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다희가 건넨 붕어빵을 그제야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받아 들었다.

그런데 언니는 자기 몫을 먹기도 전에, 옆에 앉은 유아부 꼬마 손에 먼저 붕어빵을 쥐여주고 있었다. 아이가 신나게 베어 무는 모습을 다정하게 지켜본 뒤에야, 언니는 제 몫을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사소한 순서 하나가 유독 눈에 밟혔다.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그 익숙한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뭘 그렇게 멍하니 봐." 선우 오빠가 실론티 캔을 내 이마에 갖다 댄 채 웃고 있었다.

"어, 언제 왔어?" 나는 화들짝 놀라며 캔을 받아 들었다.

"한참 됐거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길래." 오빠가 짧게 웃으며 내 옆에 걸터앉았다.

나는 대답 대신 캔의 미지근한 온기를 손끝으로 감쌌다. 오빠의 그 무심한 다정함과, 저 멀리 소연 언니의 쓸쓸한 뒷모습이 이상하게 겹쳐지며 마음 한구석이 조여왔다.

리허설이 완전히 끝난 늦은 저녁, 나는 놓고 온 물건이 있어 다시 본당으로 향했다. 예배당은 이미 불이 반쯤 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저 안쪽, 강대상 근처에서 나지막한 흥얼거림이 들려왔다. 소연 언니였다. 이번 문학의 밤 때 다 함께 연주하기로 한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였다. 언니는 잔잔한 선율을 조용히 흥얼거리며 악기 세팅을 정돈하는 중이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 눈가에 옅게 고인 물기가 보였다. 대단한 눈물은 아니었다. 그저 오래 눌러둔 마음이 아주 조금, 그 순간에만 삐져나온 흔적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감히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했다. 텅 빈 예배당의 정적이 그 순간만큼은 무겁게 느껴졌다. 소연 언니가 흥얼거리던 그 가사 없는 선율이, 어쩌면 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하는 유일한 언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강대상 위 십자가 그림자가 어스름한 조명 속에서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 홀로 서 있는 언니의 모습이, 유난히 작고도 단단해 보였다.

"미안, 놀랐지." 언니가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훔치며 옅게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텅 빈 예배당에 홀로 남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흥얼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걸어가게 될 미래 그 자체였다.

"언니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거예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언니는 대답 없이 그저 악보를 가지런히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그 침묵이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을 때에야, 참았던 숨이 길게 새어 나왔다.

다이어리를 펼쳤다. 매일 밤 선우 오빠의 동선을 빼곡히 적어 넣던, 그 익숙한 페이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몇 시에 동방에 있었는지, 누구와 마주쳤는지. 나는 그 페이지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소연 언니의 텅 빈 예배당 속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가지런히 정리된 악보처럼, 자신의 마음마저 단정하게 접어 넣은 채 살아가는 그 삶이.

나는 펜을 들어 다이어리 여백에 짧게 적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이어리를 덮었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다짐이, 처음으로 선명한 문장이 되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창밖으로 겨울밤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소연 언니의 옆모습과, 오늘 처음 들은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20화 끝]

21화 성탄 큐시트와 스치듯 닿은 어깨

오늘만큼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문학의 밤 당일 아침이었다.

어젯밤 다이어리에 꾹꾹 눌러썼던 한 줄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선명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텅 빈 예배당에 홀로 남아 있던 소연 언니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다잡았던 결심이,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실재하는 용기가 되어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고 시렸다. 입김이 하얗게 퍼지는 걸 보며, 나는 큐시트 뭉치를 품에 꼭 끌어안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만큼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가는 길 내내, 지난 가을 노천극장 무대 위에서 느꼈던 그 떨림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오빠 옆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벅찼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종류의 다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교회 교육관 문을 열자 벌써부터 분주한 열기가 느껴졌다. 트리 장식과 핀 마이크 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고, 다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마지막 점검에 한창이었다.

선우 오빠가 강요한 전도사님과 나란히 서서 두툼한 큐시트 뭉치를 짚어가고 있었다.

며칠 전 합주 시간을 쪼개어 성극과 캐럴, 꽁트 순서까지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은 그 종이였다. 조명 전환 지점, 반주가 들어가고 빠지는 타이밍,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고 내려가는 동선까지 빼곡했다.

"여기, 성극 끝나고 캐럴로 넘어가는 부분이요." 오빠가 큐시트 한구석을 손끝으로 짚으며 전도사님께 말했다. "조명 담당한테는 제가 미리 신호 줄 테니까, 유진이가 무대 옆에서 저 대신 애들 동선 좀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큐시트를 훑어보더니 감탄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짜뒀어? 선우 형제 덕분에 올해는 한결 수월하겠네."

오빠가 나를 향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네가 무대 옆에서 봐줘야 할 부분만 따로 정리했어. 성극 대사 놓치는 애들 챙기는 거랑, 마이크 타이밍."

나는 종이를 받아 들며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이 부분, 성극 끝나자마자 암전 없이 바로 캐럴 연결이죠? 그럼 서브 마이크 미리 켜두라고 전해야겠네요."

"어, 맞아. 딱 그거야." 오빠가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소품을 옮기던 다희가 다가와 내 어깨를 슬쩍 치며 소곤거렸다. "너네 둘 진짜 손발 착착 맞는다."

"그냥, 오빠가 다 짜둔 거 숟가락만 얹는 거지 뭐." 내가 겸손한 척 웃으며 종이를 다시 펼쳐 들자, 다희가 큭큭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찰떡 콤비네, 찰떡 콤비야."

공연 시작 직전, 무대의상을 담당했던 아이 하나가 산타 옷 단추가 떨어졌다며 울상을

지었다. 다들 정신없이 오가는 통에 미처 눈치채지 못한 문제였다.

나는 재빨리 가방에서 반짇고리를 꺼내 그 자리에서 단추를 다시 달아주었다. "자, 이제 다 됐다. 무대 나가서 씩씩하게 하고 와."

아이가 활짝 웃으며 무대 쪽으로 뛰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요한 전도사님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유진 학생, 반짇고리까지 챙겨 왔어?"

"혹시 몰라서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전도사님이 감탄한 듯 고개를 저었다. "이야, 진짜 준비성 하나는 알아줘야겠다."

선우 오빠가 그 옆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장면인데, 오늘따라 오빠의 시선이 유독 오래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나는 눈치채지 못한 채 다음 순서로 발걸음을 옮겼다.

스탭들 동선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성극팀 아이들이 대기하는 자리까지 챙기고 나니, 어느새 교육관 전체가 오빠가 짜둔 큐시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 한가운데서 손발이 되어 뛰고 있었다.

선우 오빠가 무대 장비를 점검하다 말고 나를 흘긋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평소와 조금 달랐다. 짧지만 어딘가 낯선 것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다.

최종 리허설을 위해 무대 뒤 좁은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핀 마이크 케이블이 어지럽게 늘어진 좁은 통로였다. 오빠와 나란히 몸을 붙여 서서 케이블 정리를 돕는데, 어깨가 스치듯 부딪혔다.

"어, 미안." 오빠가 짧게 몸을 물렸다.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닿았던 자리에서 시작된 열기가 손끝까지 고스란히 번져 있었다.

핀 마이크 케이블 사이로 희미하게 오빠의 비누 냄새가 스쳤다. 나는 애써 그 냄새를 지우려는 듯 케이블을 정리하는 손에 더 힘을 주었다.

좁은 통로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벽에 걸린 작은 손전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좁은 벽면 위로 길게 드리우고 있었다.

가을 무대에서 느꼈던 벅찬 감각과는 달랐다. 그때는 관객석을 향해 함께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사적이고 조마조마한 무언가가 이 좁은 통로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자, 다들 준비됐지? 시작하자." 강요한 전도사님의 목소리에 본 공연이 시작됐다.

성극 순서가 시작되자 나는 무대 옆에 서서 조명과 음향, 다음 순서까지 빠짐없이 챙겼다. 아이들이 대사를 잊고 우물쭈물할 때는 재빨리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 다음 대사를 유도했고, 오빠가 반주 타이밍을 놓칠 뻔한 순간에는 눈짓 하나로 정확한 박자를 짚어주었다.

오빠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을 무대에서는 내가 오빠의 리듬에 맞추는 게 다였는데, 오늘은 오빠가 내 신호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 낯선 역전이, 나 스스로도 이상하리만치 벅차게 다가왔다.

캐럴 순서로 넘어가는 전환 지점에서도, 나는 아이들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리 자리를 표시해둔 테이프 선까지 챙겨두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무대의 매끄러움을 좌우한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으로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오빠는 기타 반주를 이어가며 이따금 내 쪽으로 눈짓을 보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갈 타이밍, 박자를 살짝 늦춰야 할 지점, 그 모든 신호를 나는 놓치지 않고 받아냈다.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사람들처럼, 우리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캐럴이 끝나자 오빠는 기타를 무대 옆 스탠드에 가만히 세워두고 뒤로 물러났다. 이제부터는 반주 없이 아이들 힘만으로 채워야 하는 꽁트 순서였다.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로 분장하고 무대에 올랐다. 객석에서는 학부모들과 성도들이 카메라를 들고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대본을 맡은 아이 하나가 갑자기 대사를 잊어버리고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무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작은 얼굴에, 객석 여기저기서 옅은 웃음이 새어 나오려는 찰나였다.

나는 재빨리 무대 옆에서 손짓으로 다음 대사의 첫 단어를 입 모양으로 크게 보여주었다. 아이가 그 신호를 알아채고는 다시 씩씩하게 대사를 이어갔다. 객석에서 오히려 더 큰 박수가 터졌다.

"야, 저거 완전 자연스러운 애드립 같았어." 다희가 무대 옆으로 슬쩍 다가와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너 순발력 장난 아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도 비슷한 위기가 한 번 더 있었다. 루돌프 분장을 한 아이가 소품 뿔을 떨어뜨리고 당황하자, 나는 곧바로 무대 뒤에서 여분의 머리띠를 재빨리 챙겨 스탭 아이를 통해 전달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상황이 정리됐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그만큼 벅찬 성

취감이 밀려왔다.

선우 오빠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웃었다. "너 진짜 무대 체질인가 보다."

그 짧은 한마디가, 다른 어떤 칭찬보다도 크게 다가왔다.

성극이 끝나고 캐럴로 넘어가는 전환 지점, 나는 미리 준비해둔 큐사인으로 조명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조명이 정확한 타이밍에 바뀌었고, 아이들의 캐럴 합창이 매끄럽게 이어졌다. 무대 전체가 흔들림 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지켜보며,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완벽한 흐름에 몰입했다.

객석에서는 부모님들이 흐뭇한 얼굴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 벅찬 반응 속에서 오늘 하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다들 무대 뒤에서 서로를 얼싸안으며 환호했다. 나는 큐시트를 가슴에 안은 채 그 벅찬 열기 속에 서 있었다.

"수고했어." 오빠가 다가와 짧게 말을 건넸다. "오늘 진짜..."

말이 거기서 멈췄다. 오빠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이다가, 이내 시선을 슬쩍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진짜, 뭐?" 나는 그 어색한 정적에 되물었다.

"아니, 그냥... 잘했다고." 오빠가 짧게 대답하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칭찬 한마디가, 오늘따라 유독 어렵게 끝을 맺고 있었다.

그 낯선 머뭇거림을 눈치챈 순간,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귓불 끝까지 열이 오르는 게 느껴져, 나는 괜히 큐시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나는 뭐라도 말을 이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다. "오빠도... 오늘 진짜 든든했어."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떨렸다.

오빠는 대답 대신 그저 옅게 웃었다. 그 미소가 평소보다 오래 머물러 있었다.

주변에서 다들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 소란스러운 열기 속에서도, 나와 오빠 사이의 이 짧은 정적만큼은 유독 다른 공기로 채워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뜨리듯, 수진 선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오빠, 오늘 완전 최고였어요!" 수진 선배가 그대로 팔을 벌려 오빠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성탄 트리의 불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

위로 어지럽게 반짝였다. 오빠는 순간 당황한 듯 몸이 뻣뻣하게 굳었지만,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수진 선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몸을 물렸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무언가 말하려다 삼켰던 그 얼굴이, 지금은 수진 선배 앞에서 그저 난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손에 쥔 큐시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오늘 하루, 무대 뒤에서 오빠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느꼈던 그 낯선 벅참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갔다.

역시, 아직은 동생일 뿐이구나.

그 씁쓸한 확인이, 큐시트 위에 적힌 빼곡한 글자들처럼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눌러앉았다.

성탄 트리의 불빛이 무대 위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벅찼던 감정을 조용히 접어 넣었다.

큐시트를 가방에 넣으며, 나는 애써 담담한 척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의 벅참도, 오늘의 씁쓸함도, 결국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로 덮일 것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큐시트를 들고 뛰어다니며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이, 이제는 손끝에 남은 옅은 피로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도 그 피로 밑에는, 분명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 해냈다는 단단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21화 끝]

22화 이스트팩 가방끈과 녹아든 냉기

명치 끝이 아직도 뻐근하게 조여 있었다. 애써 담담한 척 큐시트를 정리하는데, 가영이 슬쩍 다가와 내 얼굴을 살폈다.

"너 괜찮아?"

"어, 괜찮아." 나는 짧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설픈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교회 마당으로 나서자 매서운 공기가 얼굴로 훅 밀려들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

았지만, 그만큼 냉기가 피부로 곧장 와닿았다. 눈이 내릴 것 같지는 않은, 뼛속까지 시린 전형적인 서울의 겨울밤이었다.

"얘들아, 우리 영화나 보러 갈래?" 가영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을 꺼냈다. "목동 삼보극장에서 아직『8월의 크리스마스』하더라고."

"야, 12월에 8월의 크리스마스가 뭐냐." 다희가 피식 웃었다. "제목부터 계절하고 따로 놀잖아."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잖아. 호주 같은 데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맞이한다며?" 가영이가 어깨를 으쓱이더니 옆을 돌아보았다. "미라야, 너도 가자. 수능도 끝났는데 이제 좀 놀아야지."

"콜!" 미라가 기다렸다는 듯 냉큼 대답했다가, 이내 시계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지금 나가면 너무 늦지 않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특별 심야 상영 한대. 오늘 같은 날 그냥 헤어지긴 아깝잖아." 가영이가 다희의 팔짱을 끼며 재촉했다. "다희 너도 딱히 약속 없지?"

"뭐, 없긴 한데." 다희가 못 이기는 척 웃었다. "근데 다른 건 없고 하필 8월의 크리스마스야?"

"우리 동네 극장에서 지금 시간대에 걸어주는 게 그거뿐이더라고." 가영이가 혀를 살짝 내밀었다. "그리고 소문 들으니까 되게 잔잔하고 좋대. 오늘 밤 분위기랑 딱이지 뭐."

가영이가 그대로 청년부실 쪽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오빠도 같이 가자!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

선우 오빠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옅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나는 딱히 빠질 핑계를 찾지 못한 채, 얼결에 그 무리에 섞여 걸음을 옮겼다.

극장으로 가는 길, 다들 종종걸음으로 걸었다. 상가 앞마다 걸린 크리스마스 전구 장식이 어두운 골목을 알록달록하게 밝히고 있었고, 리어카에서 파는 붕어빵 냄새가 차가운 공기 사이로 퍼졌다.

"야, 저거 봐.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미라가 상가 앞 트리 장식을 가리키며 신나 했다. 다희와 미라는 나란히 팔짱을 끼고 앞서 걸었고, 나는 가영과 나란히 그 뒤를 따랐다. 선우 오빠는 조금 떨어진 채 우리 뒤에서 묵묵히 걸어왔다.

골목 어귀 레코드 가게에서 머라이어 캐리의 캐럴이 흘러나왔다. 가영이 그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다. "오늘 하루 진짜 길었다, 그치?"

"그러게." 나는 짧게 대답하며 옷깃을 여몄다.

삼보극장은 동네 사람들로 적당히 붐볐다. 다섯이 나란히 표를 끊고 상영관으로 들어섰는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가영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바꿔 앉으며 결과적으로 나와 오빠가 나란히 앉게 되었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다. 스크린 위로 변두리 사진관을 배경으로 한석규가 연기하는 정원의 담담한 얼굴이 비쳤다. 심은하가 연기하는 다림의 밝고 씩씩한 모습이 그 옆에 겹쳐지며, 두 사람 사이의 조용하고 애틋한 감정이 화면 위로 천천히 흘러갔다.

옆자리 오빠의 숨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나는 스크린보다 팔걸이 위에 놓인 손과 손 사이의 거리에 더 신경이 쓰였다.

정원이 낡은 사진관 안에서 홀로 카메라를 손질하는 장면, 다림이 주차단속 일을 하다가 무심코 사진관 유리창 너머를 흘긋거리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옆자리에서 오빠가 낮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스크린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신경이 옆으로 쏠렸다.

정원이 오랜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 돌아서서는 무너지듯 표정을 굳히는 장면이 이어졌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걸 눌러 참고 있다는 게,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영화 중반, 정원이 아버지에게 비디오 플레이어 켜고 끄는 법을 종이에 적어가며 알려주는 장면이 나왔다. 몇 번을 설명해도 아버지가 헷갈려 하자, 정원은 애써 눌러 참는 조바심 섞인 한숨을 내쉬면서도 끝내 다정하게 다시 짚어주었다.

나는 그 장면에서 순간 울컥했다.

요 몇 달간 지켜봐온 아버지의 뒷모습이 스크린 위로 겹쳐졌다. **여수로 내려가신** 뒤 **낯선 사택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맞춰 몇 번이고 다시 쓰던 모습, 컴퓨터 앞에서 서툴게 자판을 두드리다 한숨을 내쉬던 모습.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옷소매로 눈가를 슬쩍 훔쳤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며, 다들 저마다의 감상을 늘어놓았다.

"한석규 연기 진짜 미쳤더라. 그 담담한 표정 하나로 다 설명되잖아." 미라가 감탄하며 말했다.

"심은하도 마지막에 그 웃음 하나로 다 무너지더라." 다희가 맞장구쳤다.

"근데 나 그 비디오 가르쳐주는 장면에서 진짜 울 뻔했잖아." 다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맞아, 나도."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빠도 요즘 회사에서 컴퓨터 배운다고 매일 끙끙대셔. 나이 드셔서 그런가 그거 하나 익히는 것도 힘들어하시더라."

"근데 진짜 신기하다. 배우들이 대사를 별로 안 하는데도 다 느껴지잖아." 미라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게 진짜 잘하는 거지. 소리 지르고 우는 것보다 저렇게 참는 게 더 어렵대."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극장을 걸어 나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차가운 계단의 냉기가 옷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다들 자리를 뜨지 않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결말이 진짜 슬프지 않아? 다림이 나중에서야 사진 보고 알게 되잖아." 다희가 손을 호호 불며 말했다.

"그게 더 슬픈 거야. 대놓고 이별하는 것보다." 가영이 낮게 대꾸했다.

오빠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오빠의 옆얼굴을 슬쩍 살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아빠도... 요즘 여수에서 적응하시느라 힘드신가 봐. 새로 맡으신 일 서류 하나 맞추는 것도 서툴러하시는데, 그 앞에서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했거든."

친구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 감정을 말로 꺼내본 거였다. 다들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비슷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말없이도 깊은 공감이 흐르는 정적이었다.

"다들 힘든 시기네." 가영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정적을 깨듯, 가영이 문득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오빠, 나는 다희네랑 같은 방향이라 걔들이랑 갈게. 유진이 좀 데려다줘."

"어, 그래." 오빠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다희와 미라가 가영의 팔짱을 끼며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순식간에 나와 오빠 둘만 남겨졌다.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은 인적이 드물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상가 몇 곳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와 서로의 숨소리만이 그 고요한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이스트팩 가방 끈을 손에 꽉 쥔 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보았다. 영화관에서의 어색한 텐션, 친구들과 나눈 뜻밖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지금 이 침묵까지.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미스터 투의 조성모의 'To Heaven'이 차가운 밤공기 사이로 옅게 울려 퍼졌다.

"너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끝나면 내가 맨날 데려다줬었잖아." 오빠가 문득 옛 기억을 꺼냈다. "그때 너 진짜 조그마했는데."

"그랬었지." 나는 피식 웃었다. "오빠가 맨날 내 가방 대신 들어주고 그랬잖아."

"아, 맞다. 너 그때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싫다고 맨날 울고 그랬잖아." 오빠가 문득 웃으며 덧붙였다.

"그건 오빠가 놀려서 그런 거잖아!" 나는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다.

"내가 언제." 오빠가 시치미를 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편안하게 느껴졌다.

"근데 그때는 오빠가 내 세상의 전부였는데." 나는 무심코 그렇게 말해버리고는, 스스로도 조금 당황해서 말끝을 흐렸다. "그, 그니까 오빠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오빠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나는 괜히 발끝으로 바닥의 자갈을 툭 건드렸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보면 진짜 신기해." 오빠가 잠깐 말을 멈추고 하얀 입김을 내뱉었다. "동아리에서 신디 치는 것도 그렇고, 학과 선배들이랑 스터디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이에 되게 컸다, 너."

그 말을 듣는 순간, 반가움 밑에서 뭔가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컸다'는 그 한마디가, 동생을 향한 감탄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목동 아파트 단지 어귀에 다다랐을 때, 오빠가 문득 걸음을 늦췄다. 나도 따라 멈춰 섰다.

"아까 그거... 오해야."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나는 걸음을 멈춘 채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내 시선을 피한 채,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자신의 입김만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완전한 해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오늘 하루 쌓였던 냉기가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걸 느꼈다.

"알았어." 나는 그 이상 캐묻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걸음을 다시 옮기려던 그때, 문득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려 있던 물음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참, 그날 호프집에서… 하려던 말 있잖아." 나는 조심스레 운을 뗐다.

오빠가 걸음을 멈췄다. "아, 그거." 잠시 침묵하다가, 픽 웃으며 말을 이었다. "별거 아니었어. 그냥… 오늘 진짜 잘했다고, 대견하다고. 꼭 우리 동생 같아서."

오빠가 웃으며 내 머리를 가볍게 헝클였다. 나는 애써 따라 웃었지만, 그 손길이 지나간 자리가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다.

아파트 현관 앞에 다다르자, 오빠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들어가. 늦었다."

"오빠도 조심히 가." 나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기 직전, 나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오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전히 화해한 것도,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의 냉기만큼은 그 자리에 조금 녹아든 채 남아 있었다.

[22화 끝]

23화 조지 윈스턴 테이프와 독수리다방의 밤

"자, 이제 한 명씩 자기 마니또 밝히면서 선물 주자!" 크리스마스 예배가 막 끝난 참, 선우 오빠의 목소리가 청년부실을 가득 채웠다. 문학의 밤 내내 그랬듯, 오늘도 앞장서서 진행을 맡은 참이었다.

가영이 먼저 나서서 미라에게 예쁘게 포장된 머리핀을 건넸다. "짜잔, 나였어! 수능 끝난 기념으로다가."

"뭐야, 너였어?" 미라가 반가운 얼굴로 머리핀을 받아 들었다.

다희와 소연 언니도 차례로 서로의 마니또를 밝히며 선물을 주고받았다.

소연 언니가 다희에게 손수 뜬 목도리를 건네자, 다희가 놀란 얼굴로 목도리를 목에 둘러보았다. "언니, 이거 직접 뜬 거예요? 대박, 손재주 무슨 일이야."

"그냥 겨울이라 뜨개질하다가." 소연 언니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며 슬쩍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 내 마니또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자, 다음은 유진이." 전도사님이 나를 가리켰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누가 나설지 기다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우 오빠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 나였어." 오빠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다.

주변에서 다들 낮은 탄성을 흘렸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의 그 어색함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하필 오빠가 내 마니또라니.

오빠가 주머니에서 카세트테이프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내밀었다. 조지 윈스턴의 앨범이었다.

"이거, 네 생각 나서 샀다." 오빠가 무심한 듯 말했지만, 시선은 어색하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 테이프를 받아 들며 케이스 표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며칠 내내 남아 있던 냉기가 이 작은 선물 하나로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고마워."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배당을 나서는 길, 가영이 갑자기 오빠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오빠, 우리 신촌 가서 일마레에서 파스타 사줘라. 오늘 마니또 됐으니까 한턱내야지."

"내가 왜." 오빠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냥 사줘. 크리스마스잖아." 가영이 뻔뻔하게 팔짱을 꼈다.

"저도 낄래요." 다희가 냉큼 끼어들었다.

"나도, 나도." 미라도 손을 들었다.

결국 다섯이 함께 신촌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은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마다 알록달록한 전구 장식이 반짝였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추는 동안, 창밖으로 캐럴을 부르는 거리 찬양단의 모습이 보였다. 다희가 창에 얼굴을 붙이고 그 광경을 구경하며 감탄사를 흘렸다. "저기 봐, 완전 그림 같다."

나는 오빠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손잡이를 붙잡은 손끝이 버스의 흔들림에 따라 오빠의 손등에 살짝 스쳤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가영과 다희, 미라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재잘거렸고, 나는 오빠와 나란히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다.

밖은 뼛속까지 시린 겨울 오후이었지만, 계단을 따라 내려간 일마레 지하 매장은 특유의 온기와 잔잔한 크리스마스 캐롤로 가득했다.

은은한 주황빛 조명 아래 자리를 잡은 우리는 일마레 스페셜 파스타와 오징어먹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그리고 고르곤졸라 피자를 넉넉하게 주문했다.

부풀어 오른 피자 도우가 덮여 나온 스페셜 파스타를 보자, 가영이가 몇 번 와본 솜씨로 칼을 들어 도우를 십자로 갈라냈다. 그러고는 갓 구워진 빵 조각을 찢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산물 소스에 푹 찍어 먹었다.

포크와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파스타와 피자를 서로 나누어 먹다 보니,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금세 훈훈하게 풀어졌다.

"오빠, 여기 진짜 맛있다. 내가 추천 잘했지?"

가영이가 들뜬 얼굴로 자랑스레 말했다.

"근데 선우 오빠, 요즘 동아리에서는 어떤 곡 연습해요?"

이번엔 다희가 파스타 면을 포크로 돌돌 말아 올리며 물었다.

"이제 슬슬 다음 학기 새내기 환영회 공연 준비해야지."

"에이, 유진이 없으면 키보드 세팅도 제대로 못 하면서."

가영이가 나를 흘긋 바라보며 장난스레 웃었다. 나는 괜히 민망해져 차가운 유리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슬그머니 대답을 피했다.

바로 그때, 선우 오빠의 허리춤에서 삐삐 진동 소리가 웅하고 울렸다. 오빠가 삐삐를 꺼내 조그만 LCD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오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오늘 같은 날, 누구야?" 가영이가 무심하게 물었다.

"어, 그냥…"

오빠는 삐삐를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곁에서 지켜보던 내 마음 한구석에 오빠의 찰나 같던 표정이 잔상처럼 맴돌았다.

후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건 지수 언니가 음성 메시지로 남겨둔 연락이었다.

'오빠, 아까 학교 앞에서 본 것 같은데 맞죠? 신촌에 있으면 시간 될 때 잠깐 봐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이들의 수다에 장단을 맞추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오빠의 손끝이 허리춤의 삐삐로 슬그머니 향하는 것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가슴을 서늘하게 조여왔다.

"근데 미라야, 너 재수하느라 이런 데 한 번도 못 와봤지?" 가영이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이따가 우리 민들레영토도 가자. 완전 신세계야. 너 아마 가보면 깜짝 놀랄걸?"

"거기가 뭔데?" 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가보면 알아. 아늑한 아지트 같은 데인데, 문화비만 내면 차랑 음료도 계속 리필해주고 컵라면이나 빵도 줘. 완전 좋아." 다희가 신이 나서 거들었다.

식사를 마치자 오빠가 계산서를 집어 들었다.

"오빠도 우리랑 같이 민토 갈 거지?" 가영이가 물었다.

오빠는 "아니야,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 나는 신촌 나온 김에 동방에나 잠깐 들르려고." 하며 차분하게 다독이듯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끼리 민들레영토 가자!" 가영이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털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마레 앞에서 우리는 갈라졌다. 오빠는 동방 쪽으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걸어가는 오빠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고 친구들을 따라 나섰다.

방금 전까지 카세트테이프 하나로 데워졌던 마음이, 다시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이전에 셋이서 왔을 때도 느꼈지만, 민토는 언제 와도 특유의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성탄절 오후라 입구 근처는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로 북적였지만, 길어지는 대기 시간마저 축제의 일부인 양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웃음이 가득했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어 아늑한 구석 자리에 앉자, 미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을 터뜨렸다.

"우와, 진짜 분위기 좋다. 이런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 재수하는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게."

다희가 웃으며 따뜻한 민토차를 미라 잔에 가득 따라주었다. 잠시 후 민토차를 리필하러 갔던 다희가 노릇하게 구워진 토스트 한 접시를 챙겨 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거 몇 번을 리필해 먹어도 눈치 한 번 안 주는 게 진짜 대박이라니까. 완전 신세계야."

"그니까 여기가 인기가 많지." 가영이가 토스트를 하나 집어 들며 거들었다.

미라는 여전히 신기한 듯 매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한쪽에 듬직하게 엎드려 있는 민토의 명물인 커다란 개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눈을 커다랗게 떴다.

"야, 저건 또 뭐야? 무슨 개가 저렇게 커? 멀리서 보고 곰인형인 줄 알았어!"

한참을 신기해하며 공간을 둘러보던 것도 잠시, 가영이 소파에 편하게 기대며 말을 꺼냈다. "야, 근데 진짜 98년 다사다난했다. 그치?"

"말도 마." 미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 한 해 통째로 독서실에서 날아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끝나니까 홀가분하긴 해."

"나는 국문과 처음 왔을 때 완전 낯설었는데, 이제 좀 적응됐어." 가영이 웃으며 덧붙였다.

"나는 이번에 스타일 바꾼 거 진짜 잘한 것 같아." 다희가 자기 머리끝을 만지작거리며 뿌듯한 얼굴을 했다. "덕분에 자신감도 좀 붙었고."

"그래서 말인데." 가영이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너네는 99년에 연애 좀 해볼 생각 없어?"

"나는 이제 진짜 남자한테 곁눈질 좀 하려고." 다희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이 스타일로 그냥 썩힐 순 없잖아."

"나는 일단 대학 적응부터." 미라가 현실적으로 답했다. "연애는 그 다음 문제지."

"유진이 너는?" 가영이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는... 글쎄, 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정작 삼킨 채, 나는 애매하게 웃어넘기며 민토차를 한 모금 마셨다.

—

같은 시각, 독수리다방.

선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가 코트 자락을 펄럭이며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오빠, 학교 앞에서 본 거 맞죠? 답장이 없길래." 지수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어, 미안. 교회 동생들이랑 같이 있어서." 선우가 짧게 대꾸했다.

"괜찮아요. 근데 진짜 오늘 하려던 얘기가 있어서요." 지수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표정을 진지하게 바꿨다. "오빠, 99년부터는 진짜 취업 준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알죠?"

"알지. 요즘 학점 관리도 그렇고 신경 쓰이는 게 많아."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요즘 인턴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영문학 전공 쪽은 생각보다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수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오빠는 어때요? 방송국 쪽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은 경쟁이 워낙 세서, 일단 관련 스터디부터 알아보려고." 선우가 대답했다. "근데 요즘 IMF 여파로 채용 자체가 줄어서 걱정이야."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스펙보다 실전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냉정하게 짚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방학에 관련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요."

선우는 그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현실적인 계산과 전략을 나누는 대화. 평소 유진 앞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계산적이고 냉철한 면모가, 지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오빠는 진짜 이럴 때 보면 되게 다른 사람 같아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평소엔 되게 여유로운데, 이런 얘기할 때는 완전 진지해지네."

"그런가." 선우가 짧게 웃었다.

지수가 커피잔을 감싸 쥐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근데 이런 얘기 진지하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오빠랑 얘기하면 편해요."

"나도 그래." 선우가 짧게 대답했다. "다른 애들이랑은 이런 얘기 잘 안 하게 되더라."

두 사람 사이에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신촌의 크리스마스 인파가 분주하게 오갔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주 앉아, 서로의 진로에 대한 냉정한 조언을 주고받았다. 대등한 위치에서 나누는 그 지적인 교감은, 어느 쪽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

민들레영토에서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가방 속 카세트테이프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신촌 거리의 캐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카세트테이프 케이스에 적힌 조지 윈스턴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며, 애써 다른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지금쯤 오빠는 동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방금 전 받았던 이 작은 선물의 온기와, 지

금 이 순간 느껴지는 서늘함 사이에서, 나는 그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23화 끝]

24화 선우의 취업 서적과 낡은 머플러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부터, 나는 애꿎은 다이어리 페지만 몇 번이고 펼쳤다 덮기를 반복했다. 가영이의 말을 통해 들은 오빠의 동선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빠는 그날 밤 동방에 들렀다가, 독수리다방에서 지수 언니를 만나 늦게 들어왔다고 했다.

오빠가 독수리다방에서 지수 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표정으로 그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있었는지, 나는 끝내 물어보지 못했다. 물음을 던지는 순간 정말로 확답을 듣게 될까 봐, 그 진실에 다가서는 두려움이 나를 온전히 침묵 속에 가두어 버렸다.

책상 서랍 한쪽에는 조지 윈스턴 테이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니또 선물로 받았던 그 작은 온기를, 나는 며칠째 꺼내 듣지 못하고 있었다.

케이스 위에 옅게 앉은 먼지를 손끝으로 훔쳐낼 때마다, 그날 밤 느꼈던 온기와 서늘함 사이의 그 간극이 다시 떠올랐다.

동방에는 며칠째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딱히 피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빠와 마주 앉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그 대신 방학 동안 밀린 책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도와 김장 뒷정리를 하고, 유나와 나란히 앉아 연말 가요대상을 보며 나흘을 흘려보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나고, 다시 동방으로 향해야 하는 날이 왔다. 98년의 마지막 정리를 겸한 대청소 날이라, 빠질 수 있는 핑계도 마땅치 않았다.

12월 29일 아침, 동방 앞에는 오랜만에 동아리원 전원이 모여 있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시작하자." 상혁 선배가 낡은 다이어리를 덮으며 앞으로 나섰다. "오늘은 그냥 청소 날이 아니야. 98년 정리하고 99년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잡은 자리니까, 다들 마음가짐 좀 다르게 먹고."

상혁 선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짧게 웃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회장직 내려놓는다. 다음 학기부터는 고시 준비에 전념해야 해서, 얼굴 자주 보기 힘들 것 같아."

주변에서 다들 아쉬운 탄성을 흘렸다. 현아 언니가 그 옆에서 한 발짝 나서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제 새 회장이야. 다들 알다시피 예산이랑 살림은 계속 내가 봐왔으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현아 언니가 안경을 슬쩍 올리며 단호하게 덧붙였다. "일단 오늘은 청소부터 확실히 하자. 동아리비 미납자 명단도 다시 정리할 거니까 각오들 해."

"역시 현아 언니답다." 재민 선배가 웃으며 빗자루를 집어 들었다.

상혁 선배가 낡은 다이어리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다. "다들 뭐, 서운해할 것 없어. 그냥 자리만 바뀌는 거지, 어차피 다음 공연 때도 얼굴 비출 거니까."

"그래도 회장 자리 내려놓는 건 좀 아쉽죠." 지훈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아쉬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상혁 선배가 짧게 웃고는 다이어리를 접었다. "근데 어차피 언젠가는 넘겨야 할 자리였고, 현아가 워낙 야무지니까 걱정은 안 해."

"저 믿으셔도 돼요." 현아 언니가 자신만만하게 대꾸했다. "예산 관리는 지금까지처럼 빈틈없이 할 거니까."

청소가 시작되자 동방 곳곳에서 저마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이 먼지 좀 봐. 1년 치가 여기 다 있네." 재민 선배가 구석 선반을 쓸며 투덜거렸다. "누가 여기다 과자 부스러기 흘렸어."

"저요, 죄송합니다." 지훈 선배가 낡은 영화 포스터 액자를 닦다 말고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그러곤 이내 흥얼거리며 다시 걸레질을 이어갔다.

"야, 청소할 때도 흥이 있어야지." 지훈 선배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액자 테두리를 마저 닦았다.

진우 선배는 앰프 뒤 케이블을 정리하며 낮게 투덜댔다. "이거 작년에 나 혼자 다 정리해 놨는데, 또 이렇게 엉켜있네. 누가 만졌어."

"저 아닌데요." 나는 괜히 찔려서 대답했다.

"너 아니면 누구야." 진우 선배가 눈을 흘기며 웃었다.

지수 언니는 낡은 악보 파일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정리하고 있었다. "현아야, 이거 다 오래된 건데 버려도 돼?"

"연도별로 분류만 해놔. 나중에 자료로 쓸 수도 있으니까." 현아 언니가 예산 장부를 확인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선영 언니는 신디사이저 건반을 젖은 천으로 닦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너 내년에도 신

디 계속할 거지?"

"네, 계속할 생각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다. 후배 하나 없으면 나 혼자 다 해야 하잖아." 선영 언니가 안도한 듯 웃었다.

지훈 선배가 걸레를 든 채 캐비닛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근데 진짜 한 해가 훅 갔다. 엊그제 신입생 오디션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벌써 3학년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지수 언니가 악보를 정리하다 말고 맞장구쳤다.

재민 선배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다. "야, 다들 그만 감상에 젖고 청소나 마저 하자. 밥 늦어지면 안 되잖아."

"밥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네." 진우 선배가 낮게 웃으며 케이블을 마저 정리했다.

선우 오빠가 낡은 스피커를 옮기다 말고 짧게 거들었다. "다들 힘내자, 거의 다 끝났어."

현아 언니가 화이트보드에 적힌 동아리비 미납자 명단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참, 미납자들은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하고 가. 새해까지 끌고 가지 말고."

"나 오늘 낼게" 재민 선배가 뜨끔한 얼굴로 대답했다.

선우 오빠는 묵묵히 낡은 스피커를 옮기며 청소를 도왔다. 나도 신디사이저 주변 정리를 맡아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두 시간 남짓 청소를 끝내고 나니, 다들 얼굴에 개운한 기색이 가득했다.

"자, 다들 수고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상혁 선배가 손을 탈탈 털며 앞장섰다.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진짜요? 형 최고!" 재민 선배가 환호성을 질렀다.

"근데 상혁 형, 진짜 오늘 쏘시는 거예요?" 재민 선배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난 얼굴로 물었다.

"그래, 오늘만큼은 내가 쏜다니까." 상혁 선배가 지갑을 툭툭 두드리며 웃었다.

"역시 형밖에 없다." 진우 선배가 엄지를 치켜세웠다.

다들 웃음을 터뜨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벌써부터 부산식당의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고프지." 지훈 선배가 배를 문지르며 걸음을 재촉했다.

"청소해서 그래. 몸을 움직였으니까." 선영 언니가 웃으며 대꾸했다.

부산식당으로 향하는 길, 다들 홀가분한 얼굴로 종종걸음을 걸었다. 겨울 햇살이 유독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전이었다.

부산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훅 풍겨왔다.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된장찌개, 김치찌개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 상 가득 시켰다.

"자, 다들 먹자." 상혁 선배의 말에 다들 젓가락을 들었다.

한참 배를 채우던 중, 재민 선배가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형, 진짜 고시 준비하면 요즘 경쟁률 어때요? 저도 요즘 행정고시 쪽 생각 중인데."

"장난 아니지. IMF 터지고 나서 다들 안정적인 직장 찾는다고 몰려서, 경쟁률이 예전이랑 비교가 안 돼." 상혁 선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근데 그만큼 다들 절박하게 준비하니까, 어중간하게 해서는 답이 없어."

"저는 요즘 진짜 걱정돼요." 진우 선배가 젓가락으로 오징어볶음을 뒤적이며 말했다. "금속공학과인데, 요즘 대기업 채용이 반토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과 선배들도 절반이 아직 취업 못 했대요."

"신문방송학과도 마찬가지야." 지훈 선배가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엔 방송국 공채가 매년 꾸준히 있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확 줄었다고. 나도 슬슬 다른 길도 생각해봐야 하나 싶어."

"저는 그냥 대학원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수 언니가 담담하게 말했다. "취업 시장이 이 모양인데 굳이 지금 나가서 부딪히느니, 좀 더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것도 나쁘지 않지." 현아 언니가 김치찌개를 뜨며 냉정하게 짚었다. "근데 대학원도 결국 나중에 취업 문제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 사이에 확실한 계획은 있어야 해."

"현아는 진짜 현실적이다." 재민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현실적이어야 살아남죠, 요즘 같은 때." 현아 언니가 단호하게 대꾸했다.

"근데 진짜 요즘 다들 걱정 많지." 상혁 선배가 국물을 뜨며 낮게 말했다. "나도 사시 준비하면서 매년 이맘때만 되면 다시 초조해지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민 선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행정고시 쪽도 경쟁률이 매년 오르기만 하니까,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어야 하나 싶고."

"그래도 다들 이렇게 각자 방향은 잡고 있잖아요." 지수 언니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그게 더 부러운데. 석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잡혀서."

"천천히 찾아도 돼. 이제 3학년이잖아." 현아 언니가 짧게 다독였다.

"그건 그런데, 주변 다들 뭔가 하나씩 준비하는 거 보면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지수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마음 다 똑같아." 상혁 선배가 짧게 대꾸했다. "겉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다 조급해. 그냥 다들 티를 안 낼 뿐이지."

그 말에 다들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 언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놓으려고요. 뭐라도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다들 한동안 말없이 밥만 먹었다. 저마다의 걱정이 상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듯했다.

"근데 진짜 여기 반찬 리필 후하잖아." 재민 선배가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화제를 돌렸다. "그래서 내가 여기만 오는 거야."

"사장님이 자식처럼 챙겨주는 것도 한몫하지." 진우 선배가 맞장구쳤다.

"가격 대비 양도 진짜 넉넉하고." 현아 언니가 덧붙이며 옅게 웃었다.

방금 전까지 무겁던 분위기가 그 한마디들로 조금씩 풀어졌다. 나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나는 다가올 99년 새해 계획도 세우고 책도 좀 볼 겸 도서관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 입구에 다다랐을 때, 학생회관 쪽에서 걸어오던 선우 오빠와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동방에 잠시 들렀다가 취업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오던 길이라고 했다.

"어, 유진이네? 요즘 진짜 자주 만난다."

오빠가 특유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반갑게 말을 건넸다.

"그러게. 이럴 거면 그냥 스터디라도 하나 만들지." 나는 농담처럼 대꾸했다.

오빠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더니,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머플러를 풀어 내 목에 둘러주었다. "너 되게 추워 보인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나는 잠깐 숨을 멈췄다. "어, 오빠는 안 추워?"

목덜미에 닿은 머플러가 아직 그의 체온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서, 그 온기가 옷깃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오빠가 머플러를 둘러주며 낮게 덧붙였다. "감기 걸리면 너만 손해야."

나는 그 무심한 듯한 말투에 괜히 웃음이 났다. "고마워, 오빠."

"난 괜찮아. 들어가자." 오빠가 짧게 대답하며 도서관 문을 열었다.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99년 계획을 정리한 다이어리를 펼쳤고, 오빠는 취업 관련 서적을 펼쳐 들었다. 한동안 각자의 책에 몰두하며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 잠깐 학과 사무실 들렀다 올게."

"어,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나가고 혼자 남은 자리에서, 나는 목에 둘러진 낡은 머플러를 가만히 매만졌다. 오래 써서 보풀이 일어난 그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창밖으로 해질녘의 붉은 빛이 도서관 창가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을 천천히 되새겼다. 다들 저마다의 불안을 안고서도, 각자의 속도로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내년에는, 나도 오빠와 대등해지고 싶었다. 언제까지고 챙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머플러를 두 손으로 꽉 쥐었다. 내년에는 반드시, 오빠와 대등해지겠다는 다짐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24화 끝]

25화 송구영신 예배와 도영의 첫 인사

어머니가 반찬을 나르며 식탁 위에 김이 오르는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12월 31일 저녁 여섯 시 무렵,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따 예배 갔다 오면 또 새해네."

아버지가 물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말을 꺼냈다. "그래도 올해 우리 식구, 다들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하는 거. 그게 제일 큰 감사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말수가 급격히 줄었던 아버지였다. 여수로 내려가신 뒤로 한동안 얼굴에 초점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조금씩 예전의 여유를 되찾아가는 게 눈에 보였다.

"아빠 요즘 표정 훨씬 좋아지셨어요." 나는 반찬을 뒤적이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보여?" 아버지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새해에는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본사 쪽에서도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진짜요? 잘됐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절로 커졌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아직 안 죽었어." 아버지가 농담처럼 덧붙이며 웃었다.

"유나 너는 학교생활 어때, 요즘." 어머니가 막내를 향해 물었다.

"완전 캡이지, 뭐." 유나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다. "친구들이랑 다꾸도 하고, H.O.T. 새 앨범도 나와서 완전 행복해. 이번에 우리 반에서도 클럽 H.O.T. 정회원 애들 완전 많아졌잖아."

"너는 맨날 그놈의 H.O.T." 나는 피식 웃으며 핀잔을 줬다.

"언니는 뭐, 나보다 낫냐? 언니도 요즘 맨날 딴생각하잖아." 유나가 눈을 흘기며 되받아쳤다.

"뭐래, 안 그런데."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밥을 떠먹었다.

"유진이 너도 올해 대학 들어가서 진짜 많이 컸어." 어머니가 흐뭇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동아리에서 신디사이저 하는 것도 그렇고, 학과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처음엔 잘 적응할까 걱정했는데."

"저도 이제 제법 적응한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년엔 또 뭐 계획 있어?" 어머니가 물었다.

"일단 스터디 계속하고, 자격증도 하나 준비해보려고요." 나는 대답하며 문득 얼마 전 다이어리에 적었던 다짐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잔을 다시 채우며 덧붙였다. "내년에는 다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식구 다 같이."

"네, 아빠." 나와 유나가 동시에 대답했다.

식탁 위로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현관으로 나섰다. 청년부는 밤 아홉 시부터 모여 찬양 연습을 하기로 되어 있어,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나서야 했다.

"엄마, 나 먼저 갈게요. 저희는 아홉 시부터 연습이라 좀 일찍 가야 돼요." 나는 목도리를 두르며 말했다.

"그래, 조심히 가."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배웅했다. "우리는 좀 쉬었다 나갈게."

"근데 엄마, 오실 때는 밤 11시까지 오세요." 나는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다. "11시부터 저희 청년부가 찬양 인도 맡거든요. 11시 30분까지 오시면 그거 못 보니까, 꼭 11시까지 오셔야 돼요."

"어, 그래. 알았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랑 유나 데리고 시간 맞춰 갈게."

"언니, 나도 갈까?" 유나가 방문을 빼꼼 열고 물었다.

"너는 그냥 엄마 아빠랑 좀 쉬었다 같이 와. 언니 지금 바로 나가야 돼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어. 이따 봐, 언니!" 유나가 손을 흔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밤공기가 훅 밀려들었다. 하늘은 이미 캄캄했고, 단지 안길엔 그믐밤 특유의 적막이 감돌았다. 1998년의 마지막 밤, 나는 그렇게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밤 아홉 시, 합주실에는 이미 낯익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오빠가 둘러준 낡은 머플러가 아직도 목에 감긴 듯한 온기로 남아 있었다. 내년에는 오빠와 대등해지겠다던 그 다짐이, 오늘 저녁에는 이상하게도 새로운 한 해를 향한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 다들 자리 잡자. 오늘 우리가 찬양 인도 맡았으니까 제대로 맞춰보자." 강요한 전도사님의 목소리에 다들 각자 악기 앞으로 흩어졌다.

나는 신디사이저 건반 위에 손을 얹으며 오늘 부를 곡들을 훑어보았다. 1998년의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붕 뜨게 만들었다.

한 시간 남짓 연습이 이어졌다. 선우 오빠의 기타 선율에 맞춰 코드를 짚어가며, 나는 오늘 밤의 흐름을 하나씩 그려보았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자." 전도사님의 말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나도 건반에서 손을 떼고 목을 축이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낯선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저기, 혹시 유진 누나 맞죠?"

돌아보니 처음 보는 남학생이 서 있었다. 넓은 어깨에 후드티를 걸친, 건강한 체대생 특유의 청량한 인상이었다.

"어, 맞는데. 누구세요?" 나는 조금 얼떨떨하게 물었다.

"저 도영이라고 하는데, 99학번 새내기예요." 그가 씩씩하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내년부터 여기서 드럼 칠 건데,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리려고요."

거침없고 시원시원한 화법이었다. 나는 그 당당함에 살짝 당황하면서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아, 그렇구나. 잘 부탁해."

"네, 누나! 잘 부탁드려요." 도영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몸을 돌리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오빠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오빠, 왜 그래?" 나는 무심코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오빠가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연습이 재개되자, 전도사님이 다들 모아놓고 도영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자, 다들 잠깐 집중. 얘가 내년부터 우리 드럼 맡을 도영이야." 전도사님이 도영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H체대 체육학과, 유도 선수 출신이니까 힘은 좋을 거야. 다들 잘 챙겨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영이 넉살 좋게 인사하며 자리를 잡았다.

다들 박수로 환영하는 가운데, 나는 다시 연습에 집중하려 했다. 그런데 옆에서 여전히 가라앉은 표정으로 기타 줄을 고르는 오빠가 신경 쓰였다. 평소라면 신입 후배를 반갑게 맞아줬을 텐데, 오늘은 유독 말수가 없었다.

연습을 마치고 밤 열한 시가 되자, 청년부가 본격적으로 찬양 인도를 맡아 예배 분위기를 다잡았다. 예배당은 어느새 교인들로 가득 찼다. 저 뒤편으로 엄마와 아빠, 유나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게 보였다.

11시 30분, 담임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송구영신예배가 정식으로 시작됐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가 차분하게 이어졌다. IMF의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견뎌온 한 해였다는 말씀에, 예배당 곳곳에서 낮은 탄식과 눈물이 새어 나왔다. 실직과 재기, 이별과 재회, 크고 작은 상실들을 지나온 얼굴들이 저마다의 무게로 그 말씀을 받아 안고 있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예배당을 채웠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강단 옆에 세워진 대형 화면에 보신각 타종 생중계가 비치기 시작했

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바라보았다.

서른세 번의 타종 소리가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지난 1998년을 돌아보았다.

오빠를 향한 마음 하나로 시작된 대학 생활, 동아리에서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가던 순간들, 학과 선배들에게 처음으로 인정받던 그 벅찬 감정, 그리고 소연 언니를 통해 마주했던 나 자신의 비참한 거울까지. 여수에서 낯선 자리에 조금씩 다시 일어서던 아버지의 뒷모습도, 그 타종 소리 사이로 겹쳐졌다.

타종이 끝나고 다시 조용한 정적이 예배당을 감쌌다. 다들 자리에 앉아 묵상기도를 이어갔다.

잠시 후,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주보와 함께 배포된 99년 기도제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섯 개의 칸이 비어 있었다.

나는 볼펜을 쥐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건강과 사업 재기, 어머니의 평안, 동생 유나의 진학, 그리고 학업에서의 좋은 성과까지 네 개의 칸을 채웠다.

다섯 번째 칸 앞에서 나는 잠시 펜을 멈췄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적을 용기는 없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짧은 단어 하나만 조심스럽게 적어 넣었다.

볼펜을 쥔 손끝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종이 위에 짧고 깊은 자국이 남았다.

동행.

그 두 글자 안에는,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언제까지고 오빠 뒤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카드를 접어 손에 쥔 채, 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되뇌었다.

설교가 끝난 뒤 애찬식이 이어졌다. 교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앞으로 길게 줄을 섰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누어 주시는 떡과 포도주 잔을 받으며 다들 손에 쥐고 있던 기도제목 카드를 제출하고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았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나는 카드를 조심스럽게 함에 넣고 말씀 카드를 받아 들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1)'

예배가 마무리된 시각은 날이 바뀐 새벽 12시 30분이었다. 목사님께서 가족별, 개인별로 안수기도를 받을 성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부목사님들의 차분한 안내를 받으며 나는 부모님, 그리고 유나와 함께 안수기도 순서를 기다렸다.

"이 가정에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의 소망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목사님의 기도를 마음 깊이 새겨 넣었다. 1999년 새해에는 정말로 무언가 달라질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예배당을 나서는 길,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영이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어, 그래. 너도." 나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그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오빠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표정 위로 낯선 불편함이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1998년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코트 주머니에 넣어둔 말씀카드가 손끝에 걸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작은 종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손전등도 없는 어두운 교회 마당에서, 나는 말씀카드 구절을 몇 번이고 눈으로 되짚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걸까. 그 물음에 선뜻 답할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급함 대신 옅은 안도 같은 것이 마음 한켠에 내려앉았다.

언젠가는 온다는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나는 1999년으로 넘어가는 이 밤의 공기 속에 가만히 접어 넣었다.

[25화 끝]